

10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4
OCTOBER
vol.274

Cover Story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4회 정기연주회

반갑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이문섭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도심 주거의 새로운 가능성

부록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2014 6th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Asia port Series-

예술감독 오충근

Artistic Director Choong-Keun Oh

2014. 11. 24 | 월 | 7:30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onday 7:30pm | November 24th 2014 | Busan Cultural Center

PROGRAM

리체이

Lee Che-Yi

바이올린과 해금을 위한 이중협주곡 〈부산환상곡〉

〈Busan Fantasy〉 Duo Concerto for Violin and Haegeum

차이콥스키

P. I. Tchaikovsky

교향곡 제6번 작품74 '비창' 外 수 곡.

Symphony No.6 In b Minor, Op.74 'Pathetique'

대화합으로 상생하는 아시아 미래 프로젝트 !
 코리아 부산을 시작으로
 일본 도쿄, 대만 타이베이, 가오슝,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 5개 항구도시 오케스트라를 잇는
 아시아 포트 시리즈 !!

해금 나 리
 Haegeum Nary

바이올린 양경아
 Violin Kyung-Ah Yang

| 주 최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추진위원회

| 후 원 |  부산광역시  넥센월석문화재단

| 협 찬 |  KWANG 조광페인트  부산은행  DSME 대우조선해양(주)  HAEUNDAE GRAND HOTEL

| 문 의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www.bwpo.co.kr **KNN** 051-850-9344 www.knn.co.kr

| 예매처 |  인터파크 1544-1555 | 입장료 |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은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The 35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예술감독 김원명

An Evening of *Piano Duets*

문용희 Yong Hi Moon / 김정권 Quentin Kim / 탁영아 Young-Ah Tak

2014. 10. 2 (목)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Program

F. Schubert Fantasy for Piano Four-hands in F minor D. 940 (op. 103)

W. A. Mozart Sonata for Two Pianos in D major K. 448

C. Saint-Saëns Variations on a Theme of Beethoven op. 35

P. Tchaikovsky Waltz from Serenade for String Orchestra in C major op. 48 (arr. Victor Babin)
Grand Valse Brillante from Opera *Eugene Onegin* (arr. Babin)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원음방송, 팝부산,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2천원 예매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문의 051)220-5812

무대감독 전광수 조명감독 박병주 음향감독 신경범

복권기금
문화나눔
www.lotteryarts.or.kr

본 공연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2014
Busan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제10회
부산국제합창제

2014년 10월 13일(월)~18일(토)

문화회관 대극장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소향씨어터

전야大합창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0월 14일 (화) 오후 8시

- 10주년기념 창작위촉곡(작곡/이영조)
- 베토벤 교향곡 No 9. “합창” 그리고 “코랄 판타지”

개막공연 Opening Concert

탈리스 스콜라즈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10월 15일 (수) 오후 8시

지휘 · 피터 필립스

갈라콘서트 1. Gala Concert 1.

안산시립합창단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10월 16일 (목) 오후 8시

지휘 · 박신화

갈라콘서트 2. Gala Concert 2.

최고의 합창

소향씨어터

10월 17일 (금) 오후 8시

• 주최 :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 협찬 : BS 부산은행 명인제약 HYSUNG Pharmacy Co. 유세코통상 양산병원 • 주관방송 : KBS

부산국제합창제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티켓예매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www.busanchoral.org

MOZART

모차르트 연주의 진수를 만나다!

잘츠부르크 솔리스트 오케스트라



피아노 / 황성훈

소프라노 / 김경희

salzburg
orchester solisten
Musik in kleiner Besetzung



All Mozart PROGRAM

Overture 티토황제의 자비

Piano Concerto No.27 피아노협주곡 제27번 (피아노/황성훈)

Exsultate jubilate, “춤춰라, 노래하라, 나의 영혼이여” K.165 (소프라노/김경희)

Symphony No.35 “Haffner” 교향곡 제35번 “하프너”

2014. 10. 26.SUNDAY 5^{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아트매니지먼트

협찬

강동병원
KANG-DONG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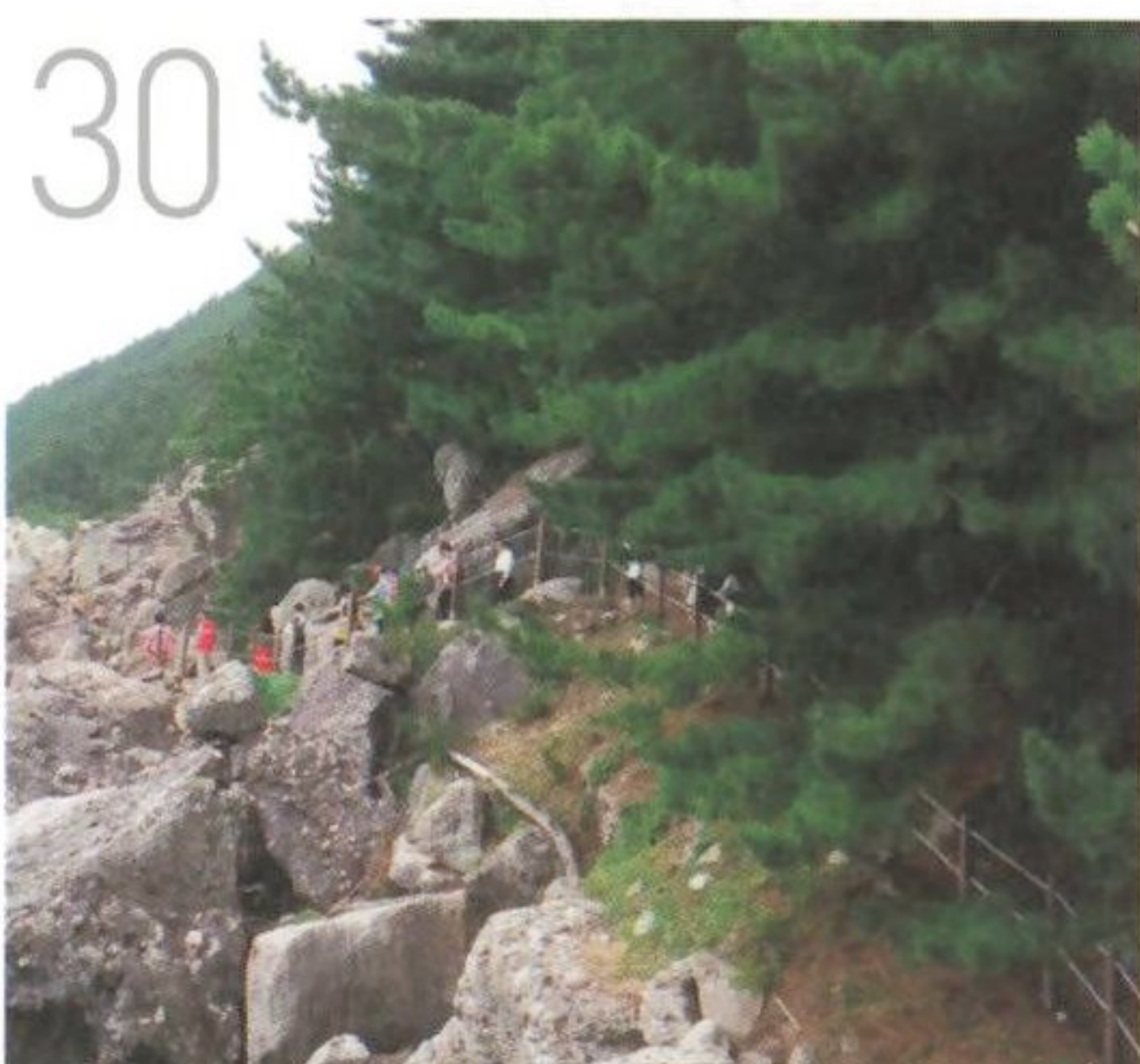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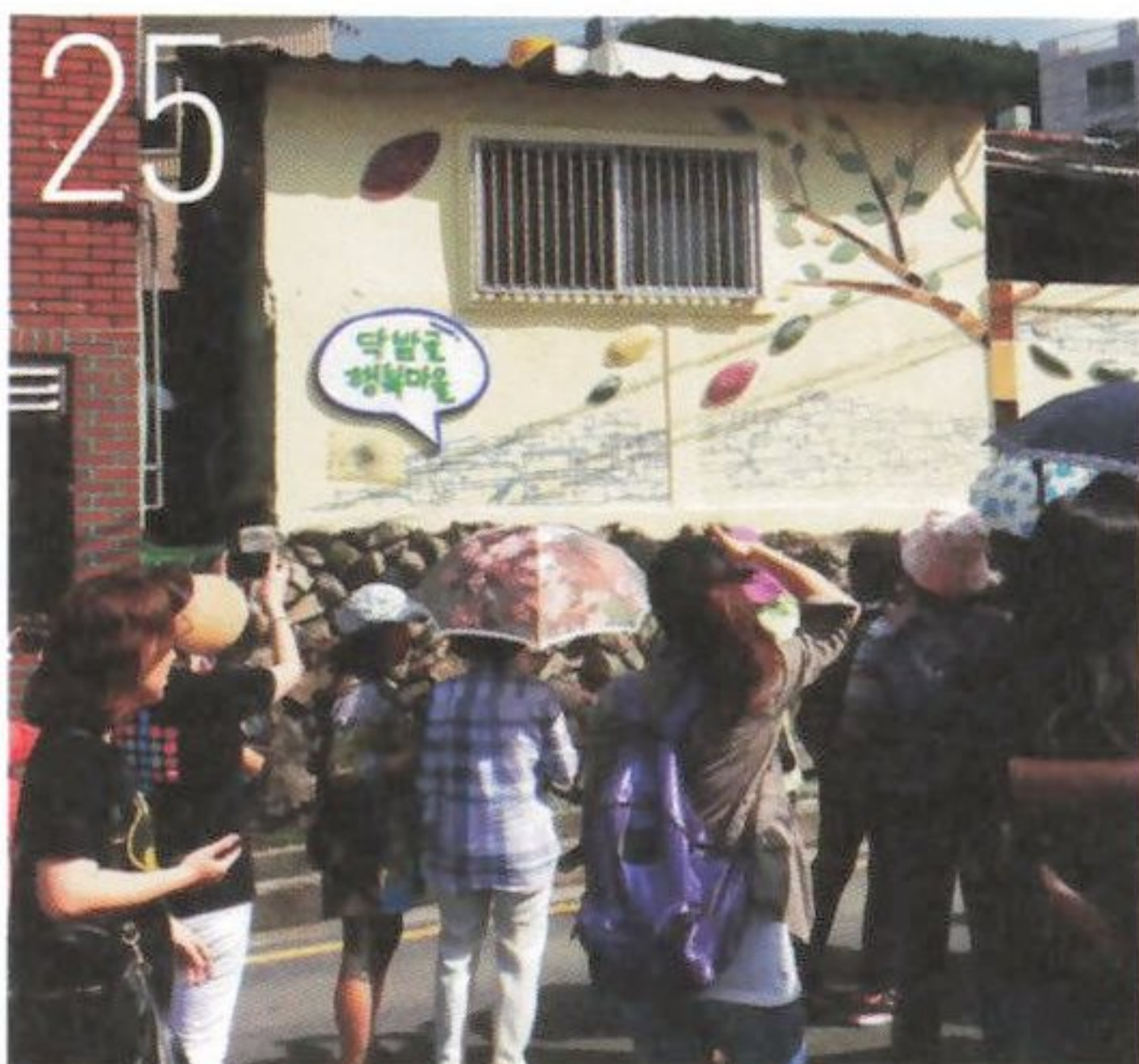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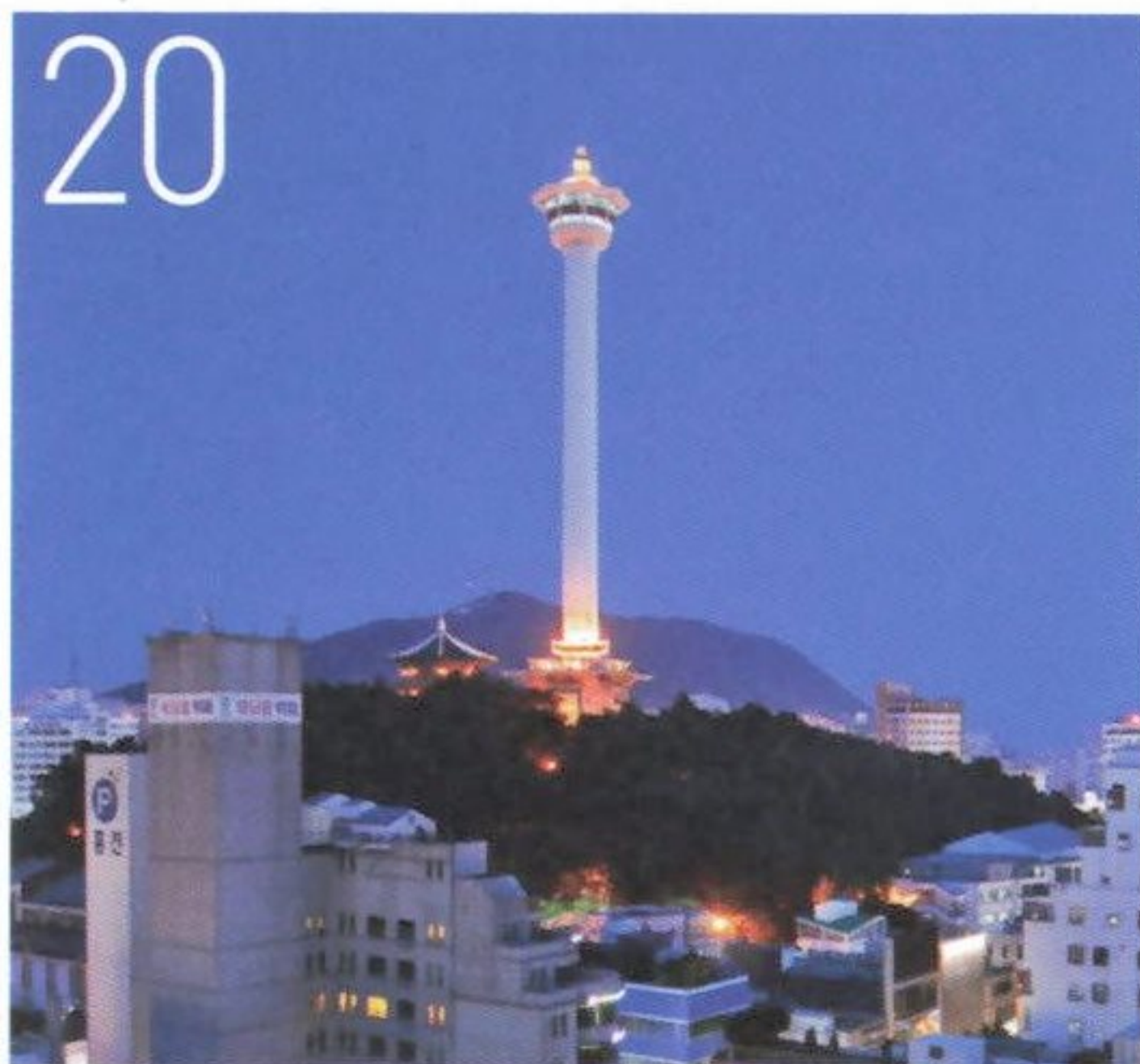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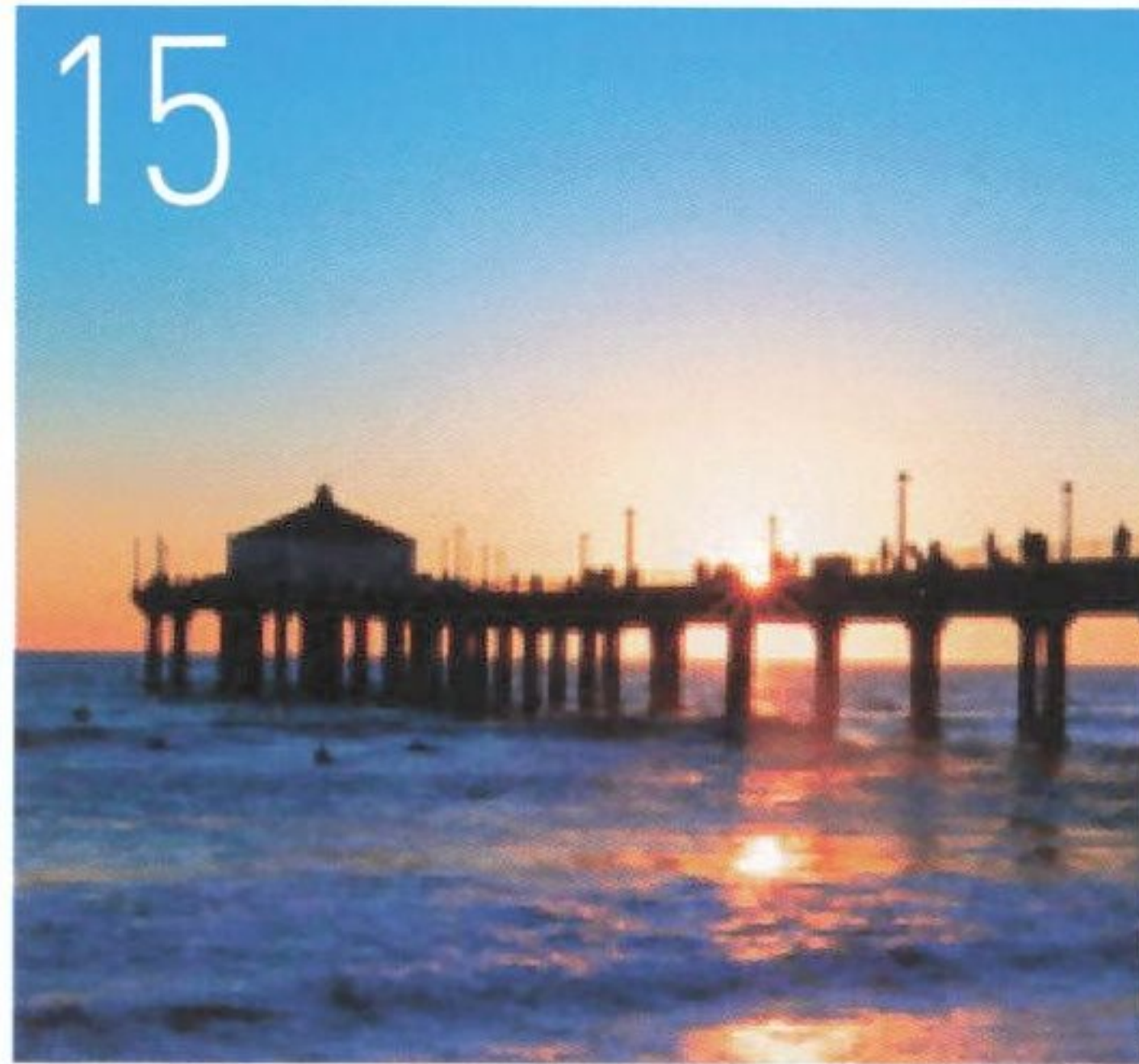
티켓 R 90,000 S 70,000 A 50,000 B 30,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예매처 인터파크 BS 팝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www.busanarts.com

Contents

·
·
·

2014
OCTOBER
vol.274



- 08 **커버스토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4회 정기연주회

Cultural Story

- 10 **공연 일정**
12 **반갑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이문섭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치유와 힐링을 주는 메사닉 주이시 'Lev shelo' 밴드_도진미
18 **불멸의 거장 셰익스피어④**
희극의 세계_송홍한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도심 주거의 새로운 가능성_강기표
23 **하인상의 생각그림**
이브의 선물
24 **그곳에 가면**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26 **우리는 문화가족**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
28 **테마가 있는 여행**
정기회원가족을 위한 테마여행 안내

Boards Inside

- 34 **프리뷰**
40 **리뷰**
42 **프로그램 가이드**
61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62 **새로나온 음반**
63 **새로나온 책**

Center News

- 64 **부산문화회관 소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10월호 통권 274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4년 9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Boards
Inside

커버
스토리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4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심포니 V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만원 · S석 1만 5천원 · A석 1만원 ·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올리버 케른이 10월의 마지막 밤 부산시민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특별한 음악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수석지휘자 리신차오가 지휘하는 이날 무대는 독일 함부르크 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올리브 케른이 협연하는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3번'과 목관, 금관, 타악기가 함께 대편성으로 어우러져 고난과 억압을 극복한 승리와 환희의 전율 넘치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올리버 케른은 세니갈리아, 하마마츠, 베이징, 파리 등 수많은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수상과 더불어, 1999년 뮌헨 'ARD' 어워드 및 2001년 비엔나 '베토벤' 어워드 등 정상급 대회에서 우승하며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이다. 베토벤과 브람스 작품의 탁월한 연주로 갈채를 받고 있는 올리버 케른은 평론가들부터 예술적 기교에서 끝나지 않고, 음색과 표현에 있어 철저한 탐구를 하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양대학교 음대 교수로 활동, 한국 음악애호가들과도 친숙한 올리버 케른은 그동안 뉴 저팬 필하모닉, 코리안 심포니, 중국국립교향악단, 그리고 베를린, 뮌헨, 하노버, 비엔나의 방송 교향악단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 마이클 스톤, 루 지아, 마크 수스트로, 헤라트 오스캄프,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등 저명 지휘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올리버 케른이 연주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고전주의를 따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완전히 베토벤다운 열정과 힘을 드러내며 성숙기에 접어든 베토벤의 독특한 개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작품은 운명적이며 비창적인 동시에 열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당대

협주곡과는 달리 훨씬 내면성을 중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신의 비통함과 괴로움은 1798년작 피아노 소나타 '비창'과 함께 1800년 착수, 1803년 완성된 이 작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베토벤의 어두움과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곡의 관현악은 당시 협주곡들 이상으로 교향곡적이며 각 악기의 특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번 무대의 타이틀곡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은 1932년 구 소련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지도 방침'에 의해 형식주의적 편향을 청산한 그의 나이 31세에 세상에 내놓은 작품이다. 쇼스타코비치는 톨스토이의 '인간성의 설정'이라는 말에서 이 곡의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곡의 중심에 하나의 인간을 두고 그의 모든 체험을 생각하면서 밝고 명랑한 환희의 세계를 지향하는 경지를 그리고 있다. 투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는 양상이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이나 '합창' 등에 나타난 이념과 일맥상통하므로 곧잘 비교되곤 한다. 조성의 변화는 자유로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2관 편성에 금관악기와 타악기가 강화되어 있다. 1937년 11월 21일 예브게니 므라빈스키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의 연주로 초연되었으며, 당시 연주가 끝나자마자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호했다고 전해진다.



CULTURAL SCHEDULE

국제회의장

장일범의 명작 오페라속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5:00

10월 6일(월)

푸치니 <마담 버터플라이>(나비 부인)

10월 20일(월)

레온카발로 <팔리아치>(광대들)

10월 27일(월)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오동주 가곡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2:00

10월 7일(화)

호흡법과 프레이지 연결법2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10월 14일(화)

여러 가지 발성 테크닉 연구 및 실제1

-떠나는 배

10월 21일(화)

여러 가지 발성 테크닉 연구 및 실제2

-그대는 나의 모든 것

10월 28일(화)

이탈리아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연구1

-Caro mio ben

문화대학-무대예술의 결정체 오페라 II

매주 수요일 오후 2:00

10월 1일(수) 강사/이소영(솔 오페라단 단장)

오페라 토스카! 토스카의 사랑과 비극

10월 8일(수) 강사/이동철(음악 해설가)

이동철의 클래식 오디세이 '오페라 라보엠!'

10월 15일(수) 강사/황지원(음악 평론가)

황지원의 오페라 살롱 '리하르트 바그너의 삶과 예술'

10월 22일(수) 강사/이동신(부산시향 부지휘자)

오페라의 역사2(시대별 오페라 정리)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게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 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SUN

전시

2014 부산비엔날레-대, 중전시실

9월 20일(토)-11월 22일(토)

전시시간: 10:00~18:00

부산비엔날레 사무국(503-6574)

5대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부산방문특별 공연 19:00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064-710-7642)

중

부산 플루트 유스앙상블 창단연주회

17:00 균일 5천원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010-5664-8866)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소

열린 기타마니아 초청

공민성 기타 독주회 18:00 무료

열린 기타마니아(010-7447-4528)

12대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16:00 무료

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010-3046-8466)

19대

제36회 부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포레 레퀴엠' 19:00 균일 1만원

부산가톨릭합창단 (010-5060-4744)

소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The Permanent Way:철로' 15:0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6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잘츠부르크 솔리스텐 오케스트라 17:00

9만원 · 7만원 · 5만원 · 3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중

양태순의 춤 18:00 2만원 · 1만원

양태순(010-9060-8623)

소

임재홍 바이올린 독주회 16:00

균일 4만원(학생 50%할인)

Are for you(010-4659-2098)

mon

6

중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제30회 정기공연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19:30

10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사)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20대

2014 부산대학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19:30 무료

부산대학교(510-1737)

중

부일성악콩쿠르 예선 13:00

부산일보사(461-4436~8)

27대

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19:30 무료/유나이티드문화재단(02-553-0377)

중

제38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노페스티벌-현대작곡가의 밤 19:30

균일 1만원/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890-1327, 010-4391-1106)

소

제1회 부산창작음악축제

'2014 부산작편곡음악제' 19:30

무료/부산음악협회 (634-1295)

TUE

7

부산심포닉밴드 특별연주회 오지여행가
도용복과 함께하는 세계로 떠나는 음악 여행

19:30 초대(초대권소지자 입장)

부산심포닉밴드(010-9966-9063)

중

제39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3만원

이태리음악연구회(010-6439-1875)

소

백설공주와 샤넬왕자 10:15, 11:20

1만원 · 5천원

키즈샘(070-8281-6593)

14대

2014 부산국제합창제 10주년 기념

전야 부산 대합창 20:00 2만원 · 1만원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중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제30회 정기공연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19:30

10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사)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21대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VI '팔리아치'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중

부일성악콩쿠르 예선 13:00

부산일보사(461-4436~8)

소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The Permanent Way:철로'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8대

제1회 부산창작음악축제

'2014 부산작편곡음악제' 19:30 무료

부산음악협회 (634-1295, 010-7550-9090)

중

제38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노페

스티벌-솔로와 듀오의 밤 19:30 균일 1만원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890-1327)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국제회의장

WED

THU

FRI

SAT

1 대 2014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19:30 부산예총(631-1377) 부산음악협회(634-1295) 중 동아대학교 피아노 교수 음악회 19:30 초대/동아대학교(010-2333-2544)	2 대 부산자활한마당 김준호, 손심심과 함께 하는 국악팔도마당 14:00 초대(초대권소지자에 한해 입장)/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852-0532) 중 제18회 한국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작곡가 임금수, 최영섭, 이수인, 김동환 가곡의 밤 19:30 균일 1만원 우리아트(010-5555-3825) 소 박재현 첫번째 타악독주회 '장단지악 (長短之樂)-춤과 씻김' 19:00 초대 박재현(010-8581-3291)	3 대 마리아수녀회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초대 (재)마리아수녀회(250-5408, 5200) 중 박지은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학생 할인 50%)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4 대 제20회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18:00 균일 1만원/멜로매니아(620-3834) 중 소프라노 양성희 귀국 독창회 19:30 균일 1만원/양성희(010-2584-4870) 소 토요일상설무대-이은혜 첫번째 민요발표회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8 대 제14회 한마음 경로대잔치 10:00 무료/부산광역시 노인복지협회(502-6661) 소 제3회 김경수 피리독주회 '本' 19:30 초대/김경수(010-5481-8612)	9 대 UKO 제34회 사람나눔 정기 연주회 피아니스트 구스타보 로메로 초청공연 19:30 균일 2만원/UKO(010-3863-3087) 중 김주리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0 대 테너 김지호 데뷔 10주년 스페셜 콘서트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010-2752-9923, 070-8265-0776) 중 부산 Bravo 아버지합창단 제2회 정기 연주회 19:30 초대/부산 Bravo 아버지 합창단(010-3954-0362) 소 악물오남용 예방 인형극 10:30, 11:30 (사)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851-1854)	11 대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10:00 무료/(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513-4306) 중 제9회 우리 시 우리 노래-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19:00 초대 한국창작가곡협회(010-5541-8576) 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15 중 (사)아지무스오페라단 제30회 정기공연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19:30 10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사)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16 중 명예회장 제갈삼 교수 구순 기념 제48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8524-7913) 소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The Permanent Way:철로'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17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피카로의 결혼'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명예회장 제갈삼 교수 구순 기념 제48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8524-7913) 소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The Permanent Way:철로'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18 대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9:00 10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브라운(02-2055-1556) 중 부일성악콩쿠르 예선 13:00 부산일보사(461-4436~8) 소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The Permanent Way:철로' 15:00,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2 대 제27회 부산합창제 19:30 무료(취학아동이상 입장)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중 김현정 플루트 독주회-크로스오버 향연 19:30 초대 내담프로덕션(010-3556-7308) 소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The Permanent Way:철로'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3 대 제27회 부산합창제 19:30 무료(취학아동이상 입장)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4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 시리즈 III '프랑스 오페라'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소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The Permanent Way:철로'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4 대 제27회 부산합창제 19:30 무료(취학아동이상 입장)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중 프리모 칸탄테 창단연주회 19:30 균일 1만원/프리모 칸탄테 (010-2567-3994)	25 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2회 정기연주회 '독도이야기' 17:00 균일 1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중 김문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29 대 라 메르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3만원 라 메르 오케스트라(627-5665) 중 부일성악콩쿠르 본선 13:00 부산일보사(461-4436~8) 소 제25회 대학무용제 19:30 무료 부산대학무용진흥회(517-0906)	30 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제32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대학교(510-1739) 소 이슬라의 춤 19:30 균일 1만원 이슬라 무용단(010-8521-0556)	31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4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심포니 V' 19:3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극단 새벽 창단 30주년 기념 발림(몸짓)극 '새야 매야' 20:00 균일 2만원/극단 새벽(245-5919) 소 김수진 작곡발표회 19:30 초대/김수진(010-4550-1299)	11/1 대 부산평화방송 평화성가제 18:00 무료/부산평화방송(600-8823) 중 극단 새벽 창단 30주년 기념 발림(몸짓)극 '새야 매야' 16:00 균일 2만원/극단 새벽(245-5919) 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반갑
습니다



지금은 문화가 곧 삶이 되는 시대
부산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이문섭

“

지난 9월 5일 제4대
부산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부산문화재단 이문섭 대표.
부산의 대표 문화예술 공공기관인
부산문화재단이
부산문화 예술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재단의 수장으로 어깨가 무겁다.

“문화는 우리의 일상 삶이며 나아가 복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문화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부산문화재단이 부산 문화예술지원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가을은 특히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합창제 등 굵직한 문화행사들이 열리는 시기라 이문섭 대표이사는 취임과 함께 부산전역의 문화 현장을 다니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은 2009년 1월 문화예술을 통해 부산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부산을 창의와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로 변화시킨다는 미션을 가지고 출발했다. 지난 5년간 부산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지원과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기초예술 진흥,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창작 기반 구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대외협력사업 등을 펼쳐왔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부산문화재단에 대한 관심, 역할 또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부산일보 문화부장, 주필 등을 역임하고 2008년 부산시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문섭 신임 대표이사는 언론인으로 그동안 부산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 2010년부터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시민이 즐기고 누리는 부산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행사 최일선에서 땀흘려왔다. 집행위원장 재임시 지역 문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된 이문섭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고향 부산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각오로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도전했다.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기간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팔을 걷어 올린 이문섭 대표이사는 부산과 부산문화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열정을 부산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쏟아낼 계획이다.

이문섭 대표이사는 취임과 함께 앞으로 부산문화예술계의 화합과 교류에 기여하는 재단, 문화예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단,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을 만든다는 각오로 재단 현안사업, 업무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2013년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사업-도시공공예술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노리단의 '에코 DIY 프로젝트 in 사상'의 퍼레이드

“부산시민, 부산예술인들을 위해 부산문화재단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직 부산문화재단을 잘 모릅니다. 부산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알리고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문섭 대표이사는 무엇보다 부산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따로 노는 재단이 아니라 항상 예술인과 접촉하고 소통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재단이 되기 위해 부산문화재단 전 직원들과 함께 땀 흘려나갈 계획이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그는 소통을 강조했다. 부산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 시민, 직원 등이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고민해나간다면 부산 문화의 중흥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그는 힘들 때 마다 봉사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부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가 움직이는 문화재단이 아니라, 전 직원의 차별화된 역할분담으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이문섭 대표이사. 그 스스로 편견을 없애고 순수성, 진정성을 가지고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 이문섭 대표이사와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이 기다려진다.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글
도진미
미국 통신원
바이올리니스트

죄와 할리를 주는

메사닉 주이시
'Lev shelo' 밴드



Southern California는 다른 문화들이 모인 다문화적인 도시로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어 좋다. (사진은 southern-california 다양한 모습)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California Orange County의 얼바인(Irvine)이란 곳이다. 이곳은 LA에서 대략 40분 걸리는 곳으로 세계에서 날씨가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이민자들이 열망하는 교육의 도시이기도 하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Southern California는 다른 문화들이 모인 다문화적인 도시로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어 좋다. 특히 라구나 비치(Laguna Beach) 같은 경우는 예술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으로 매 여름마다 'Pageant of the Masters'를 비롯하여 수많은 예술 그림 축제들이 열린다.

또한 이곳은 디즈니랜드, 씨월드, 유니버설스튜디오, 레고랜드, 샌디에고 주를 포함해 여러 다양한 관광지의 천국이기도 하다. 가까운 LA에는 세계영화를 이끌어가는 할리우드가 있고, 5시간 거리에 있는 라스베가스에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이너와 최고의 요리사들이 모인 곳이다. 이 곳은 특히 단순히 카지노의 도시를 넘어서 모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타운이다. 인도, 베트남,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독일 등 각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려 공연을 하며 많은 경험을 해왔지만 이곳의 생활은 언제나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생활하면서 활기에 넘치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의 다양한 문화를 체득하고 있다. 이 곳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메사닉 주이시(Messianic Jewish: Jewish christian)와 함께하고 있는데 주이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메사닉 주이시에는 'Lev shelo'라는 이름을 가진 밴드가 있는데 지난 4년간 이들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와 타지역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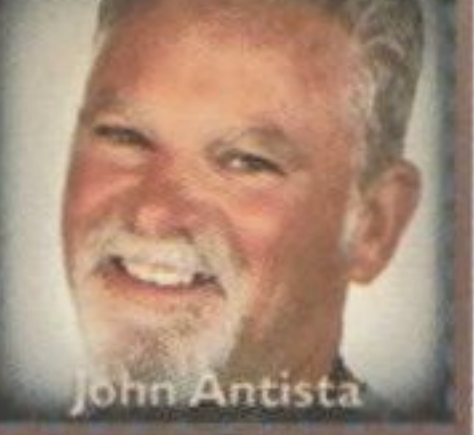
이 그룹은 내가 참여하기 전부터 1집을 내고 꾸준하게 선교 활동을 해왔다. 매년 여름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인 뉴포트 비치에서 연주를 해왔고, 그 외에도 주이시 행사나 교회, 특히 시나각(Synagogue)에서 많은 연주를 해왔다. 처음엔 주이시 세계 안에서 동양인이 한 명이 끼여 있는 것이 어색하고 조금은 불편해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고 있다.

이들과 함께 2집을 함께 내면서 공연이 있을 때 마다 내가 없으면 안될 정도로 나의 역할, 나의 자리도 커진 듯 해 연주자로서 많은 보람을 느낄 때도 있다. 한 시간 이상 공연할 때는 항상 사라토미의 솔로를 만들어주셔서 팬들도 많이 생겼고, 지역에서 인지도 또한 높아졌다.

이 주이시 밴드와 함께 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면 참으로 드라마 같다. 어느 여름 California Newport Beach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이 밴드의 한 멤버를 알게 되었고 그에게 내 소개를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밴드에 바이올린 주자가 필요한데 혹시 함께 하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흔쾌히 "Of course"라고 대답하고 'Lev shelo' 일원이 되어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그 나라 음악을 배우고 연습하고 익히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



"Do not tremble; do not be afraid. Did I not proclaim my purposes for you long ago? You are my witnesses—is there any other God? No! There is no other Rock—not one!" Isaiah 44:8

 Rachel Keller	Lord Of My Heart Proclamation Ne'eman Yeshua We Believe In You Ana Adonai Abba Hashivenu Elecha If I Flee On Morning Wings Lo Lanu Bring Me Home We Will Dance Shalom You Are Good 2013 All Rights Reserved www.LevShelo.com	 Michaela Bell
 Steven Keller		 Manny Matamoros
 Rebekkah Keller		 Saratomi
 Bonnie Antista		 John Antista



2집 음반을 출판한 Lev shelo밴드는 미국내 연주외 해외공연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Lev shelo’ 활동 초창기 히브리어와 영어로 함께 부르는 노래가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 멜로디와 그 리듬이 귀에 들어왔고 시간가는 줄 모르게 그 음악에 빠져들게 되었다.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노래는 히브리어로만 되어있어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았었지만, 그때 당시 나에겐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기에 아마도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과 함께 음악 활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도 치유가 많이 되고 힐링을 받게 되었다. 주이시 음악에 있어서 바이올린은 제일 중요하고도 리드하는 악기이다. 주이시의 독특한 리듬과 테크닉을 습득하는데 있어 나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다. 옛날 주이시의 화음과 리듬이 최신 컨템퍼리한 음악으로 재해석되어 엄청난 열정과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Lev shelo’는 최근 뮤직비디오 ‘Hasivenu Elacha’를 찍

으며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독일 순회를 마쳤으며, 오는 10월에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이스라엘 투어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꾸준히 사라토미인 나와 함께 한다.

내가 좋아하는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언젠가는 꼭 한국에서도 이 메사닉 주이시 ‘Lev shelo’ 밴드와 함께 하는 순간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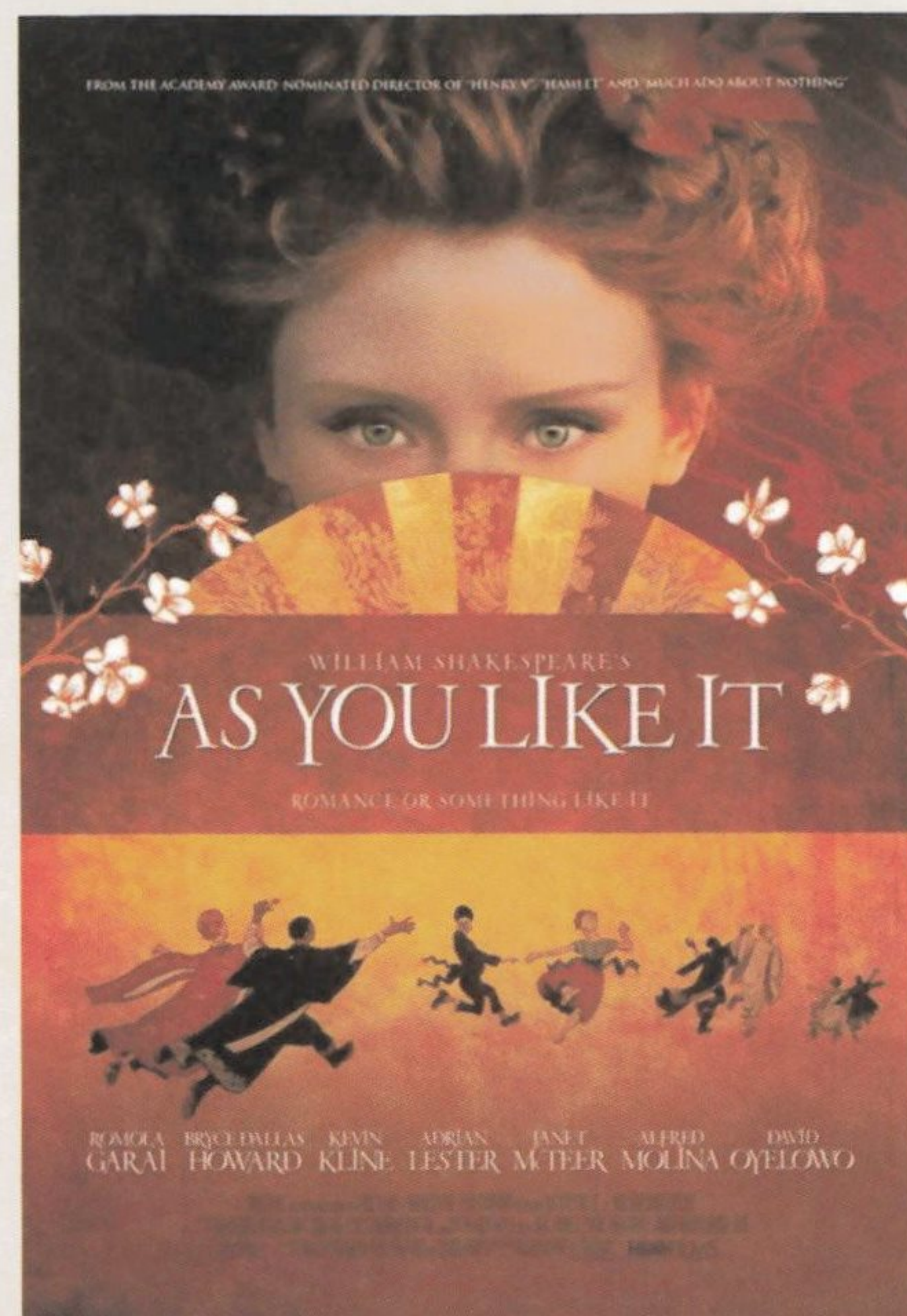
셰익스피어 : 희극의 세계

“

인생을 고해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인생 향로에 비극적인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은 죽음이라는 비극을 전제로 하지만, 영생에 대한 종교적 소망을 차치하고라도, 삶 자체의 즐거움이 있기에 생존본능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인생은 비극과 희극이 공존하는 무대이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이런 양면성을 있는 그대로 통합적으로 조명한 작가이다. 그는 비극작가도 희극작가도 아닌 이를테면 희비극의 극작가이다. 이는 그가 단지 장르상으로 비극과 희극을 썼다는 사실을 넘어서 고전적인 전통을 깨고 비극에도 희극적인 요소를 담고 희극에도 비극적인 요소를 담아내고 있다는 뜻이다. 희극 즉 코미디라고 하면 관중들을 웃기는 장르라고 생각하기 쉽다. 적어도 비극처럼 의미심장한 깨달음을 주기보다는 가벼운 웃음과 재미를 느끼게 하는 극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단순한 익살이나 풍자적인 쓴 웃음을 넘어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행복과 희망의 웃음을 선사하는 희극이다. 중세에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학작품을 희극, 즉 코미디라고 불렀는데, 단테의 <신곡>(La Divina Comedia)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죽음 후의 영적인 구원을 다루는 높은 차원의 코미디인 것이다. 셰익스피어 희극은 그런 종교극과 다르고 다양한 웃음거리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그런 높은 차원의 희극과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한다.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다양한 웃음거리를 제공하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원인을 제거하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주제를 다룬다. 즉, 사회 전체가 행복한 대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실리적인 측면과 부조리성을 강조하는 현대의 부조리극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의 희극은 그 결말이 주로 남녀 등장인물들의 결혼으로 끝나는데 결혼은 최고의 화합을 상징하는 것이다. 비극이나 사극에 비하면 가벼운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전체 분위기도 가볍게 즐기는 분위기이지만 그 메시지는 사회의 이상적인 대통합이다. 셰익스피어의 중기 문제극이나 후기 로맨스는 낭만희극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분위기가 좀 더 무거워지거나 환상적으로 바뀐다. 인간과 세계의 희비극적 양면성에 더 침착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의 희극은 주로 낭만희극을 가리키며, 그의 작품활동 초기에 쓰인 희극작품들을 말한다.

보통 그의 5대 희극은 <말괄량이 길들이기>(Taming of the Shrew),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한 여름밤의 꿈>(A Midsummer



2006년 케니스 브래너그 감독의 영화 <뜻대로 하세요>

Night's Dream), <십이야>(Twelfth Night),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를 가리키는데, 앞의 두 작품은 예외적이지만, 대체적으로 그의 낭만희극은 아름답고 적극적인 여성 주인공들이 등장하여 사랑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고 결국 행복한 결혼에 이르는 전개 양상을 띤다.

셰익스피어 희극에서 낭만적이라 함은 말 그대로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환상적인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첫눈에 사랑에 빠지거나 변장을 통해 구애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이별 후 다시 만나기도 하며, 갈등의 상대역인 악한 인물조차 기적적인 회심을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소극처럼 단순히 웃음만을 자아내거나 풍자극처럼 배타적이거나 풍습희극처럼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실을 초월하여 모두가 행복한 이상적인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며 그런 화합의 상징적인 과정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결과가 결혼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문제극이나 로맨스도 희극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1623년에 출판된 첫 번째 이절판 셰익스피어

희곡전집은 그의 희곡을 세 부류, 즉 희극, 사극, 비극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면 후기 로맨스의 특징을 보여주는 <심벌린>까지 포함하면 17개의 희극작품을 쓴 셈이다. 문제극이나 로맨스를 낭만희극과 구별하게 된 것은 19세기 말에 그런 명칭이 사용되면서부터였다. 낭만희극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극과 로맨스까지 포함하여 보더라도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희비극적인 특징과 대통합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 당대의 대표적인 풍자극 작가 벤 존슨(Ben Jonson)과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존슨의 대표적인 희극 <볼포니>(Vopone, or the Fox)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사기행각이 들통나서 망신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과도한 욕망으로 화를 자초한 주인공과 그 조력자의 몰락을 통해 반면교사의 도덕적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부도덕한 인간들을 완전히 사회에서 퇴출되고 제거하기 때문에 배타적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착한 주인공들과 부도덕한 인물들과의 갈등을 소개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용서와 화해에 이른다.

이처럼 셰익스피어는 배타적인 풍자성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등장인물들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욕망보다는 그들이 처한 희극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그의 인물들이 불운을 겪을 때조차 관객들은 그 인물들의 감정에 몰입되지 않고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희극적 상황을 결코 처음부터 제시하지 않는다. 그의 희극은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인 분위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극적인 갈등으로 시작된다. 그런 갈등은 주로 마땅히 화합해야 할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긴장된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이나 등장인물들이 어처구니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뜻하지 않게 이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생존을 위한 변장을 하며 인물들 간에 속이거나 속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그 갈등이 결코 희극의 경계선을 넘어서진 않는다. 죽음의 결말이 비극의 특징이라면, 희극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갈등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Shylock)은 마지막에 거의 모든 재산을 잃고 퇴장하지만 당대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는 역할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여 화해 무드에 묻혀버린다. 셰익스피어 희극의 초반 갈등은 다양한 웃음거리와 어우러져 관객들이 비극적 감정에 함몰되지 않는다. 주제가 용서와 화합이라고 하여 고차원적인 웃음만 자아내는 것도 아니다. 도리어 바보로 불리는 광대가 바른 소리를 하여 관객을 웃기기도 하고 가볍게 사회를 풍자하기도 한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암시하는 말장난(pun)을 빈번히 사용하기도 하고, 재치있는 익살이나 농담을 하기도 하며, 저속한 음담패설까지 웃음거리로 사용하기도 한다.

낭만희극의 주제인 화해와 용서의 힐링 과정이 낭만적인 장소인 숲이나 이국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주인공들이 갈등을 겪어온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런 낭만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인심이 각박한 도시나 궁정을 벗어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곳이 바로 숲속의 녹색 세계와 이국적인 낯선 곳이다. 극의 시작에 악한으로 등장했던 인물들은 이런 낭만적인 곳에서 선한 인간으로 거듭나고, 모든 등장인물들이 숲속의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화합의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한여름 밤의 꿈>에서 요정들

이 등장하는 숲의 세계라든가, <뜻대로 하세요>에서 악한 인물들이 욕심을 버리고 화합하는 아든(Arden) 숲이 바로 이런 낭만희극의 배경이다.

낭만희극의 등장인물들은 낭만적인 장소에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방법으로 대내외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사랑을 완성하여 행복한 결혼에 이른다. 관객들은 등장인물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지막 축제의 분위기에 함께 젖어들게 된다. 웃음 자체를 위한 웃음을 목표로 하는 소극이나 현실을 풍자하고 배타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풍자극의 수준을 넘어서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경험한다. 악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풍자하여 우리 곁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낭만적인 숲속의 정화과정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런 정화과정이 셰익스피어 희극의 희극적인 카타르시스이다. 그의 희극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용서와 화해의 동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거대 담론이기도 하다.



지난 8월 극단 여행자에 의해 한국적 색채로 각색 공연된 <한여름 밤의 꿈>의 한 장면



1859년 다니엘 맥클리스가 그린 <심야>의 한 장면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외래교수



5x17, 대청동 협소주택

대청로, 부산의 원도심(原都心)이자 부산 중구의 중심에 위치한 주요 도로이다. 이웃에는 북병산(伏兵山)이 있고 중구청이 있으며, 과거에 미국 영사관과 문화원이 있었던 곳으로 부산 행정의 중심지이었다. 문화원은 '부산근대역사관'¹⁾으로 바뀌었고, 인근에는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40계단과 '40계단 문화관'²⁾이 있다.



조선시대 1678년부터 용두산을 중심으로 일본의 외교와 무역업무 역할을 하던 '초량 왜관'이 있었다. 동래부사나 부산 첨사가 일본 사신을 맞아 연회를 베풀던 곳인 '연향대청'(일명 연대청)이 있었다. '대청' 지명은 이에서 비롯되었다. '연향대청'은 현재의 남일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하며 '연대청' 앞에 유원이라는 액자가 붙어 있어서 일명 '유원관', '유원루'라고 불리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대청정(大廳町)'이라고 하였고, 광복 후 '대청동'이 되었다. 1982년에 '복병동(伏兵洞)'이 '대청동'에 포함되었고, '복병동' 지명은 '복병산'에 복병막(伏兵幕)이 있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이 시설은 왜관의 일본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조선이 병사를 잠복시켜 놓았던 곳이었다.

대청로는 근대 부산 발전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부산시청의 이전과 함께 인구는 감소하였고, 상업지로써의 활력 또한 예전같지 않다. 1,2층은 상업, 3층은 주거가 공존하던 근대의 공간 구조는 쇠락하였고, 주거지와 상업지가 분리되는 도시 공간 구조를 갖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원도심 재생 프로그램과 최근 대형 백화점의 개장으로 예전의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삶의 매개체로서의 공간

전면이 좁고(5m), 길이가 긴(17m) 새장형의 일제강점기 흔적을 보여주는 대지는 대청로를 면하며, 주변의 건물은 1980년대 이전의 모습을 상업적 치장으로 감추고 있다. 땅은 69.40㎡로 20평 남짓의 매우 협소한 크기이다. 건축주는 기존 2층 규모의 상업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건축가 윤재민³⁾(JMY 아키텍츠)을 찾게 되었지만, 건축가는 복합용도의 신축 프로그램을 제시하게 된다. 1층에 건축주의 주 수입원인 상업공간을, 2층에는 동네주민들의 사랑방인 커뮤니티공간을, 상층부 3층, 4층, 5층에는 주거 프로그램까지 도입하는 복합용도로 경제활동에서부터 주거, 도시 여가활동까지 공간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원도심에서의 삶을 버리고 신도시로 떠났던 60대 건축주 삶의 시간을 되돌리며, 상업과 주거가 분리되어 외곽 주거지로 빠졌던 주거의 삶은 도시로 확장되고, 다시 도시의 삶은 하나의 건물로 흡입되며 도시 삶의 매개체적 공간을 이루고 있다.

도시 주거의 수직적 모색

부산은 지형의 특성상 혹은 근대적 도시 공간 구조로 인하여 많은 골목과 계단을 갖고 있다. 이는 삶의 연결 고리이며 소통의 공간이었다. 대지에서 파생되며 단절되기도, 또는 이어지기도 하는 좁은 수직 동선인 계단은 이웃과 소통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는 골목을 형성시키며 1층에서부터 5층의 옥상정원까지 연결하고 있다. 1층의 상업공간은 조그마한 마당(주차장)을 매개로 진입하며 마치 도심의 좁은 골목과 같은 계단을 오르면 주민의 사랑방인 커뮤니티 공간을 맞이한다. 사교적 모임이 있기도, 종교적 모임이 있기도 하며 골목속의 평상과 같은 존재이다. 다시 3층으로 흐르는 계단은 외부로 면하며 도시 이면의 삶이 흔적이 빛바랜 사진과 같이 마주한다. 3층으로부터 시작되는 주거 공간은 현관을 면하여 거실이, 그리고 침실이 대청로를 향하는 발코니와 함께 공간을 이루고 있다. 외부로 흐르다 실내로 들어온 계단은 4층으로 이어지며 주방과 거실을 만들며, 5층으로 트인 거실은 자칫 협소해보일수 있는 공간에 시각적 개방감을 안겨다 준다. 5층은 또 하나의 침실을 두고 있으며, 자칫 잃을 수 있는 외부공간을 옥상정원으로 이면에 배치하여 도시속 시간의 기억을 되돌리고 있다. 이러한 주거 공간 구성은 협소한 대지로 인한 수평적 확장의 제약으로 수직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거실을 수직적 중간층에 뚫으로써 공적 공



간으로써의 중심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동선 단축을 가져다주며, 두 공간의 합리적 공간 분절로 사적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준다.



도심 주거 복합 건축물으로써 가능성

건축과 도시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와 흡사하여 시간과 더불어 공간은 삶의 켜를 더한다. 대청동을 비롯한 원도심은 부산의 오래된 시간과 공간을 응축하고 있고, 그 응축 속에는 부산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연관이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다. 잃어버린 기억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 건축주와 건축가는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대규모 도시 개발과 재개발 사업의 황량함과 삶의 켜를 채 형성하지 못한 신도시로부터 다시 건축주는 도심으로 돌아 왔다. 건축가는 새로운 도심 주거 복합 건축물으로써 가능성을, 나아가 새로운 도시경관 형성에 대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다.

1) 부산근대역사관

1929년 지어진 이 건물은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사용되었고, 1949년부터는 미국 해외공보처 부산문화원이 되었다. 이후 부산시민들의 끊임없는 반환 요구로 미문화원이 철수하고, 1999년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된 것을 그 해 6월 부산시가 인수하였다. 필자의 리노베이션 설계로 2003년 개관하였다.

2) 40계단 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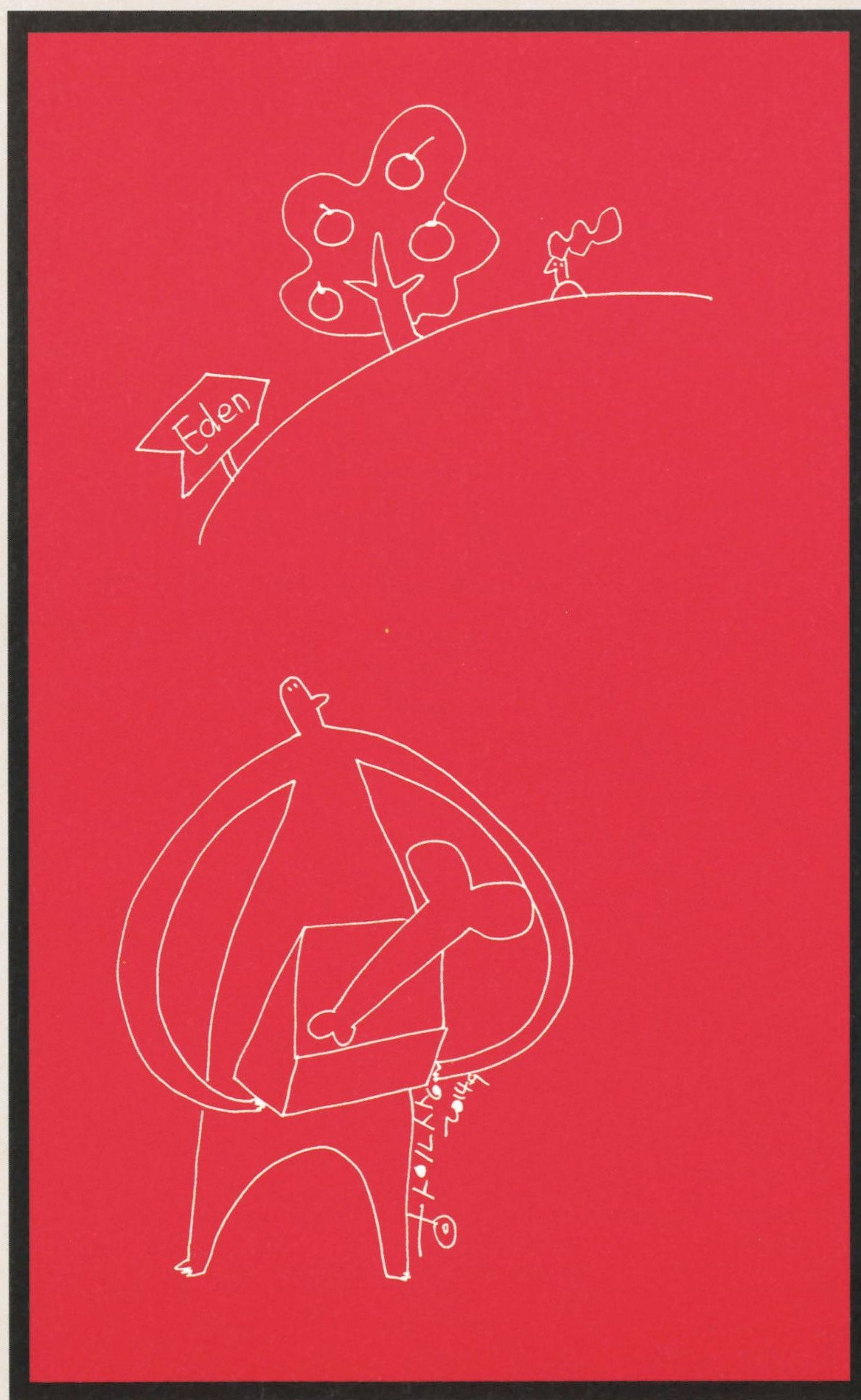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역사와 애환이 담겨있는 40계단을 테마로 건립된 복합 역사 문화공간이다. 필자의 설계로 2003년에 개관하였고 1,2층은 동광동 주민자치센터, 3,4층은 문화공간인 중구 문화의집, 5층은 1950년대 40계단을 중심으로 피난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과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는 상설 전시실로, 6층은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3) 윤재민

1998년 파리 에자트 건축대학교에서 무대미술과 실내건축학과 석사학위를, 2006년 파리 라빌레트 국립 건축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2008년 프랑스국가공인건축사를 취득했다. 1997년 파리 알랭이야르 실내건축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장미셀 코레이아 색채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1999년 필립 장 건축사사무소 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JMY아키텍츠 대표이며, 2008년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 3세대 공동주택, 2009년 사천시 장사시설 등의 작업이 있다.

이브의 선물

고마움을 너무도 모르고 살고 있다.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눈 부모형제 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사는
정글 같은 사회가 우리 곁을 휘감고 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부디 사랑 한점으로 따뜻해 지기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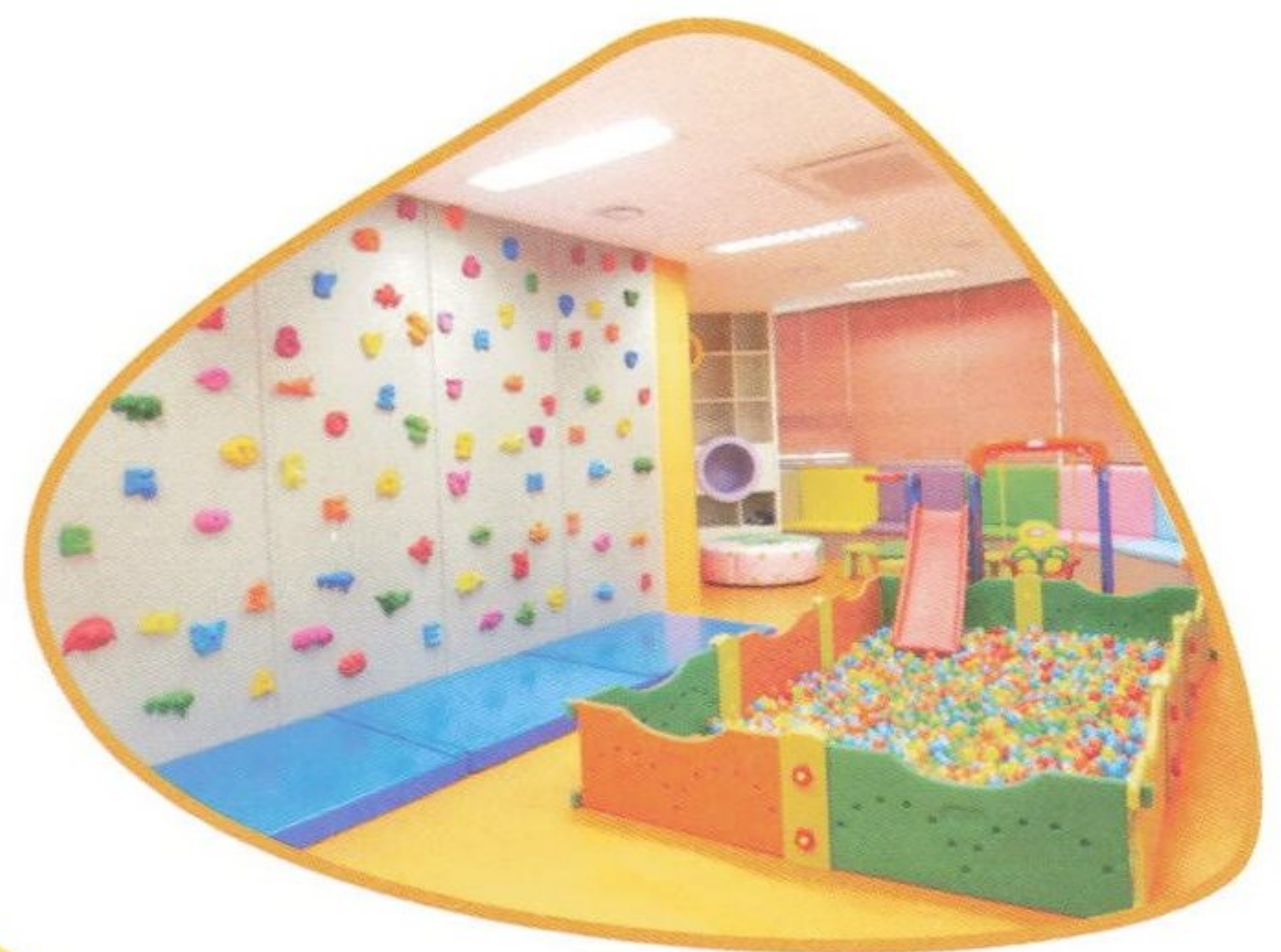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공동체 문화 조성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문학 도시를 꿈꾸는 해운대구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오는 11월 9일 개관 1주년을 맞는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가 바로 그곳
'모두를 위해 배우고, 모두를 위해 나누고, 모두를 위해 행동하는'
민간 중심의 지역공동체기구인 (사)세계시민사회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는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는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학습과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는
'사회공동체 문화'를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역주민을 위한 통합민원창구, 취업정보센터, 일자리복지사업단 외에도 대강당, 다목적 강당, 세미나실, 인문학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웨딩홀로도 활용되고 있는 240석의 대강당과 초청강연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칠 수 있는 다목적 강당, 동아리 활동이나 댄스, 요가 등 강습 공간으로 활용되는 다목적실은 주민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2층 인문학도서관에는 인문학 도서 위주의 장서 6천여권이 비치되어 이용객들에게 대출해주고 있으며, 좌석 150석을 보유한 열람실은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센터 3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생활공간으로 다목적 강당, 다목적실 외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헬스장과 조리실습실, 세미나실, 컴퓨터교육실이 들어서 있다. 조리실습실에서는 매회 다양한 요리강좌와 조리 관련 자격취득 프로그램이, 컴퓨터교육실에서는 해운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컴퓨터 교육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북카페와 어린이쉼터를 갖추고 있어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는 다양하면서도 알찬 강좌로 명성이 자자하다. 현재 문화복합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좌는 크게 문화예술 진흥 프로그램과 세계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예술 씨앗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직접 배울 수 있다. 이밖에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인사를 초청, 분야별 교육과 체험으로 이뤄지는 명인열전,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는 음식문화교실, 명화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명화산책 등을

통해 지역민과 만나고 있다. 하반기 예술씨앗학교에서는 노래의 근원을 찾아서-가곡교실, 내 삶의 글쓰기-수필교실, 한국의 소리-가야금교실, 마음속의 드라마-연극교실, 해운대 중심에서 꿈을 노래하다-꼬꼬마합창단 등이 상반기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토요문화교실 10월 프로그램은 '소통과 감성의 예술, 캘리그래피'로, 10월 한달간 4차례 교육이 펼쳐진다.

세계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은 '자신높여가기, 지역바라보기, 국가다시보기, 세계도전하기' 등 네가지 테마 아래 자신의 꿈과 가치를 발전시키고자 마련된 세계시민대학과 동서양의 인문고전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동서양의 인문산책', 강의와 역사유적지 탐방을 연계한 체험형 인문학 강좌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지혜로운 삶의 교과서 명심보감을 배우는 '명심보감학교', 주도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청소년의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10월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의 주인공은 바로 충무공 이순신으로 10월 20일 강좌에 이어 22일에는 통영으로 역사탐방을 떠난다.

또, 제3세계와 국내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천 원의 행복 짓기 사업'을 통해서 국내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전개하면서 지난해 방글라데시에 건립된 '해운대세계시민학교' 지원사업과 필리핀 쓰레기 매립지역인 나보파스에 탁아소와 급식소를 건립하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의_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784-6871~5, hudcc.haeundae.go.kr



하모니카 오케스트라 들어보셨나요?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

“

학창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연주해 보았을 하모니카. 동요나 가요에 등장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악기지만 음악적으로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하모니카가 최근 동호회가 하나둘 결성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결성된 부산시민하모니카 오케스트라는 부산에서는 최초로 결성된 하모니카 오케스트라로, 결성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를 창설한 성악가 박기국 씨가 창단한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는 현재 오디션을 거친 3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단원 모두 50세 이상 시니어 세대들로, 매주 월요일 부산진구청 강당에서 연습을 겸한 모임을 갖고 있다.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 창단에는 현재 음악감독으로 있는 박기국 씨의 열정이 컸다. 하모니카를 즐겨 부르시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하모니카와 친숙했던 박기국 씨는 성악을 전공하는 와중에도 하모니카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아예 스페인 유학시절에는 성악가로서 전문연주자과정을 밟는 동시에 하모니카 교육과정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면서 하모니카 전문연주자로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 시니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 결성 역시 박기국 씨가 10여 년 전부터 구상해오던 계획이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시니어들의 문화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는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연주가 가능한 만큼 시니어들에게는 최적의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귀국 후 박기국 씨는 우선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를 창설해 하모니카 인구의 저변확대에 나섰다. 하모니카 강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많은 하모니카 연주자들을



배출했다. 시민오케스트라 단원들 대부분도 사제시간으로 먼저 인연을 맺었다. 현재 오케스트라 연습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부산진구청 역시 3년전 부터 박기국 씨가 강좌를 진행해 오고 있는 곳이다.

창단 후 그가 이끄는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하모니카양상블 라온제나 연주회 등을 통해 무대에 서온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는 9월 24일 금정수요음악회 ‘한국국제하모니카협회 정기연주회’에 이어 12월 27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갖는다. 창단연주회에서 송년과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편안한 무대로 관객과 만날 예정인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는 내년부터는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하모니카의 매력을 알려나가고 싶다. 또 내년에 열리는 2015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 콩쿠르 오케스트라 파트에도 참가해 연주단체로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겠다는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는 부산 최초의 하모니카오케스트라라는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 더 많은 단원을 충원, 풍성한 연주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매주 월요일 거제도에서 부산을 찾고 있는 열성단원 박진옥 씨. 2007년 거제도의 한 문화센터에서 하모니카와 인연을 맺은 그는 하모니카 선율에 빠져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지도자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지도강사였던 박기국 씨와의 인연으로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박진옥 씨는 2011년부터 하모니카양상블 라온제나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대구에서 (사)한국리더스대구하모

니카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던 시절, 처음 접했던 하모니카오케스트라의 풍부한 선율에 반했다는 그는 곡 하나를 서로 완성해나가는 기쁨에 매주 부산으로 오는 먼 길이 힘들지 않다.

50대 이상 단원들로 이뤄진 오케스트라에서 40대 나이로 특채로 뽑힌 막내 박규나 씨는 현재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으면서 박진옥 씨와 하모니카 지도를 맡고 있다. 피아노학원을 운영해오면서 하모니카 외에도 오카리나, 가야금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우기도한 박규나 씨는 하모니카 선율에 반해 본격적인 하모니카 연주자의 길로 나서 현재 하모니카양상블 라온제나 단원으로도 활동중이다.

“창단 당시만 하더라도 단원들간에 실력 편차가 심해 우려했지만 하모니카를 배우는 자세에서만큼은 누구라 할 것이 없이 열정적이라 매번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은 그 열정에 보답이라도 하듯 실력까지 나아져 뿌듯합니다.”

3년 전 부산진구청에서 열린 하모니카 강좌에서 처음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한 이달희 씨는 올해 11월 강사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다. 아픈 입에 참기름을 발라가며 연습에 몰두할 정도로 하모니카에 푹 빠져있다는 그는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하모니카가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이달희 씨에게 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는 제2의 인생을 꿈꾸게 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문의_부산시민하모니카오케스트라 박기국 010-9944-8825



영덕 블루로드에서 배우는 신재생에너지

지난 8월 테마여행 100회를 맞아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에코투어’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이 8월 창녕에 이어 9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장교육장으로 유명한 영덕으로 두 번째 에코투어를 떠났다.

테마여행을 시작하고 처음 찾는 영덕이라 여행 참가를 희망하는 정기회원들의 신청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지난 9월 12일, 여행당첨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모처럼 일상을 벗어나 자연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에 회원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유쾌하다. 특히 이번 영덕여행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 씨가 동행해 회원들을 더욱 설레게 했다. 장장 세시간을 달려 블루로드 2코스인 ‘푸른 대계의 길’의 관문인 영덕 축산항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바다해설사가 회원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영덕 블루로드는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688Km 해파랑길의 일부로, 영덕 대계공원을 출발해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에 이르는 도보여행을 위해 조성된 약 64.6km의 해안길이다. 회원들이 직접 걸어볼 B코스 ‘푸른 대계의 길’ 외에도 A코스 ‘빛과 바람의 길’, C코스 ‘목은 사색의 길’, D코스 ‘쪽빛 파도의 길’ 등 4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블루로드는 푸른 동해의 아름다운 풍광과 거대한 풍력발전단지, 대계원조마을, 축산항, 괴시리마을 등 풍부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특히 환경의 중요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친환경 생태여행으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날 블루로드 트레킹은 축산항에서 죽도산 전망대를 돌아 블루로드 다리를 거쳐 대게원조마을인 차유어촌마을까지 이어지는 코스. 축산항을 둘러싸고 있는 죽도산은 해발 80m, 12만제곱 여 미터 면적의 자그마한 산이지만 아름다운 해안선이 빚어내는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하다. 산 전체에 대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지만 대나무 군락 외에도 희귀식물, 야생초군락지가 조성되어 있어 자연생태보호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1935년에 세워진 등대인 죽도산 전망대를 둘러본 후 본격적인 해안길 트레킹에 나섰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물길 위를 건너는 100여m 현수교를 지나 해안길을 가로지르자 '바다와 하늘이 함께 걷는 환상의 바닷길'이 시작된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40여분을 걷자 대게원조마을인 차유어촌마을이 눈앞에 나타난다. 지난 2008년 해양수산부로부터 아름다운 어촌마을로 선정된 차유어촌마을은 고려 충목왕 시절 초대 영해부사가 마을을 순시하던 중 말을 타고 재를 넘으면서 마을의 형국이 우마차 같이 생겼다 하여 우마차의 '차(車)', 넘을 '유(踰)'를 따서 '차유'라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가장 맛있는 영덕 대게가 잡히는 영덕대게 원조마을로, 매년 대게철인 12월부터 5월까지의 진짜 영덕대게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오랜만의 트레킹에 땀을 흘린 회원가족들은 마을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마을주민들이 준비해놓은 '맨손고기잡기'에 도전했다. 커다란 풀장을 가득 채운 고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신이 난다.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환호성에 어촌마을이 떠들썩 하다. 부녀회에서 잡은 고기로 장만한 싱싱한 회무침에 회원들의 젓가락질이 분주해진다.



10월 당첨자

기존 회원

김은경(남구 황령대로)
김재호(수영구 수영로)
김희영(동래구 명륜로)
서영희(남구 분포로)
오지숙(북구 양달로)
이경재(해운대구 양운로)
이용희(금정구 청룡예전로)
이호숙(수영구 수영로)
전지영(해운대구 해운대로)
정필문(해운대구 양운로)

신규 가입

권호경(동래구 명륜로)
박현주(동래구 사직로)
송민교(남구 유엔평화로)
석순희(남구 석포로)
유 경(수영구 광안해변로)
이명선(영도구 새롬길)
조영재(해운대구 대천로)
조한식(수영구 광남로)
최은영(부산진구 백양관문로)
한명희(금정구 개좌로)

차유어촌마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이번 테마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영덕풍력발전단지로 자리를 옮겼다. 24기의 거대한 풍차돌이(풍력발전기)가 바람을 맞고 서 있는 영덕풍력발전단지는 연간 96,680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민간 풍력발전단지로, 이 발전 용량으로 한 해 영덕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인근 해맞이공원과 더불어 이국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 곳에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과 해맞이 캠핑장, 항공기전시장,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바람정원, 하늘정원, 바람개비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조성되어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풍력, 태양열, 수소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소개하는 현장 교육장으로, 지난 2009년 9월 개관 이래 현재까지 연간 약 1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원리와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영상과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학생들의 단체관람이 많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은 후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모두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부산시립극단 단원인 정행심 씨의 무대를 관람하기 위해 전시관 옆 야외공연장에 모였다. 이날 무대에서 정행심 씨는 지난 2월 부산시립극단 49회 정기공연으로 선보였던 연극 '언쟁이 곡마단' 한 장면을 시연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야외공연을 마지막으로 영덕에서의 여행일정을 모두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버스에 올랐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던 영덕 여행, 친환경 생태여행으로 오랫동안 회원들의 가슴에 기억될 것이다.

후원_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에코투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정양늪

11월 14일(금)

합천 정양늪 생명길 생태숲

합천군 대양면에 위치한 정양늪은 항강 지류 아천천의 배후습지로 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무리지어 자라는 줄, 갈대, 마름, 노랑어리연, 검정말과 각시붕어 참물개, 금개구리,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와 말뚝가리 등이 깃들여 있는 아늑한 습지를 따라 걷노라면, 습지의 정화 작용에 마음 속 티끌마저 씻겨져 나가는 기분이 든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정양늪 도착, 생명길 탐방
- 12:00 중식
- 13:00 부산시립무용단과의 만남
- 14:00 합천박물관, 옥천고분군 관람
- 16:00 부산으로 출발



을숙도

12월 12일(금)

부산지역 자연생태교육 철새의 쉼터 을숙도

부산의 자연 생태 환경,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2014 에코투어 마지막 프로그램.

우리가 아끼고 가꾸어야 할 귀중한 자연 유산인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 을숙도와 아미산 전망대, 환경자원공원사업소를 가깝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탐방, 을숙도습지 탐방
- 12:00 중식
- 13:00 낙동강 속으로-철새탐조선 승선, 철새 탐조
- 15:00 부산광역시 환경자원공원사업소(생곡매립장)-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 17:00 부산시립예술단과 함께, 아미산 전망대-낙동강하구의 지형, 지질 교육, 낙조 감상

2014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 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마감일자 | 10월 16일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부산시립극단 '철로' 관객몰이 나섰다

5월 전석매진 바람 이어
김지용 연출 전격 투입
오레스테이아 뒤를 잇나
부산시민의 바람 담아내

부산시립극단의 관객몰이 열풍이 뜨겁다. 5월 '한네의 일기' 공연을 시작으로 전석매진의 신화에 다시 도전하는 부산시립극단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총8회에 걸쳐 영국작가 데이비트 헤어의 'The Permanent Way'를 현실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여 무대에 올린다. 2012년 고전중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아이스킬로스'의 오레스테이아를 연출하여 전석매진의 신화를 쓴 바 있는 김지용 연출은 철도민영화로 인해 나타난 폐해를 소재로 한 영국 작품 'The Permanent Way'를 이번 작품으로 선정했다. 실제 영국에서 발생했던 열차사고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민영화로 인한 민간기업의 예산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배경으로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 사고를 겪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한창 철도와 의료 민영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이 시대에 무언가 곱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연출자의 의도이다.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연극이라 다소 생소한 느낌은 있었지만 보는 내내 배우와 관객의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이 작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사망자의 가족과 생존자, 언론과 정부 책임자 등 모두가 자기들의 이야기만을 늘어놓을 뿐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



는 것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직시할 수 있는 '때의 눈'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 사고가 애당초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의 실책인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철도를 운영한 회사의 과실인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다그치지 못한 국민의 무지의 소산인지, 사고 이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경찰과 책임당국의 무능함인지 이 속에서 곱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6개월 전에 발생한 '세월호' 사태와 다르지 않다. 노후된 선박의 운항을 허가하고, 부당하게 적재량을 속여 과적하고 평형수를 줄이고, 곳은 날씨 속에서 억지로 출항하고, 또 선장의 부재로 인해 아르바이트 선장과 경험없는 항해사를 책임자로 승

선시키고,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죽은 사람들을 욕보이던 이 수많은 일들이 하나의 사고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하며 탓하고, 전국민의 이목을 그 곳으로 돌려놓는 정치인과 언론들 자, 이제부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에게 놓여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상상해 보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이야기이다. 잊지말자, 기억하자.

배정환 홍보담당 hwanycap@naver.com

정치적 문제와 사회의 구조적 모순 개인과 사회의 문제까지 명료하게 구성



'철로(원제: The Permanent Way)'는 데이비드 헤어 경(Sir, David Hare)의 2003년 작품이다. 2000년 10월 18일 영국 잉글랜드 동남부, Hertfordshire 주(州) 중부의 소도시 해트필드(Hatfield)에서 일어난 철도사고의 내용으로, 영국인들이 자신과 직접 연관이 없으면 방관하고 도외시해 버리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축적된 비이성적인 풍토를 통렬하게 지적하고 힐난(詰難)한 작품이다. 비용절감과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 사고와, 그에 대

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처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한 채 대책아닌 대책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책임자들 철도사고에 연관된 다양한 인물들의 서로 다른 시선이 담긴 인터뷰와 대화로만 이어지는 이 작품은 복잡하고 거대해 보이는 정치적 문제와 사회 구조적 문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간단명료하면서도 세련되게 구성하여 찬사와 주목을 받았다.

'철로'의 작가 데이비트 헤어는



극작가이며 시나리오 작가이자 연출가, 영화감독인 그는 현재 영국의 주요 극작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시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였고, 국내에서는 '철로', '유다의 키스', '헤이미'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98년에 기사작위를 받았다. 철로(2004)를 비롯하여 'The Power of Yes'(2009) 등 수십 편의 희곡과 'Damage'(2008), 'The Hours'(2002), 'My Zinc Bed'(2008), 'Murder in Samarkand'(2008) 등 수많은 영화각본 등의 작품을 남겼고,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중이다.

연출가 김지용



2009년 이오네스코 페스티벌 중 '지금 여기...'로 처음 부산시립극단과 인연을 맺은 연출가이자 극작가인 김지용은 부산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여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에서 극작을 전공하였다. <W.C 부산진역>으로 연출로 데뷔하였고, 부산일보와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이 당선되어 작가로도 등단하였다.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소속되어 있다가 지금은 '프로젝트팀 이틀'의 대표로 있다. 부산시립극단과 포항시립극단에서 수차례 객원연출로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최근 창작오페라 <해운대-불멸의 사랑> 대본집필과 연출을 하였다. 현재 동의대학교 ICT 공과대학 영화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2014. 10.16(목)~23(목)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평일 19:30 / 토요일 15:00 19:30 / 일요일 15:00

• 관람료 : 균일 10,000원 청소년 5,000원(전화예매)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청소년 단체 특별할인(전화문의)

부산시립극단 : 607-3151 / 카카오톡:hwanycap / 문화회관 홍보부 : 607-3100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극단

예매

부산문화회관

리켓링크

인터파크

AUCTION 티켓

BS 부산은행 전지점

** 사랑티켓을 이용하시면 3,000원에 관람이 가능합니다.(www.sati.or.kr)

Cast 이현주, 이혁우, 이도희, 정행심, 김은희, 염지선, 황창기, 김은옥, 서보기, 오희경, 이재찬, 임신호, 김성열, 정인옥, 엄지영, 채민수, 김제형, 김민정, 이연진, 정은쁨
Staff 예술감독 문석봉 연출 김지용 드라마투르그 강태욱 안무 홍충민 음악감독 전현미 조명감독 이현무 무대디자인 황지선 의상디자인 김윤정 분장디자인 이지원 소품코디 이영준 영상코디 이현우 무대감독 정순지 기획 김향숙 홍보 배정환

Culture Lif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탈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34 프리뷰
- 40 리뷰
- 42 프로그램 가이드
- 62 새로 나온 음반
- 63 새로 나온 책



2014 부산합창제, 2014 부산국제합창제 합창의 계절 가을 대합창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부산세계불꽃축제 부산비엔날레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펼쳐지는 10월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특히 많은 계절이다. 10월의 부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최고의 장르는 즐거운 '합창'무대.

올해로 27회를 맞는 부산합창제와 아시아 최고의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가 10월 부산전역에서 펼쳐진다. '나' 개인보다는 단원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내는 '합창'은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예술장르 중 하나이다.

1985년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합창단들에게 발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출발한 부산합창제는 합창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었던 최고의 합창축제이다. 합창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2012년 18개팀, 2013년 26개 팀이 참가한데 이어 올해는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한 총 31개 팀이 참가,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합창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전해준다. 부산합창제에 참가하는 부산 지역 합창단을 통해 다양한 합창곡들이 발굴, 보급하면서 부산지역의 합창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2004년 APEC개최를 기념해 처음 개최된 부산국제합창제도 부산합창제가 다져온 부산 합창문화가 있어 가능했던 것. '아시아 최고의 합창제'로 성장한 부산국제합창제(집행위원장 변원탄)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소향씨어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부산국제합창제에는 아시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과 유럽에서는 체코와 폴란드, 스위스, 러시아, 그리고 멀리 남미에서 처음으로 찾는 콜롬비아를 포함한 총 11개국 50여 개팀 2,000여명이 합창축제와 경연에 참가

한다. 클래식 혼성, 동성, 민속음악, 아카펠라 앙상블 그리고 2012년부터 국제합창콩쿠르로 승격된 청소년 등 5개 부문에서 대상 \$10,000을 비롯 전체 약 8천여 만원의 상금을 놓고 합창 음악의 높은 기량을 펼치게 된다.

올해는 특히 부산국제합창제 10주년을 기념해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오충근) 등 약 400명의 연주자가 함께 베토벤의 코랄판타지와 합창교향곡을 노래하는 전야 대합창,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앙상블 탈리스 스콜라즈(The Tallis Scholars)가 함께하는 개막공연, 안산시립합창단과 국외 합창단들이 참가하는 갈라콘서트 등 공연 또한 풍성하다.

일 시 | 2014 부산합창제
10월 22일(수)~24일(금)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일 시 | 2014 부산국제합창제
10월 13일(월)~10월 18일(토)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영화의전당, 소향씨어터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한국국제합창조직위원회(622-0534)

Preview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The Permanent Way : 철로



제48회 정기공연 '언행이 곡마단' 한 장면

지난 5월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운 '안네의 일기'에 이어 부산시립극단이 제51회 정기공연 'The Permanent Way: 철로'로 부산연극애호가들과 새롭게 만난다.

'The Permanent Way: 철로'는 2009년 이오네스코 페스티벌 중 '지금 여기...'로 처음 부산시립극단과 인연을 맺은 연출가이자 극작가 김지용이 영국작가 데이빗 헤어의 'The Permanent Way'를 현실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2000년 10월 18일 영국 잉글랜드 동남부, Hertfordshire 주(州) 중부의 소도시 해트필드(Hatfield)에서 일어난 열차사고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민영화로 인한 민간기업의 예산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 사고를 겪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발표 당시 철도사고에 연관된 다양한 인물들의 서로 다른 시선이 담긴 인터뷰와 대화로만 이어지는 이 작품은 복잡하고 거대해 보이는 정치적 문제와 사회 구조적 문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간단명료하면서도 세련되게 구성하여 찬사와 주목을 받았다. 이 시대를 위해 함께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는 연출가의 의도가 잘 드러난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연극이라 관객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느낌은 있겠지만 보는 내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며 배우와 관객이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다.

데이빗 헤어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연출가, 영화감독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국 작가이다.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시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여온 데이빗 헤어는 국내에서는 '철로', '유다의 키스', '에이미'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W.C 부산진역〉 연출로 데뷔한 김지용은 부산일보와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희곡이 당선되어 작가로도 등단했다. 현재 동의대학교 ICT 공과대학 영화학과 교수로 재

직중인 김지용은 '프로젝트팀 이틀'의 대표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김지용은 최근 창작오페라 '해운대-불멸의 사랑' 대본 집필과 연출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사망자의 가족과 생존자, 언론과 정부 책임자 등 모두가 자기들의 이야기만을 늘어놓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직시할 수 있는 '매의 눈'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 사고가 애당초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의 실책인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철도를 운영한 회사의 과실인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다그치지 못한 국민의 무지의 소산인지, 사고 이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경찰과 책임당국의 무능함인지 이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 시 | 10월 16일-23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51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 전곡을 대형 세트를 배제하고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다섯번째 무대 '피가로의 결혼'이 무대에 오른다.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부산과 중국의 성악가들이 함께 꾸미는 이번 무대는 음악적인 레치타티보, 매혹적인 아리아, 세련된 앙상블, 창의적인 관현악법 등을 특징으로 고전주의 시대 뿐 아니라 오페라 역사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모차르트 오페라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오페라 부파 중 하나인 '피가로의 결혼'은 모차르트의 계몽주의가 잘 녹여진 작품으로, 서민적인 소재를 주제로 귀족과 서민의 신분계급을 풍자하는 해학이 넘친다. 등장인물의 성격묘사를 위해 독창 아리아뿐만 아니라 3중창을 이용하여 각 인물들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의 심리를 묘사한 모차르트의 통찰력과 천재적인 창작기법이 돋보인다. '피가로의 결혼'은 결혼을 앞둔 알마비바 백작의 시종인 피가로와 백작부인의 하녀인 수잔나가 바람기 있는 남편을 둔 백작부인과 연대하여 백작을 골탕 먹이고 결혼에 성공하는 과정을 희극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백작의 하인 피가로에는 바리톤 이태영이, 백작부인의 하녀 수잔나, 피가로의 연인으로는 소프라노 양지영이, 알마비바 백작, 세비야의 귀족에 바리톤 왕 동준, 알마비바 백작부인(로지나)으로는 소프라노 송 위엔밍, 백작의 어린 시종 케루비노에는 메조 소프라노 김수현, 세비야의 의사 바르톨로에는 베이스 양재원, 바르톨로의 관리인 마르첼리나로는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등이 배역을 맡아 즐겁고 유쾌한 '피가로의 결혼'을 들려준다.

피가로를 맡은 바리톤 이태영은 벨베데레 국제 콩쿠르 한국 지역 예선 1위를 비롯해 2011개천 예술제 성악 대상, 2012 엄정행 성악 콩쿠르 대상, 2012 대구 성악 콩쿠르 3위를 차지한 유망주로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부산가톨릭합창단 베이스를 역임하고 DEMIGOD 보컬, 르 보야즈 앙상블 베이스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잔나를 맡은 소프라노 양지영은 미국 3대 오페라단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San Francisco Opera)의 아들러 펠로우쉽 (Adler Fellowship)에 한국인 소프라노 최초로 최종멤버로 선발되어 바그너 오페라 '탄호이저'의 목동 역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하였다. 2012년 10월에는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세계를 빛낸 음악가'에 초청되어 한국 무대에 데뷔한 양지영은 지난해 3월부터 명지대학교 음악학부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중국의 성악가 왕 동준(Wang Dongjun), 소프라노 송 위엔밍(Song Yuanming)이 처음으로 만난다. 알마비바 백작으로 무대에 오르는 왕동준은 1999년 베이징의 중앙음악원에 입학, 성악을 전공하며 프



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해외에서 많은 공연을 하였다. 왕동준은 현재 중국 센트럴 드라마 아카데미의 뮤지컬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소프라노 송 위엔밍은 넓은 음역에 걸친 탁월한 기교와 서정적인 목소리로 세계 성악과 오페라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차세대 스타이다.

일 시 |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Preview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2회 정기연주회

독도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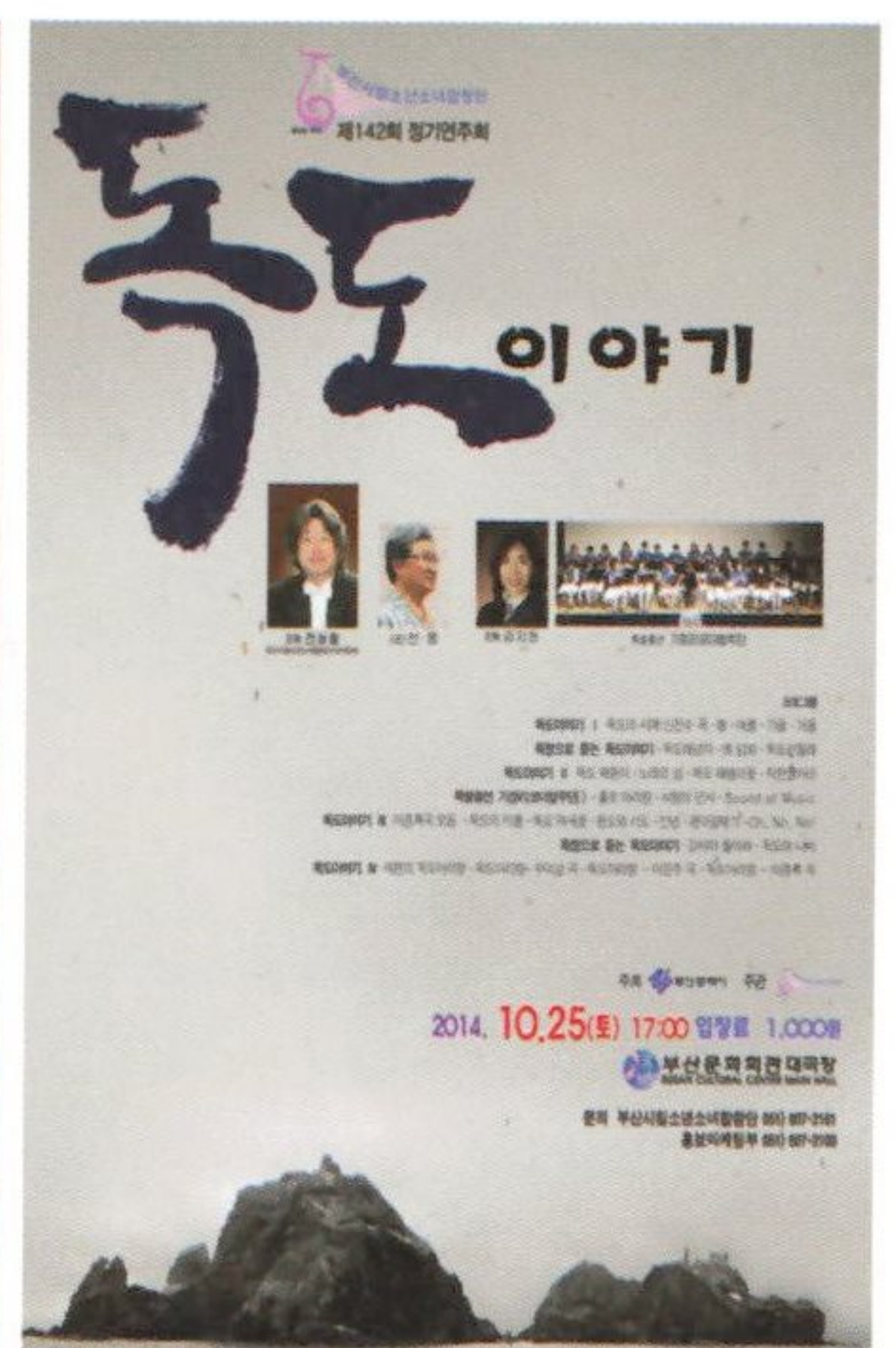
전상철



선용



기장 리코더 합주단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날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 땅 독도를 음악으로, 마음으로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보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독도를 테마로 한 ‘독도이야기’로 특별한 정기연주회 무대를 갖는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상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그동안 ‘시’를 통해 독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전해온 아동문학가 선용의 독도 관련 시에 부산의 작곡가들이 곡을 붙인 합창, 중창, 독창 등 다양한 형식의 창작곡들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준다.

1971년 <소년세계>로 등단한 선용 시인은 ‘어린이동산’ 주간, 부산 MBC ‘어린이 문예’ 주간, 한국문인협회 외국문학분과 회장, (사)한·중 우호협회 회장, (사)국제 청소년문화교류회 회장, 한국동요작사작곡가협회 회장, 부산아동문학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우리시대 대표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대한민국 동요대상, 부산동요대상, 부산시문화상, 부산예술상, 새싹문학상, 대한민국 번역장려상 등을 수상한 선용시인은 ‘가을바람’을 비롯한 18권의 동심시집과 20권의 동요집, 80여권의 번역집 등을 출간하며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창작활동을 펼쳐왔다. 1998년부터는 ‘선용 창작동요의 밤’을 시작으로 ‘선용 동심시와 창작동요의 밤’ ‘선용의 부산사랑 동시를 위한 무대’ 등의 공연을 통해 그의 부산사랑, 독도사랑, 어린이 사랑을 전해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신진수 선생이 작곡한 ‘독도의 사계’를 비롯해 이문주의 독도해넘이, 왜 녀봐, 강치야 돌아와, 독도와 나비, 박은영의 독도민들레, 노순덕의 독도

해돋이, 이종록의 노래의 섬, 독도의 이름, 독도 억새꽃, 동도와 서도, 안녕, 팽이갈매기, Oh, No, No!, 김성덕의 독도 패랭이꽃, 전세용의 착한잠자리, 우덕상, 이문주, 이종록이 작곡한 세편의 독도아리랑 등 다양한 창작곡들을 한 자리에서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프랑스 파리나무 소년합창단, 시카고 칠드런스 콰이어 내한공연, 모스크바 소년소녀 합창단,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폴란드 라디오 방송 합창단 내한공연 등에 출연한 바 있는 기장리코더합주단이 특별출연, 서정적이며 포근한 리코더 선율로 홀로아리랑, 사랑의 인사, Sound of Music 을 들려준다.

일 시 |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차르트 연주의 진수를 만나다! 잘츠부르크 솔리스텐 오케스트라



황성훈



김경희

정통파 유럽음악의 자존심 잘츠부르크 솔리스텐 오케스트라가 10월 26일 부산음악 애호가들에게 모차르트 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2005년 챔발리스트 안드레아스 슈타이너에 의해 창단된 잘츠부르크 솔리스텐 오케스트라는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악장 프랑크 슈타들러,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단원 베르너 노이게바우어, 비올라 수석 휘르미안 레르머,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 플로리안 심마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베이스 수석 마틴 뷔르크쉬벤트너 등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비인 심포니키 등 잘츠부르크와 뮌헨 지역의 기성 오케스트라 주요 연주자들로 구성된 1급 오케스트라이다.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작품 원전에 가장 가까운 편성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한 잘츠부르크 솔리스텐 오케스트라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2013, 2014), 라인가우 페스티벌(2013) 등 세계적 페스티벌 무대에 초청받아 활발한 연주를 펼치고 있으며, 2006년 발매한 모차르트 후기 작품 녹음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죽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할 명곡으로도 널리 알려진 모차르트 최대의 역작 피아노 협주곡 27번을 비롯해 티토황제의 자비, 춤춰라, 노래하라 나의 영혼이여 K.165, 교향곡 제35번 '하프너'로 깊어가는 가을의 밤 모차르트의 낭만을 들려준다.

모차르트 협주곡 27번은 41개의 세계 콩쿠르에 입상한 부산출신의 재독 피아니스트 황성훈이 협연, 부산음악애호가들을 설레게 한다. '열화 같은 기립박수' '음악의 모든 뉘앙스를 꿰뚫은 연주자' '표현세계의 탁월한 지배력의 소유자' '건반 위의 대가'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황성훈은 특히 바로크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방대한 레퍼토리의 소유자로 Porto 국제콩쿠르에서는 현대음악해석 특별상을, Epinal 국

제콩쿠르와 Andorra 국제콩쿠르에서는 프랑스음악해석 특별상을, Carlet 국제콩쿠르에서는 고전소나타 해석 특별상을, Guardiagrele 국제콩쿠르에서는 낭만음악해석 특별상을 수상했다. 자비, 춤춰라, 노래하라 나의 영혼이여 K.165를 들려줄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김경희는 부산대학교와 이탈리아 밀라노 음악원, Parma Orfeo Accademia를 졸업하고 그동안 오페라 L'amico Friz, 마탄의 사수, 라 보엠,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투란도트, 춘향전, 이탈리아 나폴리 썬카를로 극장 투란도트 주역으로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일 시 |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Preview

부산박물관 2014 국제교류전

러시아 연해주 문물전 : 프리모리예



부산박물관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러시아 연해주 문물전 : 프리모리예'를 11월 16일까지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러시아 연해주는 고구려, 발해 시절 당시 우리의 영토이기도 했고, 근대 들어서는 러시아가 조선인에게 이주를 허용한 곳으로, 지난 역사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우리와 친근한 곳이다. 특히 올해는 조선인이 최초로 연해주로 이주한 지 150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뜻깊다.

전시 제목인 '프리모리예'는 연해주를 가리키는 러시아어로, 이번 전시에서는 연해주 출

토 유물 576점을 비롯해 두만강을 끼고 연해주와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함경북도의 유물 등 모두 612점이 선보인다. 전시는 시대별로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 초기>에서는 먼저 연해주에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남긴 석기인 우스티노프카와 약 1만 년 전에 만들어진 연해주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를 소개하며, 제2장 <신석기시대>에서는 보이스만 유적에서 출토된 결합식 작살과 초르토비 보로타유적의 화살대 연마기 등을 통해 어로와 수렵의 다양한 기술과 지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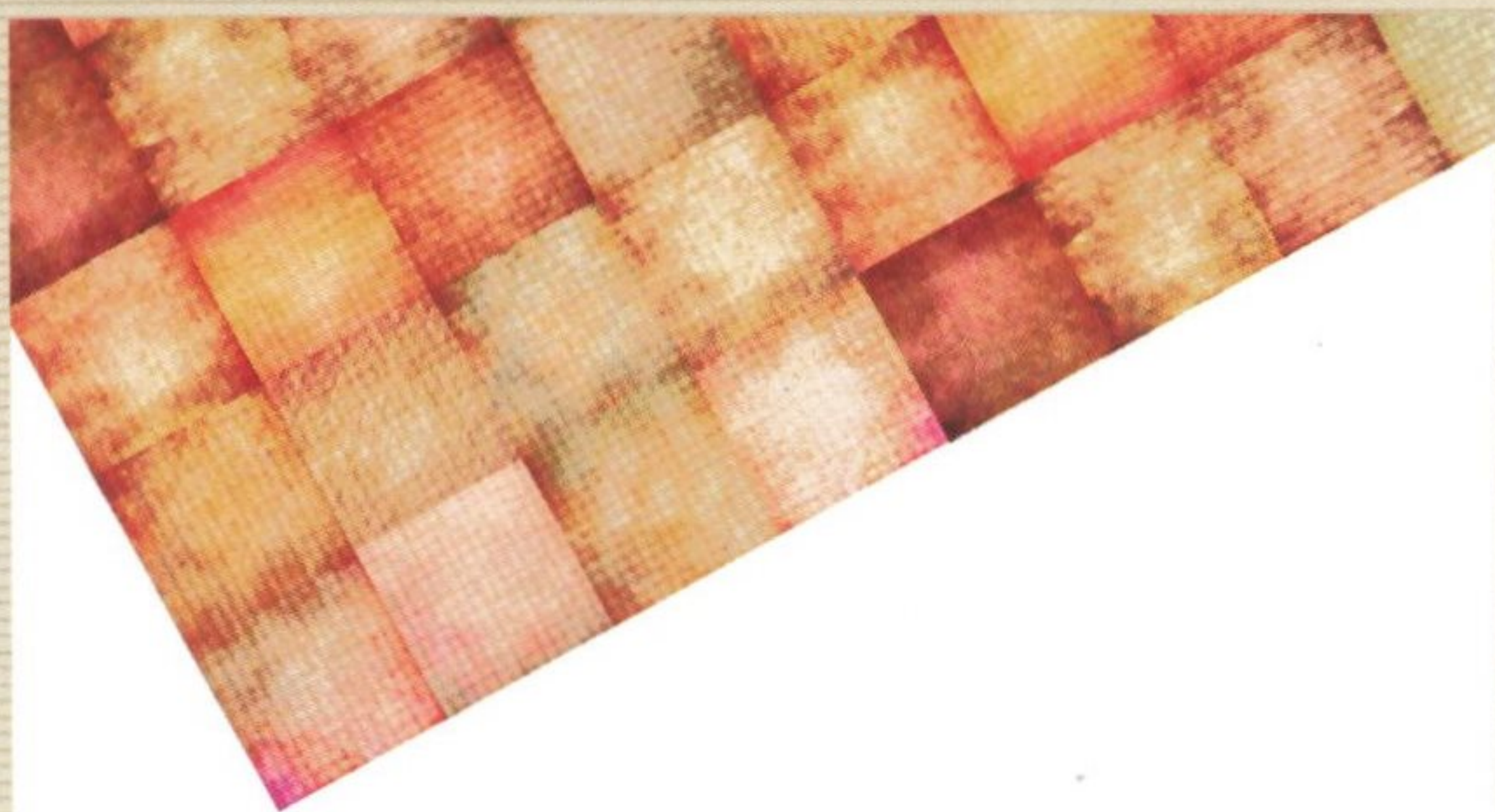
제3장 <청동기시대-초기 철기시대>에서는 신석기시대 후기에 시작된 농경이 안정적으로 발달하는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의 특이한 형태의 토우를 소개하며 제4장 <옥저-읍루>에서는 철기의 보급에 따른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성립된 크로우노프카문화, 폴체문화의 다양한 유물을 전시한다. 제5장 <말갈>에서는 나중에 발해의 기층민이 되는 말갈이 남긴 토기, 무기류, 장신구와 허리띠장식 등을 전시한다.

제6장 <발해>에서는 연해주 각지의 중요 지역에 위치한 평지성과 무덤, 불교 사찰 등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과 함께 중국 당나라 고위관직의 신분증으로 사용되었던 물고기 모양의 청동부절(靑銅符節)과 통일신라와의 교섭관계를 보여주는 울릉도 천

부동 출토 네귀달린 항아리 등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유물을 소개한다. 제7장 <금·동하>에서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 동하국과 관련된 각종 유물과 금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여진문자'를 소개하며, 제8장 <연해주의 민족사>에서는 연해주의 원주민인 우데게인, 나나이인, 니브히, 울치 등이 사용했던 생활용품과 의상, 사냥도구 그리고 전통적 종교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 지금은 거의 사라져 가는 고아시아인들의 잔영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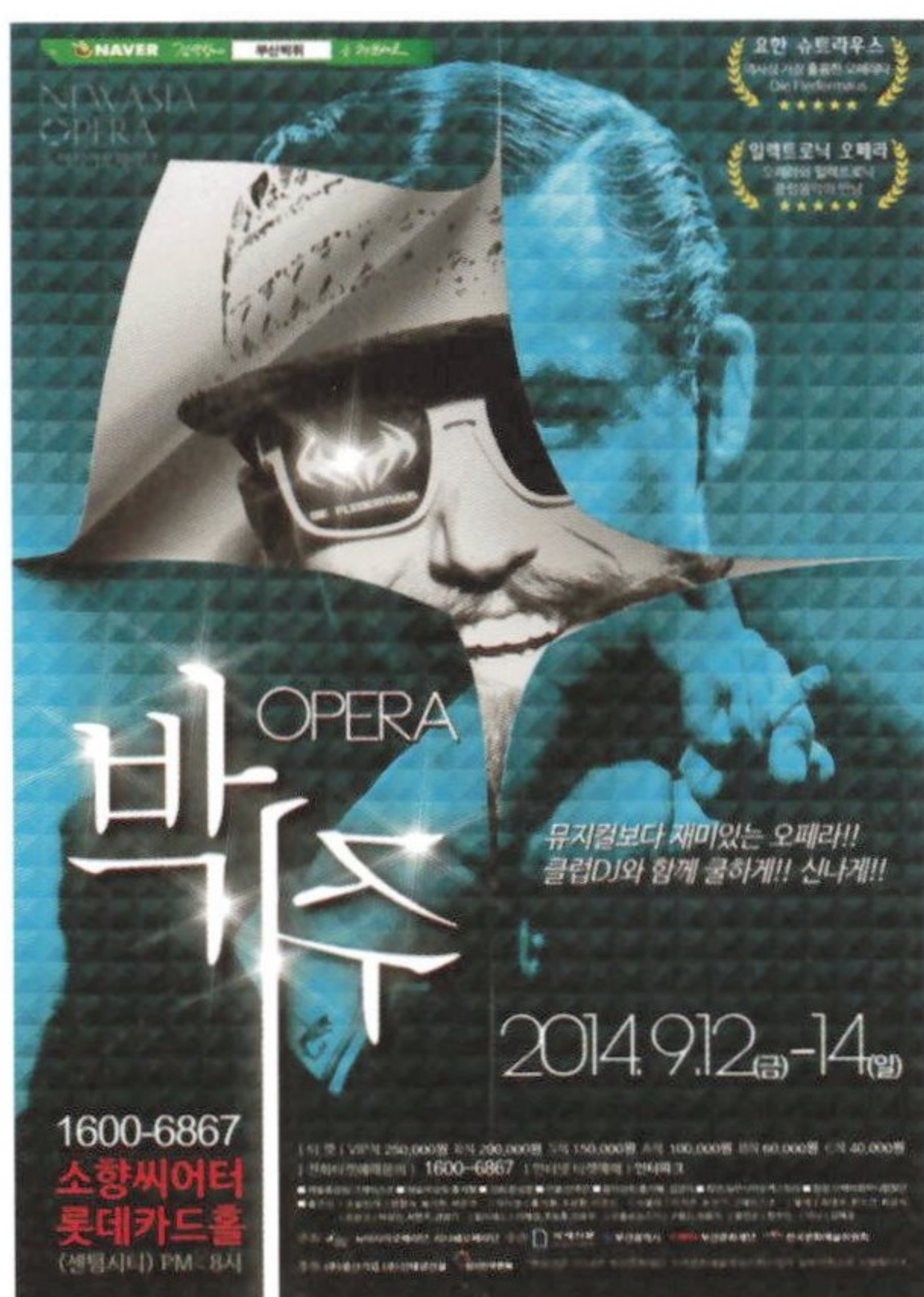
제9장 <러시아 연해주의 근현대사>에서는 16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슬라브족의 동방진출에서 시작하는 러시아의 근현대사를 사진과 지도 등을 통해 구성해 보며, 제10장 <연해주의 한인>에서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한반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간 사람들의 연해주에서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사진과 유물, 일제강점기에 연해주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 시 | 9월 16일(화)~11월 16일(일)
장 소 |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museum.busan.go.kr



일렉트로닉 클럽 오페라 박쥐

음악평론가 박진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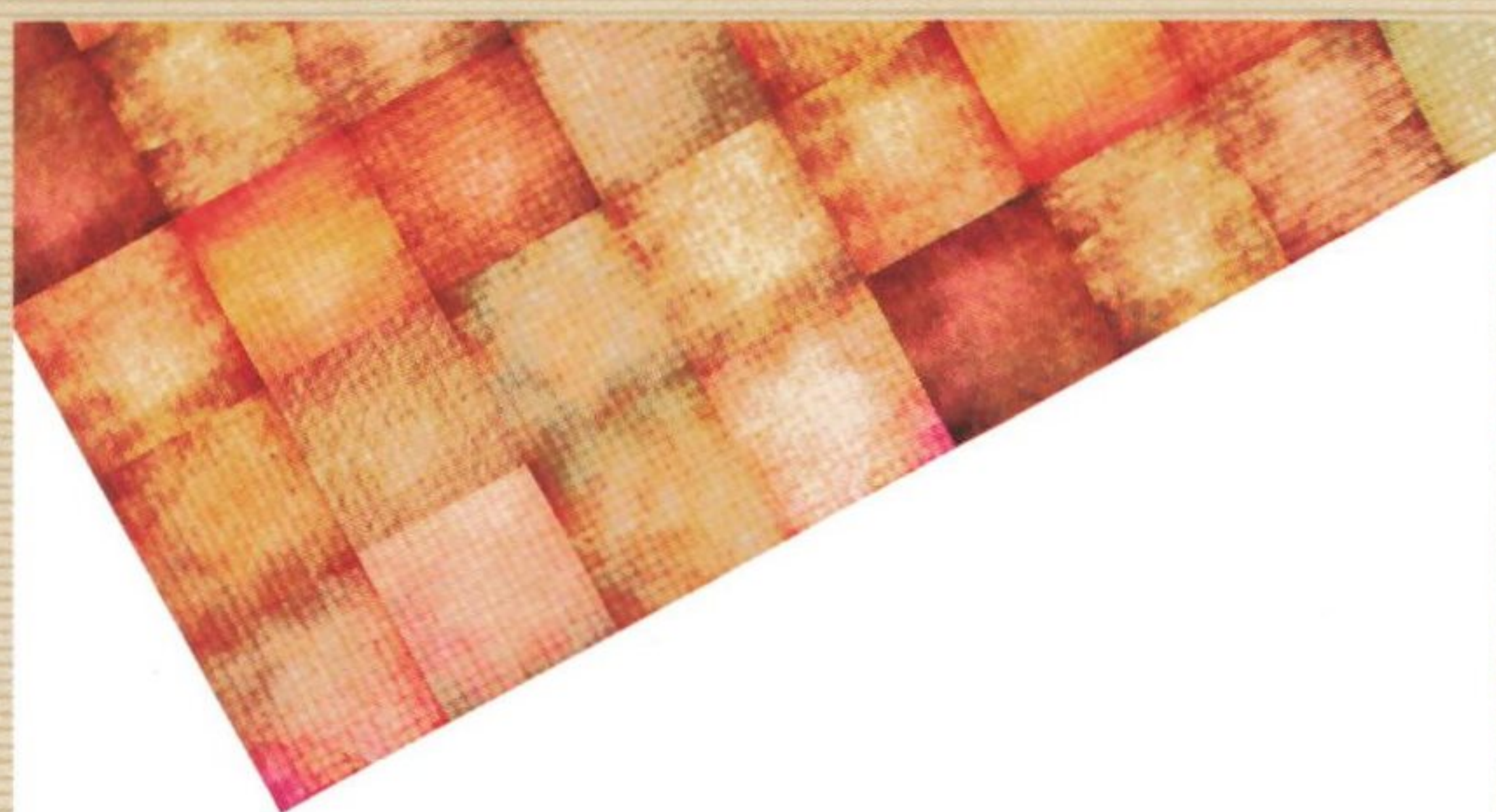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희극 오페레타 박쥐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소향 씨어터에서는 뉴아시아 오페라단과 리나쉐 오페라단의 일렉트로닉 클럽 오페라 박쥐가 공연되었다. 오페레타는 '작은 오페라'라는 뜻으로 19세기에 성행했던 종합예술이다. 오페라가 신화나 전설, 과거에 알려진 문학 작품 등을 소재로 삼는다면 오페레타는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루고 있으며 노래와 더불어 대사가 있고 춤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도 포함된다.

오페레타 박쥐는 도덕성을 상실한 졸부 남편 아이젠슈타인, 사랑 없이 돈에 현혹되어 결혼한 부인 로잘린데, 연예계로 진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잣집 하녀 아델레의 모습을 통해 당시 오스트리아 빈의 상류 사회를 풍자한다. 귀에 익은 서곡이 끝나고 나면 팔케가 관객들에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한다. 가장무도회에 참석했던 아이젠슈타인은 술에 취한 그의 친구 팔케를 거리에 둔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날이 밝자 박쥐 분장을 하고 있던 팔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일을 마음에 담아 두고 있던 팔케가 아이젠슈타인에게 유쾌한 복수극을 시작한다. 팔케는 아이젠슈타인과 그의 모든 주변 인물들을 오를로프스키의 파티에 초청을 한다. 8일간 경찰서에서 구류를 살아야 하는 아이젠슈타인은 팔케와 함께 신나게 한바탕 파티를 하고 경찰서로 향하려고 한다. 8일간의 이별을 슬퍼하는 3중창은 각 인물들의 이중성을 희극적으로 보여 준다. 한편, 경찰서장 프랑크는 아이젠슈타인이 떠난 후 집으로 찾아온 로잘린데의 옛 애인을 아이젠슈타인으로 알고 체포한다. 파티에 참석한 아이젠슈타인은 가면을 쓴 여인이 자기 아내인 것도 모르고 유혹을 하며 자신의 시계를 그녀에게 준다. 파티가 끝나고 경찰서로 간 아이젠슈타인은 그 곳에서 로잘린데와 그녀의 옛 애인의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을 힐난하지만 로잘린데 역시 아이젠슈타인의 시계를 보여 주며 부정한 남편을 비난한다. 이어서 경찰서를 찾아온 팔케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꾸민 복수극임을 밝히고, 아이젠슈타인은 부인에게 용서를 빈다. 이에 로잘린데는 남편을 용서하고 모두가 샴페인을 여전한 노래를 부르며 막이 내린다.

이번 공연은 우선 19세기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현재의 부산 해운대로 옮겨 왔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그리고 상류사회의 파티 장소를 디제이가 강렬한 사운드의 전자 음악들을 만들어 내는 클럽으로 설정했다.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던 오페레타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낮추었다. 클럽의 모습을 그려 내기 위해 등장한 디제이와 몇몇 인물을 제외하고는 주요인물들은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되었다. 클럽의 느낌을 소화해 내기에는 다소 무게감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좋은 연기력과 가창력으로 원작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스타일을 잘 살렸다. 더불어 중간 중간 코믹한 연기와 대사, 분위기 전환을 위한 트로트의 사용 등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공연 내내 의상이나 사람들의 이름, 전자 음악과 현대적인 유머 등 새롭게 시도한 각색의 요소들이 아직은 부드럽게 녹아들지 않아 생소하고 어색한 느낌이 강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자막도 번역이 아니라 조금 더 문학적이고 현대적으로 번안을 하는 것이 더욱 안정감이 있지 않았을까. 예컨대 해운대 경찰서장 프랑크라는 소개에 관객들이 웃음을 터트리기는 했지만 필자는 그 웃음이 유머이기 보다는 어색함으로 느껴졌다.

이번 공연은 원작에 충실하게 제작된 오페라만 무대에 오르는 부산 오페라 공연의 흐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도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관객들의 호흡을 읽고 흥미와 관심의 코드를 함께 하려고 하는 기획 의도에 공감한다. 오페라의 특성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겸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Review



재치와 웃음이 넘치는 문화 정상회담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남인용

JTBC가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방송하고 있는 <비정상회담>의 인기가 뜨겁다. <비정상회담>을 패러디한 동영상이나오는가 하면 <비정상회담>의 출연진이 다른 프로그램과 광고에 주연급으로 나오는 등 파급효과도 대단하다. <비정상회담>은 한국에 살고 있는 11개국의 젊은 남성들이 국가 정상들의 회담형식을 빌어 자신들이 경험한 한국 생활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흥미롭게 토론하는 프로그램인데, <비정상회담>에서 외국인 출연자들은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과시하며 개방사회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10인 이상의 출연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면은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에서 낯설지 않게 된지 오래다. 집단 토크 프로그램의 장점은 특정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출연자들의 교체가 자유로우며 무엇보다 다양한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상회담>이 갖는 의의가 크다.

<비정상회담>은 <미녀들의 수다>의 남성판이다. <미녀들의 수다>가 여성들의 한국 생활을 다루었다면, <비정상회담>은 젊은 남성들이 겪는 한국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여 집중 조명한다. 젊은 남성들이 출연한다는 점에서 여성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고 각 출연자들에 대한 논쟁도 벌어진다. <비정상회담>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살펴보면, <비정상회담>에서 다룰 주제를 제안하기도 하고, 특정 출연자는 왜 말이 적으냐며 방송 분량을 늘어 달라고 하기도 한다.

<비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각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실감하게 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일수록 문화의 동질성이 강해지고, 멀어질수록 문화의 이질성이 강해진다. 각 문화끼리 자주 접하게 되면 비슷하게 되는 이치를 <비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실감하게 된다. 한국말을 누구한테서 배웠냐에 따라 출연자가 말씨가 달라진다. 자신이 그 나라 말을 배운 사람의 성별과 지역에 따라 외국인의 말씨가 달라진다는 점은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비정상회담>이 우리의 견문을 넓혀주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측면이 있는 반면, <비정상회담>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아쉬운 부분도 드러나게 된다. <비정상회담>의 출연자들은 사회 기득권층을 대변한다. 국가적으로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적으로 각자의 나라에서 입지가 나쁘지 않으며, 한국에서 생활할 때도 자기 나라가 아니어도 약자의 처지에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다. <비정상회담>이 한 가로운 이야기 잔치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려면, 알만한 나라의 엘리트만 출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대표할만한 사람들이 골고루 등장해야 한다.

일류 국가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일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대체로 그런 기준을 충족하거나 근접해 있다. <비정상회담>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경험은 결국 그 나라의 장점을 수용하여 우리나라도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때 의미가 있다. <비정상회담>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의 수준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

프로그램
가이드

동아대학교 피아노 교수 음악회

일 시 | 10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동아대학교 010-2333-2544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국 피바디음대, 텍사스주립 대학을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최지은, 서울대학교,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보스턴대학을 졸업하고 강의 전담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박정희, 프랑스 파리 고등 국립음악원, 독일 뮌헨 국립음대를 졸업한 동아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헨리보나미가 들려주는 솔로와 앙상블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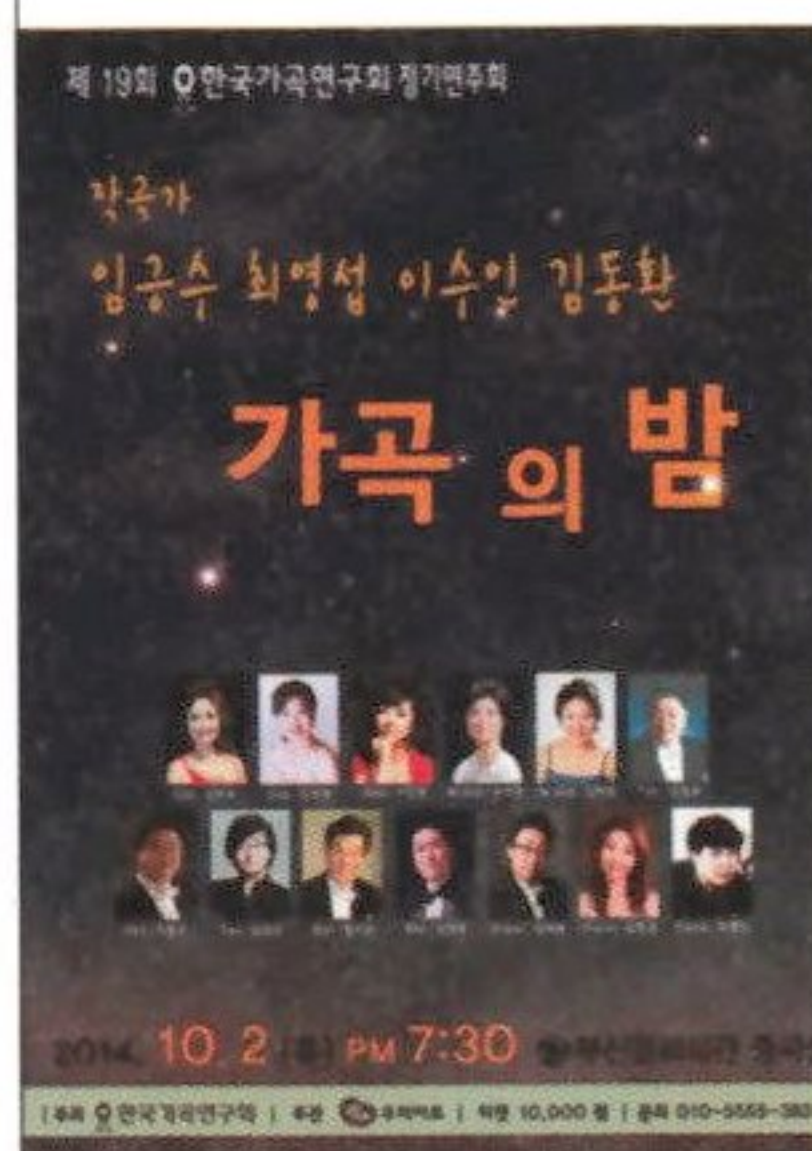
[프로그램]

체르니/로데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
바르톡/소나타
코플랜드/엘 살롱 멕시코
라벨/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라 발스'
라흐마니노프/로망스와 왈츠(6hands) 등 수곡

한국가곡연구회 제18회 정기연주회 임금수 최영섭 이수인 김동환 가곡의 밤

일 시 | 10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우리아트 010-5555-3825

...



아름다운 우리가곡의 보급을 위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한국가곡연구회의 제18회 정기연주회. 가을 정서와 잘 어울리는 임금수, 이수인, 김동환, 최영섭의 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임금수/사랑하는 마음, 옛
님, 강건너 봄이 오듯, 안개꽃 당신, 천의 바람이 되
어, 나의 사랑 독도야, 그대 창밖에서
김동환/기다리는 마음, 청산은 나를 보고
이수인/고향의 노래, 그리움, 별, 내맘의 강물
최영섭/망향, 아 금강산아, 추억, 그리운 금강산 등
•출연/소프라노 김현숙, 정서영, 구민영, 메조소프
라노 강희영, 손자경, 테너 김동윤, 이흥득,
임성규, 바리톤 양재원, 함도관, 심정보
•반주/김현경, 최영민

박재현 첫 번째 타악독주회 장단지악(長短之樂) - 춤과 씻김

일 시 | 10월 2일 목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재현 010-8581-3291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로 우리가락의 전통을 잇고 있는 박재현의 첫 번째 타악독주회. 박재현은 제7회 전국 교수대회 명고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경기도당굿과 태평무, 고법과 판소리, 시나위와 살풀이, 진도씻김굿

박지은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0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서울예고와 오스트리아 쾰츨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대 석사과정 및 뤼베크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지은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클라비어소나타 다장조 작품2 제3번
쇼팽/스케르쑈 작품 54 등

마리아수녀회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10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250-5408, 250-5200

...

1964년 창립 이래 가난한 사람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적인 복지사업을 펼쳐 온 마리아수녀회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 마리아수녀회는 국내 만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마리아수녀회 소년외집 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등학교와 부산시민상을 받은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창립 50주년을 즈음하여 그동안 마리아수녀회를 위해 헌신해 준 각계 각종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 현 단원, 졸업단원이 한자리에 모여 그 창립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이다. 박진이 지휘하는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와 2012년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 송도가정에 재원중인 초등학생으로 창단된 프란치스코 합창단,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아동 보호시설 꿈나무마을 소속의 어린이 합창단 노비파스 어린이합창단이 무대를 꾸민다.

- 지휘/박진
- 사회/윤운중 콘서트마스터
- 특별출연/서울노비파스어린이합창단(지휘/전선하), 프란치스코 합창단(지휘/권영옥)

멜로매니아 창단 20주년 기념 제20회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4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성홍 620-3834, 010-8543-9378

...



1994년 9월, 뜻있는 아마추어 성악가 10여명(현재 회원 오거돈, 한성권)과 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박광하가 의기투합하여 점점 잊혀져 가는 아름다운 우리 가곡, 외국가곡, 아리아, 성가곡, 영화음악, 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발표, 보급하기 위해

창단한 멜로매니아의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

[프로그램]

김동진/가고파
이요섭/세월
전라도민요/거문도 뱃노래
최성욱/당신을 위해 내가 등 수곡
•출연/바리톤 한성권, 테너 정량부, 바리톤 민정식, 테너 원요한, 바리톤 김성홍, 테너 윤치연, 테너 전철우, 테너 하성문
•트레이너/박광하 •피아노/곽윤희
•8중주/네오피앙상블

소프라노 양성희 귀국독창회

일 시 | 10월 4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양성희 010-2584-4870

...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 후 프랑스로 유학, 파리국 제음악원, 장 바티스트 웰리 음악원, 까성 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양성희 귀국독창회.

파리에서 1회의 독창회와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친 소프라노 양성희는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에 출강하며,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프로그램]

뿔랑/노래들
오브라도스/스페인 고전가곡
모차르트/기뻐뛰며 즐거워하라 Kv. 165
베르디/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조용한 밤이었다... 이 사랑 말로 할 수 없네'
비제/오페라 '카르멘' 중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은 없어'
•피아노/박여명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부산 방문 특별공연

일 시 | 10월 5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064-710-7674, 010-8575-4962

고향 제주를 떠나 타지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부산과 경상도 지역에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소개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특별공연.
1990년 3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으로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은 제주 토속의 예술향기가 넘쳐나는 다이나믹한 작품을 통해 제주지역문화를 널리 알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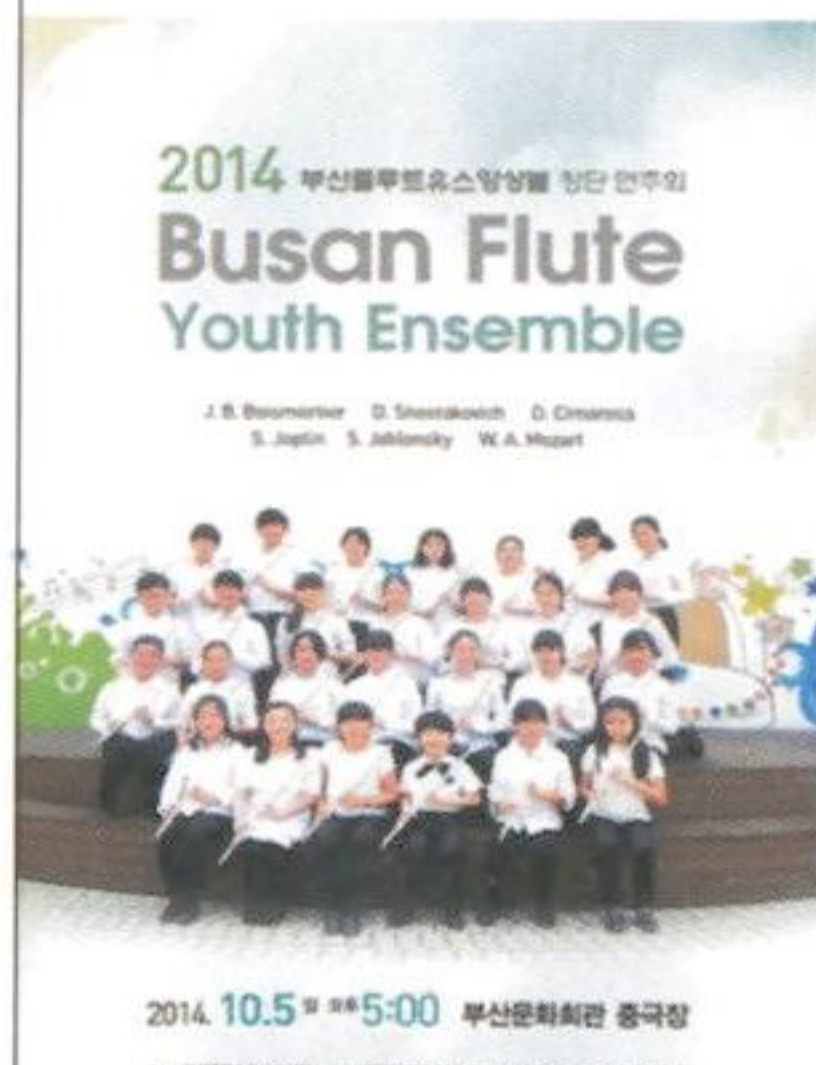
[프로그램]

제주의 빛, 부채춤
사랑가, 장고춤
바다의 노래, 환희



부산 플루트 유스 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 10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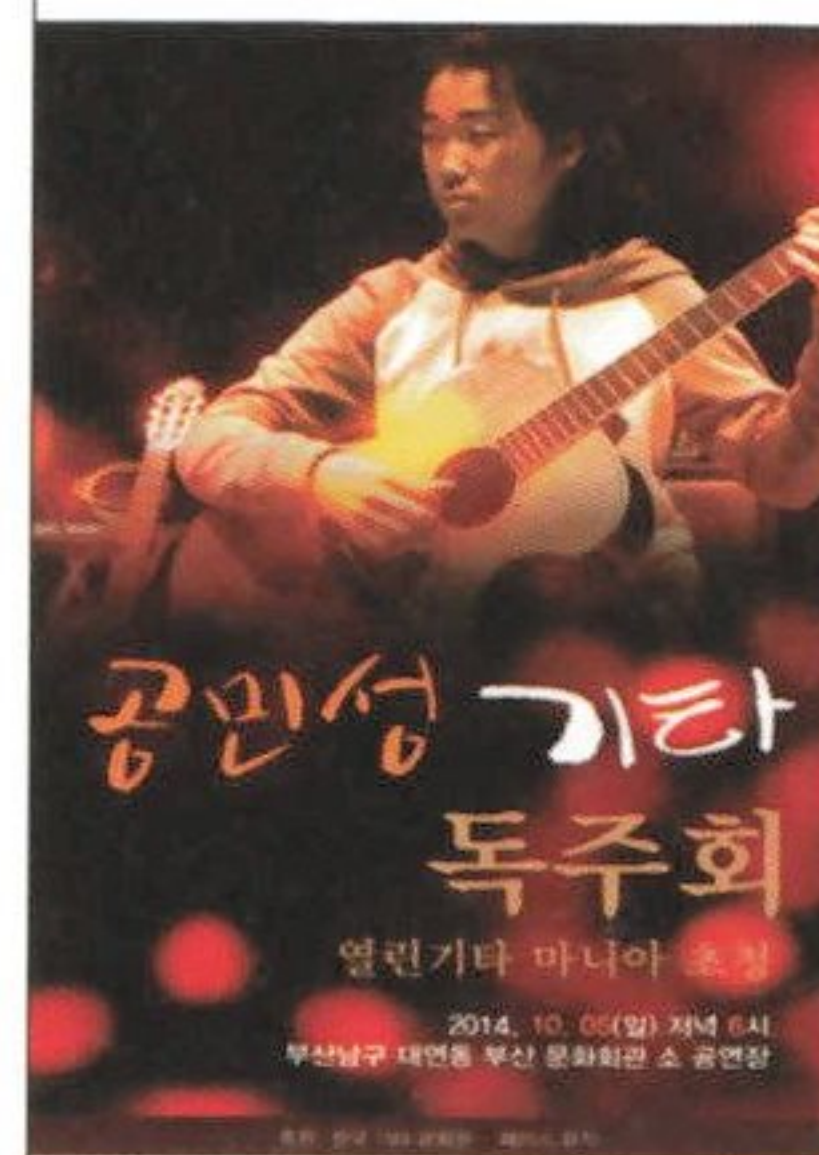
브와모르티에/협주곡 2번
쇼스타코비치/재즈 모음곡 2번 중 왈츠
치마로사/2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
조플린/엔터테이너
자블론스키/아리랑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협연/이윤영, 김광열
•지도/정옥경, 조진학, 이진향, 김하나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음악적인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부산 플루트 앙상블이 지도해온 부산 플루트 유스앙상블의 창단연주회.
초등학교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단원으로 구성된 부산 플루트 유스앙상블은 이미

두 차례의 무대를 통해 큰 호평을 받았다.

열린 기타마니아 초청 공민성 기타독주회

일 시 | 10월 5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열린기타마니아 010-7447-4528



[프로그램]

공민성 편곡/아리랑, 13 Jours en France, Hotel California, 밀양 아리랑
마이클 해지스/Ragamuffin, Ritual Dance
윌리엄 애커맨/Anne's Song, Impending Death of the Virgin Spirit
공민성/그 하늘의 구름너머, 여행 등 수곡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프로 기타리스트와 아마추어 기타리스트, 기타 애호가들로 구성된 열린 기타 마니아에서 들려주는 공민성 기타 독주회.
8세부터 클래식 기타를 독학으로 공부하며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해 오면서 1980~90년대를 주름 잡

았던 1세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인 마이클 해지스, 윌리엄 애커맨 등 자연주의 음악에 많은 영향을 받은 공민성은 현재는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심포닉밴드 특별연주회 오지여행가 도용복과 함께하는 세계로 떠나는 음악 여행

일 시 | 10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심포닉밴드 010-9966-9063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 기행'이라는 주제로 지난 22년 동안 142개국을 돌며 느끼고 배운 세계문화를 전국 각지를 돌며 소개해 온 오지여행가 도용복과 함께 하는 '세계로 떠나는 음악여행'.

기업가에서 오지여행가, 시인, 스타 강연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용복과 이기균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닉밴드, 소프라노 김유섬, 테너 김지호, 퓨전 바리올리니스트 사라토미와 함께 스토리가 있는 특별한 음악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베르디/아이다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푸치니/그리운 나의 아버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베르디/축배의 노래 등 수곡
•연주/부산심포닉밴드(지휘/이기균)

이태리가곡과 함께 맞이하는 가을 속으로의 여행 이태리음악연구회 제39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이태리음악연구회 010-6439-1875

이탈리아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이태리음악연구회의 제39회 정기연주회.
1987년 부산 최초의 유학파 음악단체로 설립된 이태리음악연구회는 이탈리아에서 음악수업을 한 부산출신 음악인들이 함께 교류, 연구하며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토스티/기도, 최후의 노래, 세레나데, 꿈, 내게 평안을 주오
글록/오! 나의 감미로운 사랑
도니제티/눈물의 기도, 기억하시나요 사랑스런 이레네
체스티/슬픔, 나의 님 계신 주위에
베르디/축배의 노래 등 수곡

[출연]

테너 김성배, 소프라노 구현진, 바리톤 채범석, 소프라노 박연경, 테너 박찬, 소프라노 정미순, 바리톤 김대성, 소프라노 이은미, 베이스 김태형, 소프라노 전해란, 테너 장원상
•피아노/안선애, 전은영, 최성근

제3회 김경수 피리독주회 '本'

일 시 | 10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경수 010-5481-8612



국음악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경수는 2010년 제1회 피리독주회 '樂을 통하여 我를 보다', 2013년 제2회 피리독주회 '바람의 흐름'을 펼친 바 있다.

[프로그램]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중령산(장구/송강수, 대금/한영길, 해금/방병원)
지영희제 박범훈류 피리산조(장단/송강수)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가야금/윤경선, 장단/송강수)
메나리 주제에 의한 피리협주곡(가야금/윤경선, 해금/방병원, 신디/차민영, 타악/박재현)
태평소와 사물놀이(사물놀이/최창용, 김명진, 윤승환, 박재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 수석, 창원국악관현악단 음악감독 겸 지휘자, 국악 실내악단 산·바다·해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수의 피리독주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와 대학원,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한

프로그램
가이드

제34회 UKO 사랑나눔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양보람 010-3863-3087



천재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구스타보 로메로와 함께하는 부산의 민간 자선오케스트라 UKO의 제34회 정기연주회. 오랜만에 부산을 찾은 구스타보 로메로는 화려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피아니스트이자 지도

자이다.

[프로그램]

- 브람스/피아노협주곡 제2번 내림나장조 작품 83
브람스/이중협주곡 가단조 작품 102
도니제티/오페라 죽음의 도시 중 'Al dolce guidami castel natio'
• 지휘/이동신
• 피아노/구스타보 로메로
• 바이올린/신상준(계명대학교 교수)
• 첼로/양욱진(인제대학교 교수)
• 소프라노/박상희(문화예술교육법인 올웨이코리아 오페라단 단장)

김주리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0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국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동아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러시아로 유학, 샹트-빠페르부르크 국립 음악원에서 반주전공으로 전문연주과정(연주학 박사)을 졸업하고 현재 샹트-빠페르부르크 국립 음악원에서 예술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피아니스트 김주리의 귀국 독주회.

김주리는 유학 중 러시아 Vocal-Piano Duet competition 'III Centuries of Classic Song' 입상, 불가리아 International Youth Music festival competition에서 반주부분 전체(all parts) 1위, 독주부분 2위, 핀란드 International Competition 'White night-Suomi'에서 그랑프리 수상하며 연주자로서의 기량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2의 2번
라흐마니노프/악흥의 한때 작품 16의 4, 5, 6번
리스트/순례의 해 2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나폴리'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테너 김지호 데뷔 10주년 스페셜 콘서트 GRAZIE CONCERT

일 시 |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010-2752-9923, 070-8265-0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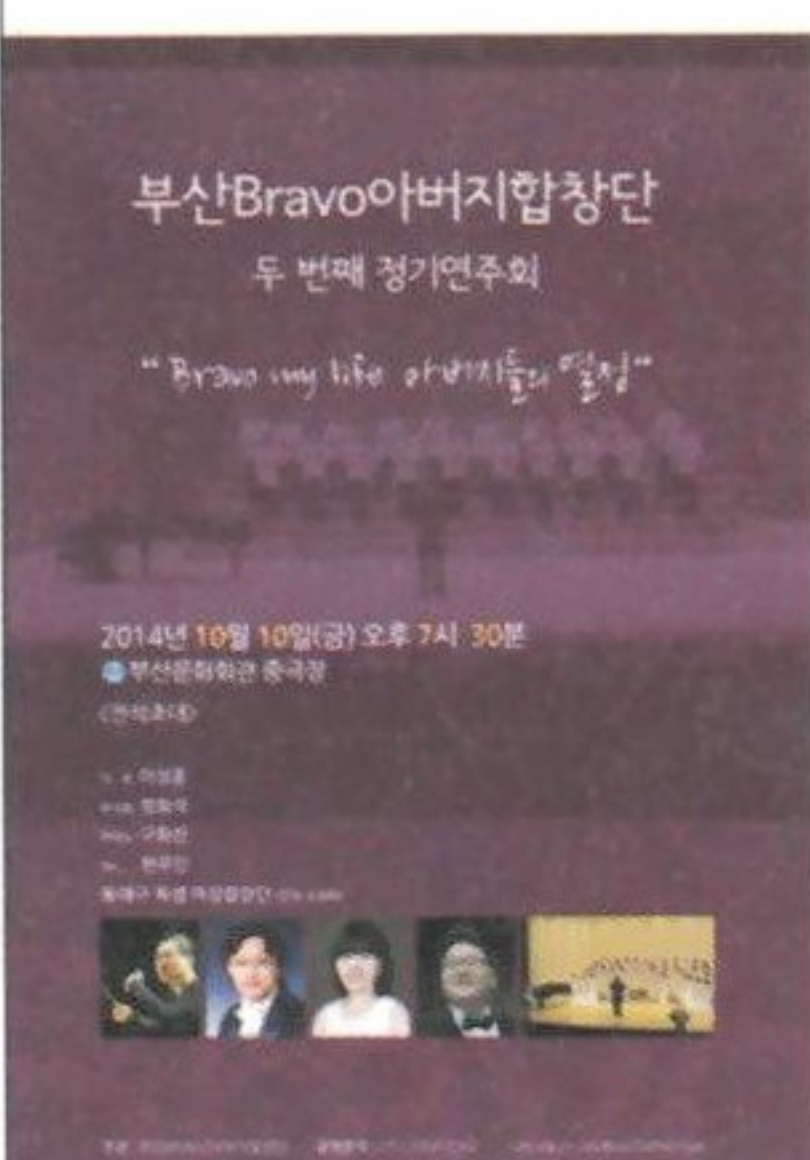
경성대학교와 독일 쾰른국립음대, 러시아 마그니타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지호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무대. 대학시절 전국성악콩쿠르 및 고태국 전국성악콩쿠르에 입상하며 두각을 보인 김지호는 국내외적으로 팔리아치,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가면무도회, 토스카, 나비부인, 라 보엠, 투란도트 등 여러 오페라 작품을 소화하면서 '천상의 목소리', '우렁찬 목소리', '열정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아왔고 사랑에 살아왔는데', '별은 빛나건만'
조르다노/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중 '언젠가는 푸른 하늘 아래서'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김유섬(창원대학교 교수), 남성양상블 맨즈앤하모니
• 연주/지휘자 홍성택&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두 번째 정기연주회 Bravo My Life 아버지들의 열정

일 시 |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국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010-3954-0362
cafe.daum.net/Bravofatherchoir



2013년 창단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 '부산Bravo 아버지합창단'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은 직업과 종교가 모두 다른 보통의 아버지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풀 거운 합창을 통해서 치유

하며 큰 위안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

- 산과 바다/산촌, 바위섬, 꿈꾸는 백마강
아름다운 마음/도라지 꽃, 뱃노래, 여자의 마음
아버지와 술/그대 눈속의 바다, 빈대떡 신사, 내일은 해가 뜬다 등 수곡
• 지휘/이성훈 • 부지휘/정희석
• 피아노/구화진 • 테너/한우인
• 특별출연/동래구 옥샘 여성합창단(단장/김성희)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일 시 |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0: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513-4306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문화 정착을 위해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주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10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중·고교 합창단 17개팀이 참가하는 예선 경연에 이어 오후 2시에는 8개팀이 참가하는 본선이 펼쳐진다. 대회에 이은 축하공연은 제6회 대회의 대상을 수상한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산정합창단의 오프닝으로 시작해서 동여자중학교의 청소년댄스, 비보이 공연이 펼쳐진다. '파라미타'는 불교 보살의 수행덕목인 바라밀다(波羅蜜多)의 인도식 표기(범어)로 '어둠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



한국창작가곡협회

제9회 우리시 우리노래 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일 시 |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중국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국창작가곡협회 323-8575
010-5541-8576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가곡을 보급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한 시인, 작곡가, 성악가들로 결성된 한국창작가곡협회가 들려주는 우리시 우리노래-아름다운 부산을 노래하다. 부산의 아름다운 풍광, 정서가 담긴 신작 가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김성덕/돌담, 4월의 노래, 부산갈매길 700리
김정란/자전거타기, 수영천
노순덕/역새꽃, 신선대에는
이성훈/어느 가을날
전세용/다시 청사포에서 등 수곡
• 작곡/김경운, 김성덕, 김성희, 김수진, 김정란, 김종태, 노순덕, 심순보, 우덕상, 윤소정, 이강산, 이성훈, 이주애, 전세용
• 시인/김무영, 김미선, 김미순, 김선아, 김정순, 김지은, 류정희, 박미정, 박병금, 선용, 안덕자, 오지영, 이소애, 이애리, 장원식, 정재분, 최복자, 황예순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2일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광남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010-3046-8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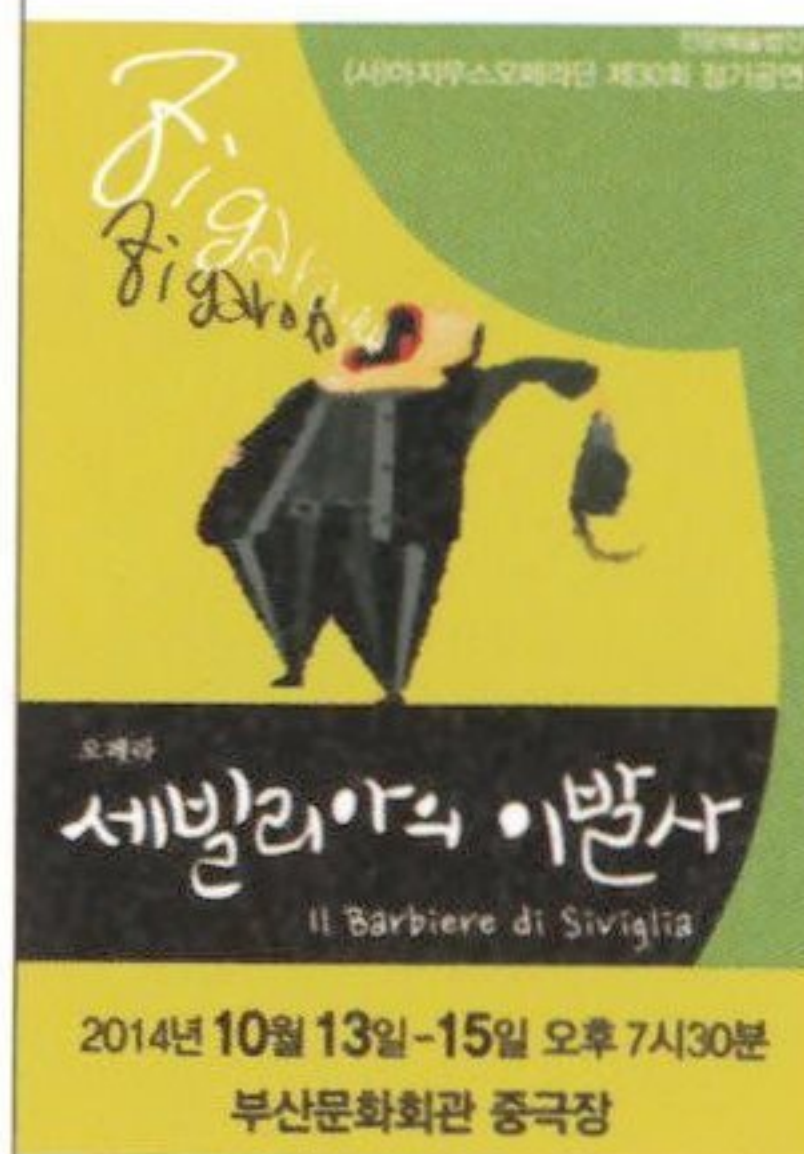
광남초등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비롯해 전문연주인, 학부모 후원회로 구성된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1999년 광남초등학교 관현악부로 출발한 광남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는 2007년 지금의 오케스트라 형태로 재구성된 이래 부산초등학교 꿈나무 음악회, 수영구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음악회, 유진박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비제/오페라 '카르멘' 전주곡
정재명/동요메들리 VIII '봄맞이 가자-봄바람-노래는 즐겁다, 민요 메들리 양산도-밀양아리랑-흥타령'
척 맨지오니/산체스의 아이들
• 지휘/윤강수

아지무스오페라단 제30회 정기공연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일 시 | 10월 13일-15일 월-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아지무스오페라단 070-7522-4649



전문예술법인 아지무스 오페라단의 제30회 정기공연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1816년 로시니가 작곡하고 소테르비니가 이탈리아어로 대본을 쓴 코믹 오페라로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다.

- 기획, 총감독/손욱
- 지휘/정금련
- 음악감독/서명보
- 연출/안호원
- 피아노/강지원, 하영하

[출연]

테너 임충진, 임명규, 김지현(이상 알마비바 백작), 소프라노 장은영, 양근화, 박나래(이상 로지나), 바리톤 정승화, 오세민, 윤오건(이상 피가로), 바르톨로 베이스 권영기, 이철훈(이상 바르톨로), 베이스 최현욱, 양종근(이상 바질리오) 외

2014 부산국제합창제 10주년 기념 전야부산대합창

일 시 |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한국합창조직위원회 622-0534

부산국제합창제 10주년을 기념하는 전야대합창 음악회. 오충근이 지휘하는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부산대학교 김정권 교수의 협연, 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과 글로리콰이어, 노엘합창단, 부산코러스, 부산하모니 등으로 꾸며진 축제합창단이 들려주는 500여명의 대합창이 울려 퍼진다. 피아니스트 김정권은 미국 뉴욕콘서트리뷰(New York Concert Review)를 통해 '모든 곡을 마치듯 창조되었다시피 온전히 새롭고 현대적으로 들리게 만드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생각 깊은 음악가'라는 찬사를 받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다.

[프로그램]

이영조/10주년 위촉창작곡
베토벤/교향곡 제9번 '합창' 그리고 코랄 판타지
• 지휘/오충근
• 피아노/김정권
• 소프라노/김유섬 • 알토/정옥심
• 테너/김지호 • 베이스/박대용
• 연합합창단/부산시립합창단, 김해시립합창단, 부산국제합창단

명예회장 제갈삼 교수님 구순(九旬) 기념 제48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6일-17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010-8524-7913

부산 1세대 음악인의 마지막 생존자라 할 수 있는 제갈삼(諸葛森) 교수의 구순을 기념하는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정기연주회. 1952년에故 이상근 제1회 작곡발표회에서 독주, 반주를 맡은 바 있는 제갈삼은 1955년부터 줄곧 부산에서 활동하며 부산여중, 경남여고 교사를 거쳐서 부산교육대학,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예술대학 교수를 재직하다 1991년에 정년퇴임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16일 후배 연주자들의 듀오 무대, 17일 제갈삼(諸葛森) 교수와 역대 듀오협회 회장으로 활동한 나광자, 차미소란, 권혜령, 김지령, 최윤희, 조현선, 제갈삼 교수의 제자인 정소연, 이화영선이 특별한 무대를 펼친다.

- 연주/이성애-이현욱, 김다정-윤민영, 정민경-김민정, 김성희-한상민, 신정자-김영실, 손영주-정지영(이상 16일)
- 나광자, 차미소란, 권혜령, 김지령, 최윤희, 조현선, 정소연, 이화영선(이상 17일)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The Permanent Way : 철로

일 시 | 10월 16일-23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청소년 50% 할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51



지난 5월 전석 매진 기록을 세운 '안네의 일기'에 이어 부산시립극단이 새롭게 준비한 제51회 정기공연 'The Permanent Way: 철로'. 2000년 10월 18일 영국 잉글랜드 동남부, Hertfordshire 주(州) 중부의 소도시 해트필드(Hatfield)에서 일어난 열차사고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민영화로 인한 민간기업의 예산절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배경으로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유가족, 사고를 겪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 원작/데이빗 헤어
- 연출/김지용(동의대학교 교수)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피가로의 결혼'

일 시 |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오페라 전곡을 대형 세트를 배제하고 콘서트 형식으로 구성, 음악적 즐거움을 선사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다섯 번째 무대 '피가로의 결혼'.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가 지휘하고 부산과 중국의 성악가들이 함께 꾸미는 이번 무대는 음악적인 레치타티보, 매혹적인 아리아, 세련된 앙상블, 창의적인 관현악법 등을 특징으로 고전주의 시대뿐 아니라 오페라 역사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모차르트 오페라의 매력을 만날 수 있다.

- 지휘, 연출/리 신차오
- 조연출/정병희
- 오페라 코치, 챔발로/손소향

[출연]

바리톤 이태영, 소프라노 양지영, 바리톤 왕동준, 소프라노 송 위엔밍, 메조 소프라노 김수현, 베이스 양재원, 메조 소프라노 성미진, 테너 이은민, 테너 한우인, 베이스 손상혁, 소프라노 강태경

프로그램
가이드

슈투트가르트 체임버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일 시 |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브라운 02-2055-1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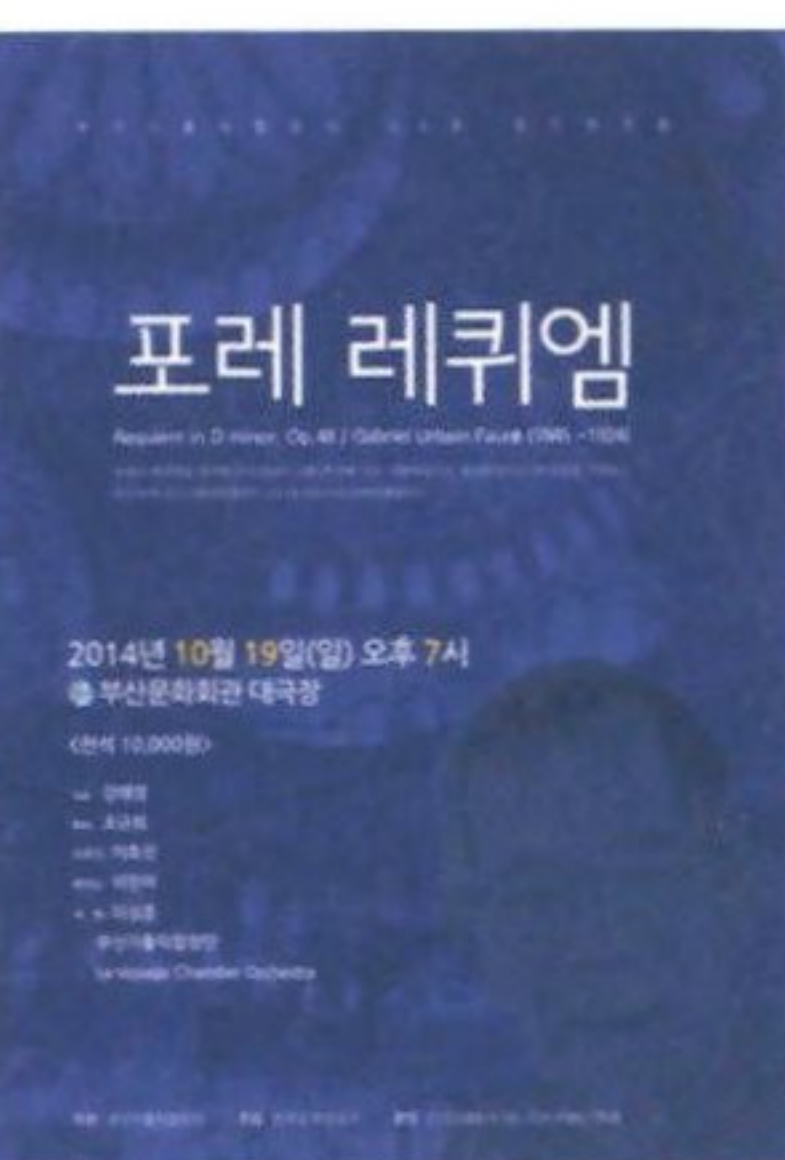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역사와 함께 68년의 전통을 지켜온 세계 정상급 실내악단 독일 슈투트가르트 체임버오케스트라의 부산연주회.
음악감독 마티아스 뢰니(Mattias Foremny)가 이끌고 있는 체임버오케스트라의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슈투트가르트 체임버오케스트라의 특별한 요청으로 지휘자 이병욱이 지휘하고, 유럽에서 주목받는 젊은 피아니스트 올라 슈켄스와 한국의 첼리스트 이윤택이 협연자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1945년 결성된 슈투트가르트 체임버오케스트라는 섬세한 테크닉과 탁월한 사운드를 보유한 유러피안 멤버들 및 객원 연주자를 포함하여 약 20여 명의 최정예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바장조 KV138
쇼팽/피아노협주곡 제 1번 마단조
차이코프스키/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48
• 지휘/이병욱(인제대학교 교수)
• 협연/올가 셰프스(피아니스트)

제36회 부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포레 레퀴엠'

일 시 |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지윤 010-5060-4744



1982년 부산교구 연합성가대로 창단된 부산가톨릭합창단의 제36회 정기연주회.

그동안 다양한 음악회를 통해 종교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온 부산가톨릭합창단이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5주기를

맞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의 마음으로 '포레 레퀴엠'을 들려준다.

가브리엘 포레의 레퀴엠은 가곡을 연상시키는 아름답고 표정적이고, 화성적 미묘함과 표현적 다양성, 맑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 지휘/이성훈
- 출연/소프라노 강혜정, 베이스 조규희, 오르간 이효진, 피아노 이민아
- 연주/Le Voyage Chamber Orchestra

2014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510-1737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2014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정기연주회.

박성완이 지휘하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오케스트라가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는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지혜정/Chased for Orchestra (오케스트라를 위한 추격)

코플랜드/클라리넷과 현을 위한 협주곡
헨델/오페라 '세르세' 중 '그리운 나무그늘이여'
쇼스타코비치/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다단조
베를리오즈/환상 교향곡 등 수곡

- 지휘/박성완
- 클라리넷/차호철
- 바리톤/최범석
- 작곡/지혜정
- 피아노/정선아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VI 해설이 있어 재미있는 오페라 팔리아치(Pagliacci)

일 시 |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오케스트라 사무국 070-7727-0188

(사)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여섯 번째 이야기 '팔리아치'.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함께 베리스모(사실주의) 오페라의 대표작이자 레온카발로의 유일한 성공작인 '팔리아치'는 1860년대 후반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지방의 몬탈로에서 실제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복수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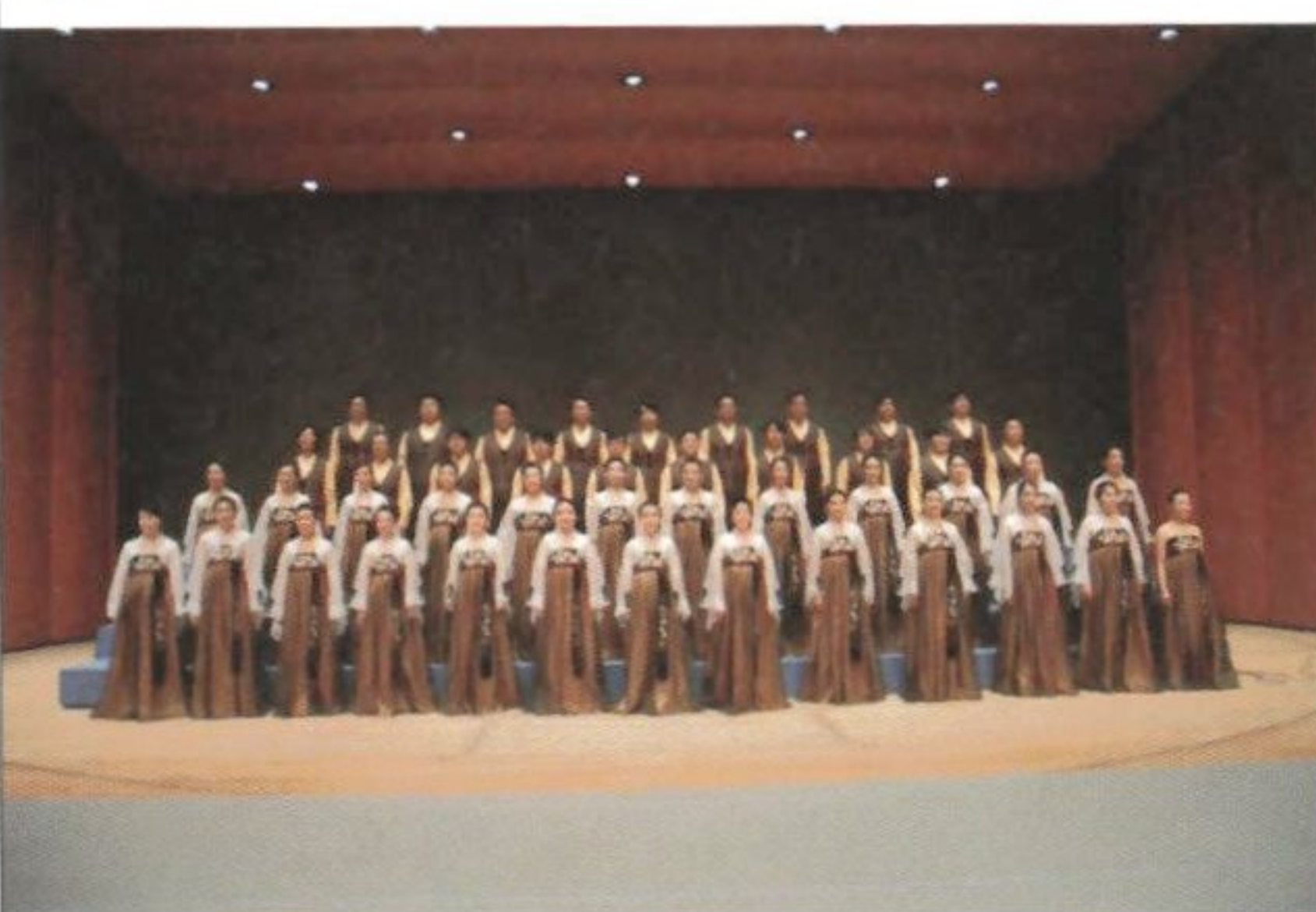
- 지휘, 해설/김병수
- 출연/테너 김지호, 소프라노 김유진, 바리톤 박대웅, 바리톤 강경원, 테너 최용준



제27회 부산합창제

일 시 | 10월 22일-24일 수-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합창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펼치는 제27회 부산합창제. 2012년 18개 팀, 2013년 26개 팀이 참가한데 이어 올해는 부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한 총 31개 팀이 합창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전해준다.

[일정]

- 22일(수) 오후 7:30
신라 시니어스 콰이어(지휘/이은정)
홍법사 청솔합창단(지휘/이연화)
목련합창단(지휘/오동주)
우담바라 합창단(지휘/박윤규)
한울림 합창단(지휘/김창돈)

청라합창단(지휘/이득수)
해운대 센텀합창단(지휘/이철성)
부산광역시 공무원합창단(지휘/오동주)
해운대 소리 합창단(지휘/김진영)
부산 콘서트 콰이어(지휘/전상철)

■ 23일(목) 오후 7:30

경남여고 수정합창단(지휘/조익래)
부산어울림 합창단(지휘/이일형)
사하드림합창단(지휘/이정철)
나눔애 사랑 합창단(지휘/이은정)
범어사 합창단(지휘/배천중)
예그린 합창단(지휘/손옥)
용마 합창단(지휘/이철수)
글로벌 콰이어(지휘/이정철)
갈멜 합창단(지휘/구영립)
벨라 보체 합창단(지휘/조현수)
부산 브라보 아버지 합창단(지휘/이성훈)

■ 24일(금) 오후 7:30

부산CBS 합창단(지휘/이외균)
중구 시니어스 콰이어(지휘/이은정)
거제 무지개 합창단(지휘/최인숙)
예그리나 합창단(지휘/오세종)
뮤즈콘서트 콰이어(지휘/김태호)
부산은파합창단(지휘/이홍길)
현대 나르시어 합창단(지휘/이경선)
남부산농협 청솔 합창단(지휘/강학윤)
메디 코러스(지휘/이수정)
부산시립합창단(지휘/오세종)

김현정 플루트독주회 -크로스오버의 향연

일 시 | 10월 22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내담프로덕션 010-3556-7308

...



영국 런던음악대학 대학원 연주 학 석사 졸업 후 ABRSM Teaching Diploma(영국왕립협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Susan Milank, Pual Edmund Davies, Margaret Campbell, William Bennett 등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하며 음악의 폭을

넓혀온 플루티스트 김현정의 크로스오버 무대. 김현정은 런던에서 수회 독주회를 비롯 London Ealing Flute Academy 단원으로 많은 실내악 활동을 펼쳤다.

[프로그램]

Crossover Flute & Gayageum/사랑의 춤, 강 마을, G선상의 아리아
슈베르트/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도플러/헝가리안 전원환상곡
• 가야금/황가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4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 시리즈 III 프랑스 오페라

일 시 | 10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2014년 다양한 오페라 속의 관현악곡들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 시리즈 세 번째 무대 '프랑스 오페라'. 아리아가 중심인 이탈리아 오페라와 달리 관현악을 중요시하며 프랑스 전통 발레 및 스펙터클한 장면들을 사용하여 그랜드 오페라라 불리는 다양한 프랑스 오페라 작품들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정준화가 협연하는 프랑스의 고난이도 '클라리넷 협주곡'과 바이올리니스트 조현미와 비올리스트 노현석이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협주교향곡을 통해 협주작품의 다양함과 비르투오소적인 명연주를 함께 들려준다.

[프로그램]

프랑세/클라리넷 협주곡
베를리오즈/트로이 사람들 중 '발레 음악'
모차르트/협주 교향곡 등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조현미(신라대학교 교수), 노현석(한국 바흐 솔리스트 서울 오케스트라 수석), 정준화(클라리넷)

프리모칸탄테 창단연주회

일 시 |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프리모칸탄테 010-2567-3994

...

솔로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테너 서명보, 임성규, 최광현, 바리톤 조성빈, 한정현, 베이스 최현욱, 피아니스트 강지원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프리모칸탄테의 창단 연주회.

남성의 중후한 음색의 화음으로 청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초 창단된 프리모칸탄테는 앞으로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청중들과 만날 계획이다.

[프로그램]

포스터 가곡 메들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lungi dal lei'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Largo al factotum' 등 수곡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2회 정기연주회 독도이야기

일 시 |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

1900년 10월 25일 고종이 지정한 독도의 날을 맞아 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주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독도이야기'.

특히 이번 무대는 (사)한·중 우호협회 회장,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회 회장, 한국동요작사작곡가협회 회장, 부산아동문학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아동문학가인 선용의 독도 관련 시에 부산의 작곡가들이 곡을 붙인 다양한 창작곡들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신진수/독도의 사계
이문주/독도해넘이
이문주/왜 녀봐, 강치야 돌아와, 독도와 나비, 독도 아리랑 등 수곡



김문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



부산대학교와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Ann Arbor)에 실기 수석으로 입학하여 전액 장학금과 Edward Frolich Fellowship을 수여받으며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한 김문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파워풀하고 감각적인 연주로 극찬받고 있는 김문경은 일찍이 국내 재학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부산원로음악가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신인 음악상 우수상 수상, 부산음악협회, 부산듀오음악협회에서 주최한 다수의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을 하였으며 최근 American Protégé Piano Competition에서 2위에 입상하는 등 그 재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환상곡 K.475(1785)
브람스/환상곡 작품116(1892)
거쉬인/전주곡
코플랜드/로데오 모음곡(194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차르트 연주의 진수를 만나다! 잘츠부르크 솔리스트 오케스트라

일 시 |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



정통파 유럽음악의 자존심, 잘츠부르크 솔리스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모차르트 음악의 진수. 2005년 챔발리스트 안드레아스 슈타이너에 의해 창단된 잘츠부르크 솔리스트 오케스트라는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모차

르테움 오케스트라 등 잘츠부르크와 뮌헨 지역의 주요 연주자들로 구성된 1급 오케스트라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41개의 세계 콩쿠르에 입상한 부산출신의 재독 피아니스트 황성훈과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김경희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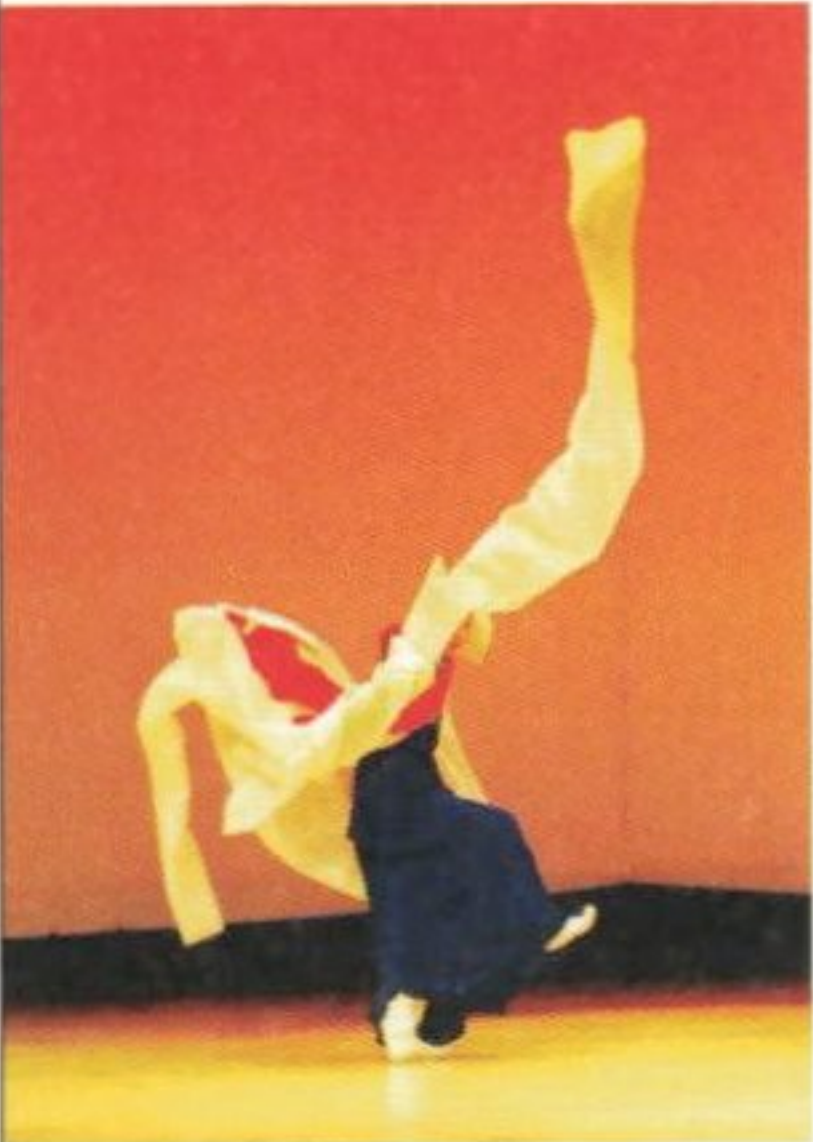
모차르트/티토황제의 자비, 피아노협주곡 제27번, 춤춰라, 노래하라 나의 영혼이여 K.165, 교향곡 제35번 '하프너'

프로그램
가이드

양태순의 춤

일 시 |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양태순 010-9060-8623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인 한국 전통무용의 거목 이매방 선생으로부터 승무와 살풀이를 배운 토박이 부산 춤꾼 양태순의 춤.

승무 이수자이자 살풀이 전수자로 지난 45년간 우리 춤의 맥을 이어온 양태

순이 이번 무대를 통해 다채로운 무용과 악기, 판소리가 어우러지는 신명난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상고무, 악기, 살풀이, 태평무, 판소리, 승무, 북퍼포먼스

제1회 부산창작음악축제 2014 부산작편곡음악제

일 시 |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2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음악협회 634-1295

...

순수 창작곡과 다른 음악적 감동을 주는 편곡 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부산음악협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2014 부산편곡음악제. 동요, 민요, 가요, 가곡을 새롭게 편곡한 곡들을 실내악, 독창, 중창 등 다양한 편성으로 들려준다.

■ 27일(월) 오후 7:30 소극장

[프로그램]

박봉렬/그 사람

김국진/피아노 산조 제5번

강안나/클라리넷, 첼로, 피아노를 위한 독주

김수진/시선(視線) 등 수곡

■ 28일(화) 오후 7:30 대극장

[프로그램]

이옥영/새노래 교향곡(Symphony New Song) '아리랑 주제에 의한 새노래로 주께 찬양'

김보현/Elegy for Soprano, computer and Orchestra

김성덕/교향시 '멋지고 아름다운 부산'

최인식/관현악과 영상을 위한 '변주곡 : 태극아리랑3' 박규동/교향적 그림 '오륙도'

제38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노페스티벌

일 시 | 10월 27일-28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010-4391-1106

...

부산지역 피아니스트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의 제38회 피아노 페스티벌.

2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는 이번 연주회는 첫째 날 '현대음악의 밤', 둘째날 '솔로와 듀오의 밤'으로 구성,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피아노 음악을 들려준다.

제1일 27일(월) 현대작곡가의 밤

[프로그램]

무진스키/6개의 프렐류드 작품6

루이스/장고

이상근/파랑새 변주곡 등 수곡

•연주/조은주, 박선미, 배수정, 김해옥, 황정미, 최민경, 임효진, 심정연, 안준희

제2일 28일(화) 솔로와 듀오의 밤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다장조 Hob16:48

발라키레프/이슬라메이(동양적 판타지)

보로딘/오페라 '이그르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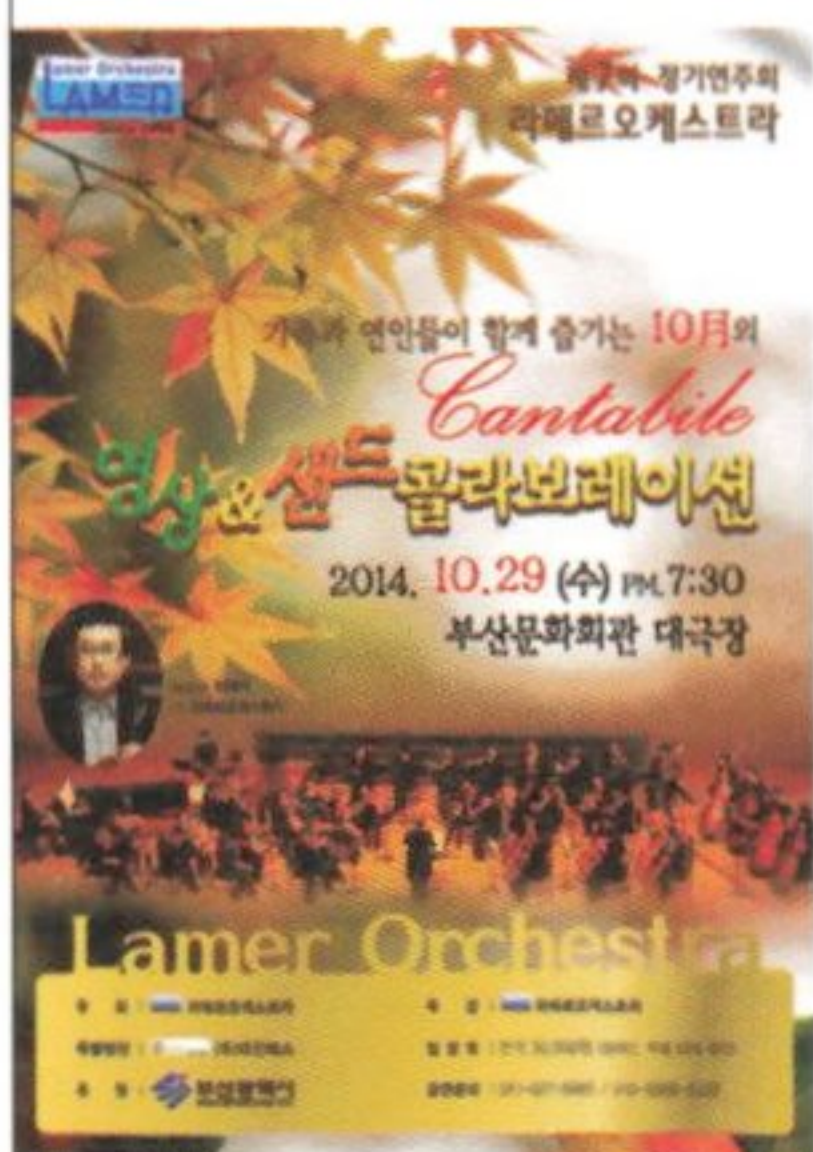
•연주/차미령, 전숙영, 김미현, 김민정, 김선영, 하승경, 이은정, 김소형, 최지은, 정년경, 이경옥

라메르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장애우, 학생 50% 할인)
문 의 | 라메르오케스트라

627-5665, 010-5566-5332

...



클래식, 크로스오버, 팝 등 다양한 음악회를 통하여 시민들과 소통해온 라메르오케스트라의 제7회 정기연주회.

1998년 창단된 라메르오케스트라는 그동안 청소년 음악교육 및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음악회, 초청 공연, 기획공연, 정기연주

회 등으로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 노력해온 부산광역시 비영리예술단체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즐기는 가을향기 가득 담은 영상 & 샌드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스트라우스/박쥐 서곡

레하르/금과 은 왈츠

베버/무도회의 권유

마스카니/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까나' 중 간주곡 바흐/예수는 인류의 소망, 기쁨 되시니 등 수곡

•예술총감독/이재석

제25회 대학무용제

일 시 |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대학무용진흥회 517-0906

...

대학생다운 참신하고 실험적인 창작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25회 대학무용제.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경성대학교 무용학도들이 신선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부산대학교 '네 젖은 날개를 위한 바람이고져'(안무/공동안무)

부산대학교 '리바야데르' 중 (안무/황선미)

경성대학교 '소음전쟁'(안무/고아름, 송민지)

신라대학교 '비에 씻다'(안무/류은미)

경성대학교 '내 안에서 번진다'(안무/김보영, 조예령)

신라대학교 '안개인간'(안무/최지영)

신라대학교 '틈과 틈'(안무/최영지)

부산대학교 '아마도'(안무/장지은)

경성대학교 '지지않는 꽃'(안무/심소민)



제32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510-1739

...

우리의 삶과 함께해온 우리 음악의 전승·보급을 위해 노력해온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국악도들이 들려주는 제32회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정기연주회.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 음악의 생명줄을 오늘의 음악으로 이어가려는 고민, 그들의 열정이 담긴 다양한 창작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꿈의 전설

이준호/소금협주곡 '길'

황의중/18현 가야금 협주곡 '우리의 춤'

최경만/태평소협주곡 '호적풍류'

이지영/효원찬가(임종찬 작사, 위촉초연)

이정호/모듬북협주곡 'STORM'

•지휘/배양현(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협연/강원집(소금), 전민경(가야금), 박태영(태평소), 김보연, 권두술(타악)

•연주/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Program Guide >>

이슬라의 춤

일 시 |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이슬라 010-8521-0556

...



신라대학교를 졸업하고 제 주도립무용단 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이슬라의 전통춤 한마당.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용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슬라는 그동안 장인숙의 전통춤 공연을 비롯해 춤 안무가전 페스티벌, 비나리 등 다양한 무대에서 우리 춤의 맥을 이어왔다. 이번 무대는 1부 전통, 2부 창작으로 꾸며진다.

[프로그램]

승무(춤/이슬라)
태평무(춤/김송이)
살풀이(춤/이슬라)
한량무(춤/이광호)
산조(춤/이슬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4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심포니V

일 시 |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깊어가는 가을 특유의 운치를 더해줄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4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심포니V'. 수석지휘자 리신차오의 지휘, 독일 함부르크 음대 교수로 재직중인 올리버 케른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목관, 금관, 타악기가 함께 대편성으로 어우러져 고난과 역압을 극복한 승리와 환희의 전율을 넘치는 사운드와 혁명적 느낌의 장대한 선율이 압권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쇼스타코비치 심포니V에 앞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들려줄 올리버 케른은 세니갈리아, 하마마츠, 베이징, 파리 등 수많은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수상과 더불어, 1999년 뮌헨 'ARD' 어워드 및 2001년 비엔나 '베토벤' 어워드 등 정상급 대회에서 우승하며, 평론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3번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5번

- 지휘/리 신차오
- 피아노/올리버 케른

극단새벽 창단 30주년, 갑오농민항쟁 120주년에 부치는 발림(몸짓)극 '새야 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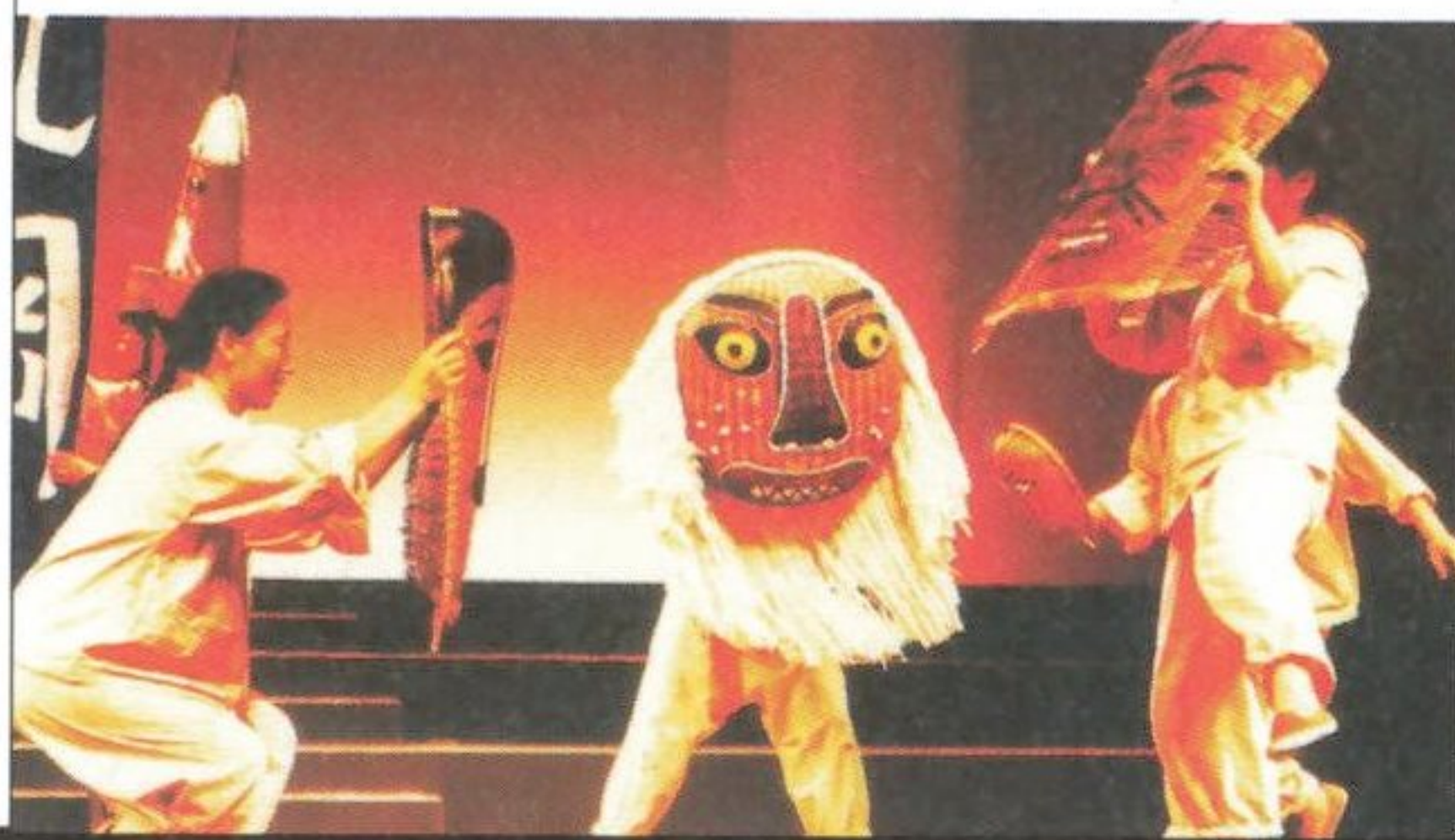
일 시 |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8:00,
11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극단새벽 기획제작실
245-5919, 010-2570-9634

...

'삶의 연극화, 역사의 연극화'를 모토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극단 새벽이 창단 30주년 기념공연으로 선보이는 발림(몸짓)극 '새야 매야'.

음악과 다양한 탈 등을 매개로 한 춤과 몸짓이 어우러지는 비언어연극 '새야 매야'는 1994년 서울과 부산, 일본 교토, 오사카, 고베 3개 지역 순회 공연, 1999년 일본 하구루마좌예술회관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연극인페스티벌 참가작으로 상연되어 큰 감동을 전한 바 있다.

- 구성, 연출/이성민
- 탈 제작/박남희
- 출연/유미희, 변현주, 이현식, 전상미, 박정아 외



김수진 작곡발표회 'M을 찾아서'

일 시 |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수진 759-7731, 010-4550-1299

...



신라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 Russian Khabarovsk Institute of Art and Culture 석사, Russian Far-Eastern State Academy of the Fine Arts 박사(DMA)과정을 졸업하고 부산작곡가협회, 향신회, 창작합창 21 등 작곡단체 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수진의 작곡발표회.

제1회 PBC부산평화방송기틀릭성가제

일 시 | 11월 1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pbc부산평화방송 600-8811~3

...

pbc 부산평화방송이 한국 천주교회의 큰 축복, 윤지중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을 축하하고, 천주교 부산교구의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 시복을 기념하는 성가제.

토요상설무대

일 시 | 9월 13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공연 30분 전 입장, 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10월 4일

이은혜 첫 번째 민요발표회 '타령, 고개'

...

[프로그램]



휘모리잡가 중 '육칠월' 신고산타령, 궁초대기, 나나나타령 정선아라리, 건드령타령, 양구 열레지타령 춤과 이별가, 한오백년, 아리랑 연곡 노랫가락, 창부타령

• 대표/이은혜(국립부산국악단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 연주/한영길(대금), 이종철(피리), 황한나(해금, 피아노), 하지희(가야금), 정선겸(아쟁), 윤승환(장구), 김태현(타악), 황진삼, 박성규(부산풍물패), 차민영(피아노), 김소연(해금)

10월 11일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

[프로그램]

동래학춤(출연/이정식)
검무(출연/김주연), 입춤(출연/최의옥)
산조'어화둥둥 내사랑' (출연/장래훈, 서정연)
농(弄)(출연/김진영), 한량무(출연/박상용, 허태성)
오고무(출연/이현정, 박창희, 김경미)
• 안무, 구성/홍경희(예술감독)

10월 25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대취타(등채/김수일 · 태평소/진형준, 박순자 · 나각/황두호, 이경희 · 나발/손한별, 최재호 · 용고/최영훈, 김혜진 · 자바라/강상호, 송다솔 외)
거문고 산조 '한갑득 류'(거문고/강상호 · 장구/이장우)
대풍류(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배현지 · 해금/방병원 · 장구/송강수 · 좌고/이경희)
생·황, 단소, 양금 중주 '수룡음'(생황/강영현 · 단소/조은경 · 양금/장미진)
흥겨운 민요 한마당(민요/박성희, 정선희 · 대금/손한별 · 피리/정주아 · 해금/강민정 · 아쟁/박일)
가야금/윤경선 · 거문고/전혜정 · 장구/송강수)
설장구 놀이(설장구/전학수, 이주현, 최오성, 박재현)
• 해설/전현진

음악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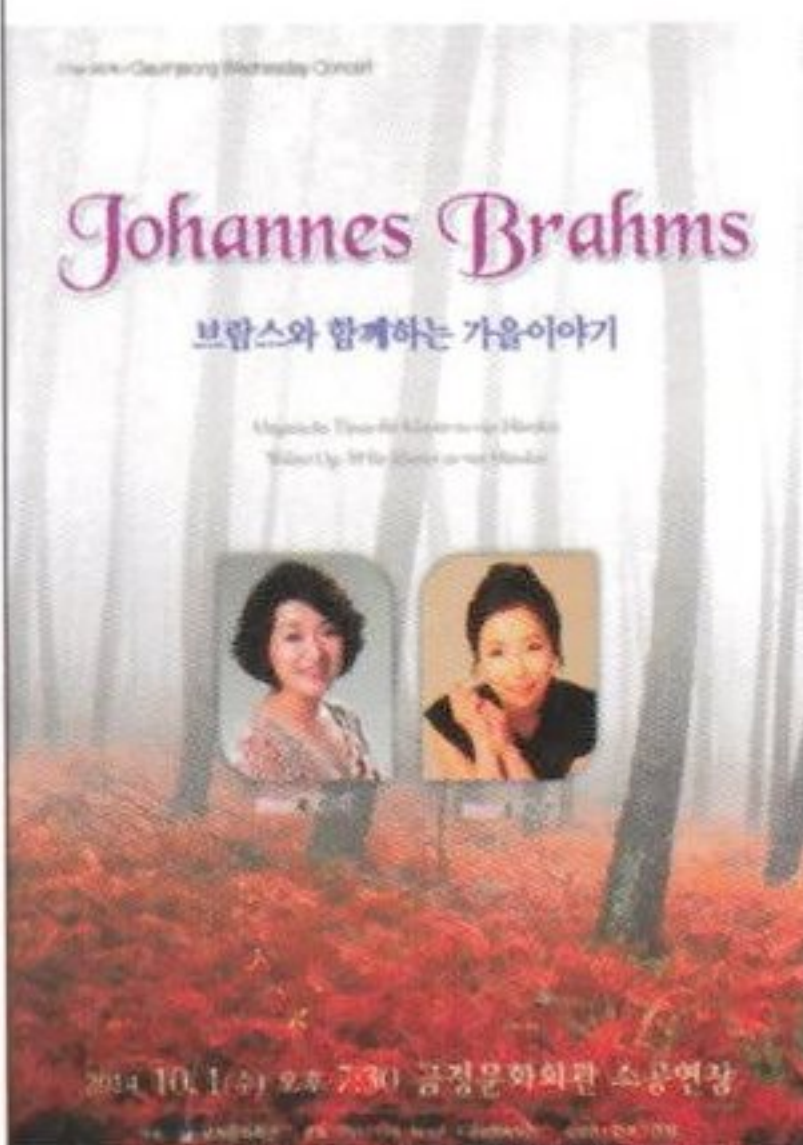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

1일 브람스와 함께하는 가을이야기



경성대학교 교수,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회장,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고문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황정미와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송지은의 앙상블로 들려주는 브람스와 함께하는 가을이야기.

8일 해설이 있는 20세기 현대음악의 밤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윤선기와 동의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소프라노 강소영이 들려주는 20세기 현대음악의 밤.

A. 라이만, 번스타인, 장 프랑세, K. 웨일, 브리튼 등 20세기 작곡가들의 성악곡을 들려준다.

15일 한·일 교류음악회 '멜로디 인 로맨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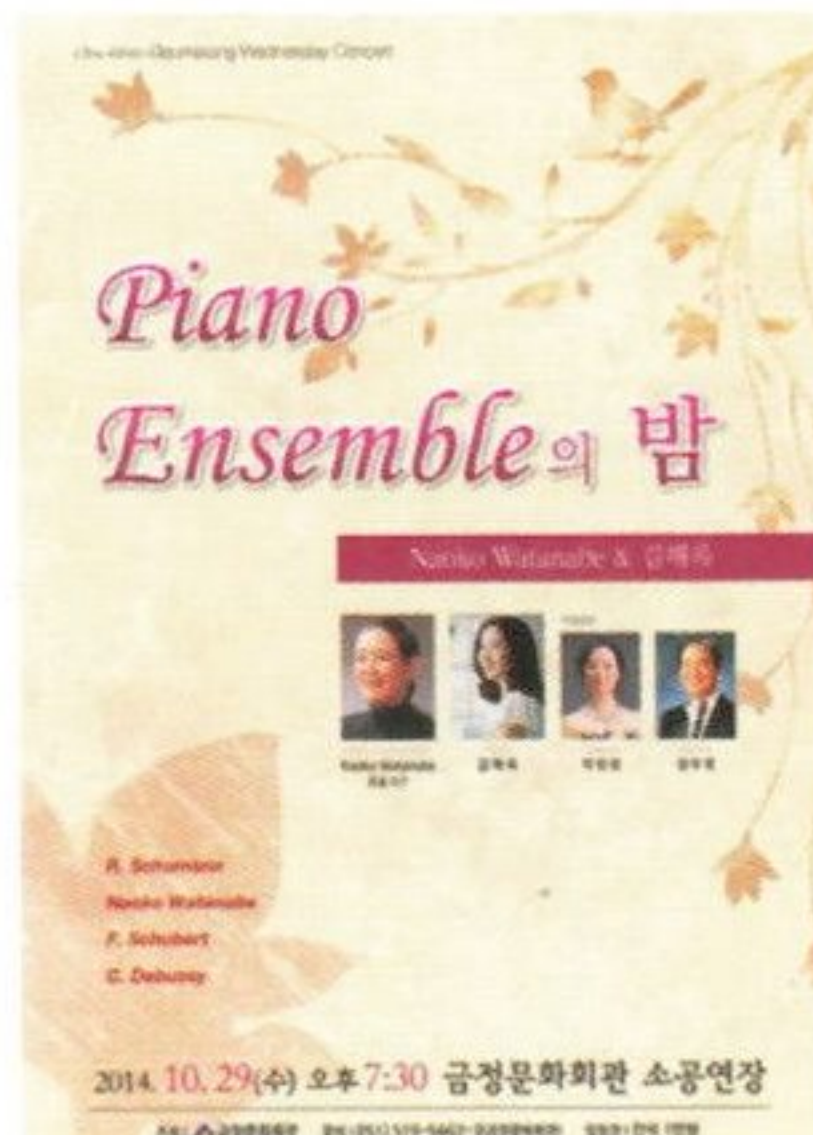
파리 국제실내악콩쿠르 3위, 루마니아 국제플루트콩쿠르 2위, 일본 플루트컨벤션콩쿠르 1위, 프랑스 아르르 국제실내악콩쿠르 1위, 이탈리아 '시링크스' 국제플루트콩쿠르 1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플루티스트 타시바나 치하루와 부산나눔플루트소사이어티 멤버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성기업, 부산대학교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윈스터 국립음대,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필은이 함께하는 한·일 교류음악회.

• 게스트/플루티스트 황미리

22일 소프라노 최훈녀 교수의 Liederabend

서울대학교 성악과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최훈녀의 '가곡의 밤'.

29일 피아노 앙상블의 밤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나오코 와타나베와 신라대학교 음악학과와 오스트리아 비엔나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해옥이 들려주는 피아노 앙상블의 밤.

조윤경 해금 독주회 '編(편)'

일 시 | 10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조윤경 010-8700-5465

...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단원, 해금연구회 회원, 중요무형문화제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해금주자 조은경의 세 번째 독주회. 한양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조윤경은 한양대학교 주

국악콩쿠르 해금부문 2위, 천안삼거리 주최 전국국악경연대회 기악부문 은상, 제13회 정읍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입상, 제17회 학생음협콩쿠르 해금부문 2위, 제27회 국립국악원 주최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해금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謠'요-이현으로 엮다(구성, 해금/조윤경, 가야금/김현승, 타악/이진희)

김영재류 해금산조-調를 엮다(해금/조윤경, 장구/김용하)

제35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An Evening of Piano Du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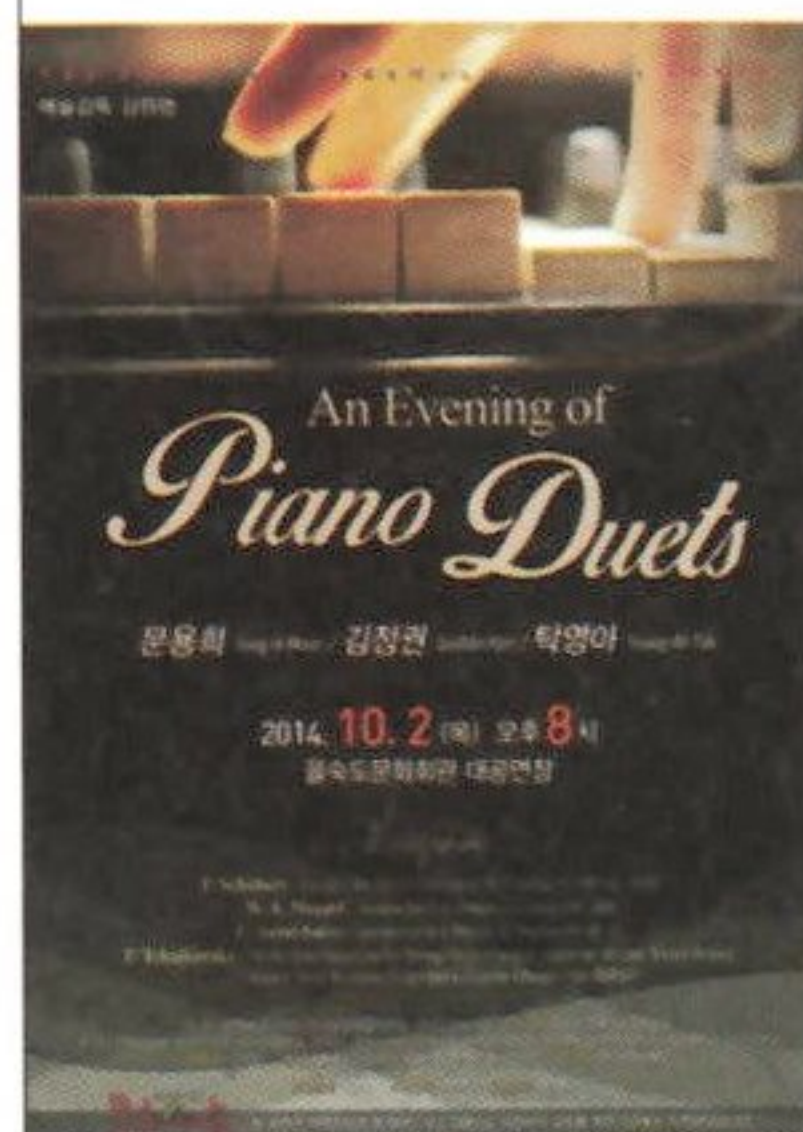
일 시 | 10월 2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



국내외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10월 무대.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권과 미국 피바디음대 교수로 있는

문용희, 미국 사우스이스턴대학 Artist-in-Residence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펼치는 피아노 듀오 무대로, 슈베르트와 모차르트, 생상, 차이코프스키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네손을 위한 환타지 바단조 D.940
모차르트/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
생상/베토벤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5 등

• 예술감독/김원명

Space UM '차가 있는 음악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균일 1만원(음료 포함)

문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

2일 박현영 첼로 독주회 '가을의 향기'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뉘른베르크음대(KA 과정), 미국 보스턴음대 대학원, 마이애미대학교 박사학위(DMA)를 취득하고 현재 경남챔버소사이어티 멤버, 코리아 드림 신포니에타 음악감독으로 있는 첼리스트 박현영 독주회.

[프로그램]

멘델스존/협주적 변주곡 작품 17
사뮤엘 바버/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6
R. 스트라우스/첼로소나타 바장조 작품 6

• 피아노/오유리

9일 하지림 재즈트리오

'청춘이기에, 나에겐 음악이 있다'

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과 베이스기타리스트 유경훈, 드러머 김진훈으로 구성된 하지림 재즈트리오의 무대.

16일 플루티스트 타시바나 치하루 & Friends
콘서트 '가을을 노래하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에꼴 노르말 음악원, H.베를리오즈 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플루티스트 타시바나 치하루와 음악친구들이 함께 마련하는 무대.

• 연주/타치바나 치하루(플루트), 박필은(피아노), 성기업, 황미리(플루트), 이영주(바이올린), 현리사(첼로)

23일 클라리네티스트 이현진 '사랑을 꿈꾸는 여인'



현재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클라리넷과 이어, 부산심포닉밴드 단원으로 활동 중인 클라리네티스트 이현진의 무대. 슈만의 클라리넷 환타지 등 사랑을 꿈꾸는 기악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을 들려준다.

30일 이은정 & 최윤경 & 김성희

'건반들의 수다; 1Piano 6Hands'

동의소사이어티 멤버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이은정, 최윤경, 김성희가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Program Guide >>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1

7일 원로 예술인 초청공연 '김은경, 청화 춤 꽃이 되다'



신라대학교 교수, (사)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 지회장,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예능보유자로 우리춤의 맥을 잇고 있는 김은경 초청 무대. 김은경은 제39회 부산광역시 문화상, 제5회 부산

예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동래고무, 동래입춤, 강태홍류 산조춤, 태극무, 문동탈춤

•악사/팽과리 김태형, 장구 이치중, 대금 손인식, 북 공정희, 구름 강은미

14일 안민진의 춤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전수자, 국립부산국

악원 단원으로 있는 춤꾼 안민진의 무대.

|프로그램|

춘앵전, 검기무, 살풀이춤, 선비춤, 산조춤, 사물놀이와 소고춤

21일 현미의 소리...길



제14회 박동진 명창, 명고대회 명창부 대통령상, 제16회 KBS국악대경연 판소리부분 장원, 제16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을 수상하고 현재 전남무형문화재 제29호 동편제 춘향가 보유자,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멤버로 활동 중인 소리꾼 현미의 무대.

•고수/김태영

•객원출연/유영애(소리), 이영섭(대금), 신재현(아쟁), 이서윤(무용), 양명호(베이스 기타)

28일 김준희 해금 독주회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Contemporary Music Band 567 동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해금주자 김준희 독주회.

•해설/정은경

제5회 황지원의 테마콘서트

Song of Love

일 시 | 10월 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황지원 010-4547-369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대행, 라무지가 앙상블 리더, 토리스 하우스콘서트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의 테마콘서트.

황지원은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황지원의 테마콘서트'라는 형식으로 꾸준히 독주회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드보르작/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낭만적 소품 작품 75

그리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바장조 작품 8

요제프 수크/Love song 작품 7-1

그리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사장조 작품 13

심어라 첼로 독주회

일 시 | 10월 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중앙음악학교 차이코프스키 학교와 모스크바 국립차이코프스키음악원 학, 석사 및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심포니에타, BCO, 코리아솔로이츠 부수석, 소블리스 트리오, OPUS 앙상블, 라퓨즈 필하모니아 단원으로 활동 중인 첼

리스트 심어라 독주회.

심어라는 그동안 노보시비르스트 시립교향악단, 모스크바 볼쇼이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무대를 비롯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Marin Marais/Les folies d'Espagne

베토벤/첼로 소나타 제1번 사장조 작품 5

브람스/첼로 소나타 제1번 마단조 작품 38

부산광역시 원로음악가회 제16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원로음악가회 010-3122-3970



부산광역시 원로음악가회 정기연주회

척박했던 부산지역의 클래식 음악발전을 위해 초석을 다져왔던 제1세대 원로 음악인들과 후배 음악인들이 함께 하는 부산광역시 원로음악가회의 16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김국진/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 '산수도'

최삼화/선용 詩에 의한 3편의 노래

치마로사/협주곡 사장조

쇼팽/녹턴 작품 15 제2번 등 수곡

•출연/최삼화(작곡), 고정화(피아노), 전이순(소프라노), 엄덕희(피아노), 이문숙(피아노), 이민희(소프라노), 김성희(피아노), 박찬엽(플루트), 장극태(플루트), 이주연(피아노), 조이트리오(피아노 유영욱, 바이올린 오근영, 첼로 정승리)

부산가야금연주단 '오정해 국악 향연'

일 시 | 10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를 단장으로 부산, 경남지역 가야금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가야금연주단의 무대.

지난 2005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난 부산가야금연주단

은 이번 무대에서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오정해와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판소리 명창 김소희의 직계 제자인 오정해는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및 동대학원,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영화감독 임권택의 '서편제'에서 소리꾼 송화 역으로 출연하면서 배우로 데뷔했다.

프로그램
가이드

제3회 을숙도 창작음악축제

일 시 | 10월 7일-10일 화-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

작곡모임 잉태, 부산작곡가회, 향천회, 부산전자음악협회 등 부산지역 4개 작곡단체가 마련하는 제3회 을숙도 창작음악축제.

8일 작곡모임 잉태 '합창&가곡'

- 작곡/권오철, 최석태, 백승태, 송필석, 홍기영, 이영주, 문지은, 박주희, 김지만, 구영립, 김인철

9일 한국작곡가회 '실내악의 밤'

- 작곡/김국진, 김종덕, 이승임, 황장수, 김진우, 박이제, 김형주, 김수정, 김성광, 태미, 정부기

10일 향천회 '트럼본&바이올린, 피아노'

- 작곡/전옥용, 윤소정, 박지혜, 박주희, 최석태, 백승태, 정원상, 김호준, 허크 호지

11일 부산전자음악협회 '반향(反響); Sonority'

- 작곡/박수훈, 박철홍, 강현숙, 주창근, 이상윤, 하기중, 이동관, 김한밀

한상민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0월 8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상민 010-6838-3256

...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전문 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 음악교육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한상민 독주회.

지난해 귀국독주회를 가진 바 있는 한상민은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 경성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니 챔버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프로젝트앙상블과의 협연무대를 비롯 MBC목요음악회, 국도아트홀 초청 대화가 있는 부산음악인의 밤, 독일 Schlose Albrechtsberg, 베베박물관, 헬레라우 초청연주, 드레스덴 시립병원 초청연주 등 다수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3번 다장조 작품 2-3
브람스/4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119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2014 토리스 하우스 콘서트

일 시 | 10월 12일(일), 26일(일) 오후 8:00

토리스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토리스 518-5060, 010-2520-5020

...

금정구 구서동에 자리한 핸드 드립 커피 전문점 토리스가 매월 둘째주,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하우스 콘서트.

12일 국악시리즈-박환영의 대금사랑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제45호 대금산조, 제72호 진도씻김굿 이수자이자 현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박환영 대금연주회.

28일 첼로 페스티벌-이동열

대구 MBC 오케스트라 부악장으로 활동 중인 첼리스트 이동열의 무대.



2014 부산국제합창제

일 시 | 10월 13일(월)-18일(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소향씨어터

문 의 | (재)한국합창조직위원회

622-0534, www.busanchoral.org

...

[주요일정]

14일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전야대합창 음악회

15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개막공연 '탈리스 스콜라즈'

16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경연부문 1 '아카펠라 앙상블 & 클래식 혼성'

16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갈라콘서트 1-안산시립합창단

17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경연부문 2 '클래식 동성 & 민속음악'

17일 오후 8:00 소향씨어터

갈라콘서트 2

- 출연/유스카이어 페로믹(체코), 보카 에루디타(인도네시아), 알레론 합창단(필리핀), 바르샤바 대학합창단(폴란드), UIS 대학합창단(콜롬비아), 청공고등학교 합창단(대만)

18일 오전 11:00 소향씨어터

경연부문 3 '청소년 경연 & 대상 결선 및 시상식'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서희태의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 10

일 시 |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



영화 속 음악을 비롯해 보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 폭넓은 클래식 레퍼토리를 들려주고 있는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10월 무대. 지휘자 서희태와 함께 영화의 감춰진 이야기를 토대로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보는 '서희태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 10번째 무대에서는

영화 '역린'의 감독 이재규 감독을 초청, 영화 '역린'의 제작 스토리와 이재규 감독이 연출한 드라마와 영화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본다.

[프로그램]

- 쇼스타코비치/왈츠 제2번
- 로시니/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 하이든/트럼펫 협주곡 등 수곡
- 진행/서희태
- 연주/금관5중주 with 드림

2014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제25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010-6770-3632

...

1989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후 그동안 정기연주회와 리코더 연수, 청소년 리코더 합주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리코더 음악의 저변 확대에 힘써온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에서부터 현대음악, 뮤지컬 넘버, OST 등 다양한 연주를 통해 리코더만의 매력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스벨링크/에코 판타지아

바흐/관현악 모음곡 중 '론도-부레-폴로네이즈-바디네리'

김광민/학교가는 길

하사이시 조/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중 '인생의 회전목마' 등 수곡

- 음악감독/이창욱
- 객원지휘/김영석
- 특별출연/소리놀이터 중창단
- 피아노/김유림
- 만돌린/박민순
- 타악기/이동수
- 콘트라베이스/이형성

제29회 동래문화회관 숲속의 열린음악회 비루투오조앙상블 초청연주회

일 시 |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부산권을 대표하는 실내악 연주단체로 사랑받고 있는 비루투오조앙상블 초청무대로 마련되는 동래문화회관 숲속의 열린음악회 10월 무대. 지난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에 의해 창단된 비루투오조앙상블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비루투오조'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연주실력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피아졸라/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
정희영/The Moment
모차르트/교향곡 제29번 가장조 KV 201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악장/백재진(동의대학교 교수)

첼리스트 정명화의 토크&콘서트

일 시 |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대한민국 최고의 첼리스트 정명화의 지나온 음악 인생을 엿 볼 수 있는 신개념 토크&콘서트.

1994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써온 정명화는 첼리스트 고봉인, 최완규, 주연선, 강승민 등 차세대 첼리스트들을

을 발굴했으며, 현재 대관령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무대에서 정명화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클래식 소품 연주와 함께 아나운서 윤영미와 유쾌한 대화를 나눈다.

[프로그램]

가스파르 카사도/사랑의 속삭임
드보르작/첼로 콘체르토 나단조 작품 104
라흐마니노프/첼로 소나타 사단조 작품 19
쇼/화려한 폴로네이즈 작품 3 등
• 진행/윤영미 • 피아노/황보영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 제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3천원
문의 | 심정자 010-3284-9428
이혜경 010-2881-5921

부산대학교 최정순 명예교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부산예술아카데미연구회의 7번째 정기연주회.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다양한 분야의 연주자들이 피아노 솔로 및 듀오를 중심으로 클래식 뿐만 아니라 귀에 익은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음악풍경 '우리가 몰랐던 플루트'

일 시 |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7:00
음악풍경 연주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음악풍경987-5005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을 꿈꾸는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이 마련하는 토크 콘서트.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프랑스 파리스범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Poissy 시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조성철 초청무대로 마련된다.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피아노 솔로 '마르코 테자'

일 시 |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7:00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입장료 | 후원금(사전예약)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www.goeunmuseum.kr

현재 국제피아노페스티벌인 Valdichiana in Concerto 예술감독이자 이태리 비첸차 Pedrollo 음악원 종신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마르코 테자 초청연주회.

유럽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등 명망 있는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가져온 마르코 테자는 1994년 스트라빈스키 챔버오케스트라를 설립, 수년간 이끌기도 했으며, 피아노 솔리스트이자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제4회 을숙도 소년소녀합창대축제

일 시 |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각 구별 소년소녀합창단이 참가하는 을숙도 소년소녀합창대축제 2014년 무대.

일파가야금합주단 제16회 정기연주회 韓·日 '絃의 祝祭' 네 번째

일 시 | 10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단체 10명 이상 30% 할인)
문의 | 일파가야금합주단
582-9119, 010-4544-5505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현악기인 가야금과 사미센 연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일파가야금합주단 '韓·日 絃의 祝祭' 네 번째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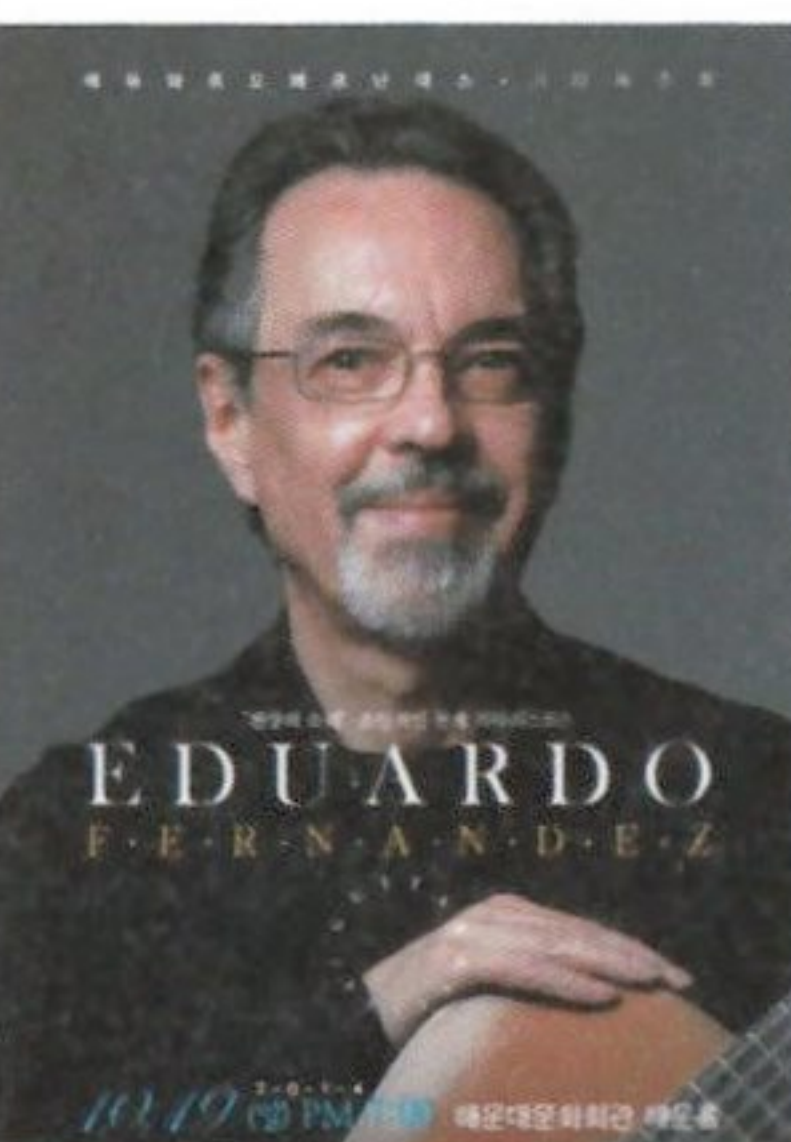
장혜숙 단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의 가야금연주자들로 구성된 일파가야금합주단은 지난 1996년 창단

후 정기연주회와 국내외 초청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전통음악 계승과 새로운 창작곡 발표, 악기개량사업 등 가야금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 단장/장혜숙 • 해설/장명화
• 사미센/카타오카 리사 • 피리/이종대
• 대금/박환영 • 클라리넷/손영채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 기타독주회

일 시 |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R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문의 | 코리아뮤지카 02-2272-6516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출신의 세계적인 천재 기타리스트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 부산연주회.

1971년 우루과이 기타콩쿠르 최우수상, 1972년 브라질 뽀르또 알레그레 기타콩쿠르 최우수상, 1973년 스페인 기타콩쿠르 그랑프리, 1975년 프

랑스 파리국제기타콩쿠르 최고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한 에두아르도 페르난데스는 현재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콘서바토리 교수로 있으며,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타레가/4개의 마주르카
소르/그랜드 솔로 작품 14
디오니시오 아구아도/El Fandango Variado 작품 16
빌라 로보스/쇼로스 제1번 등

프로그램
가이드

김윤희 귀국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예인예술기획 010-8925-9838



연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신시내티움대, 오하이오 주립대 석박사과정을 장학 생으로 졸업하고 귀국한 플루티스트 김윤희 독주회.

부산음악협회, 부산음악 교육협회, 부산예술고등학교 주최 콩쿠르에서 우승해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김윤희는 클리브랜드 플루트협회 주최 Alexa Still Master Class Competition 우승, Central Ohio Flute Association Young Artist Competition 3등, American Protege International Flute Competition에서 우수한 바 있다.

[프로그램]

슈만/3개의 로망스 작품 94
F. Martin/발라드
Charles-Marie Widor/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등

• 피아노/이은정

제8회 부산작곡마당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백현주 010-4585-2052

2006년 창단 후 창작곡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부산 작곡마당의 8번째 정기연주회. 작곡가 신동일, 오세일, 백현주, 홍수정, 정보형, 유찬미, 함정민, 강상언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신동일/코믹오페라 '테이크 아웃' 중 '아무도 몰라요'
오세일/해운대 동백섬
백현주/대금과 가야금을 위한 모음곡 '봄날의 발견'
홍수정/하늘의 새를 보라
정보형/달을 바라보다 등 수곡

아트뱅크코리아 기획공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10월 23일(목), 10월 27일(월),
11월 6일(목)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 멘델스존, 쇼팽, 말러, 리스트, 드뷔시, 베르디 등 위대한 작곡가의 탄생과 서거 기념 공연을 꾸준히 열어오며 그들의 음악을 집중조명하고 있는 아트뱅크코리아가 2014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념음악회.

부산,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의 환상적인 앙상블로 슈트라우스의 주옥같은 가곡과 실내악을 들려준다.

10/23일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옥, 서은아, 김의영, 최지현, 비올리스트 이성호, 홍영선, 손주연, 이일세, 문주원, 서성은, 소프라노 정은미, 피아니스트 신영주, 성민주

10/27일

바이올리니스트 강선혜, 첼리스트 심어라, 이소정, 테너 조윤환, 피아니스트 김미현, 박정희

11/6일

바이올리니스트 이종은, 고진영, 비올리스트 김신희, 첼리스트 김연진, 피아니스트 박정희, 성민주

박주희 개인 창작발표회

일 시 |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박주희 010-6419-3635



다소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는 현대음악을 다양한 음악적인 요소를 통해 청중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있는 젊은 작곡가 박주희 창작발표회.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드레스덴국립음대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작곡모임 향천회 사무국장, WGN 앙상블 멤버로 활동중인 박주희는 이번 무대에서 '소리는 음악을 이끈다'라는 주제로 실내악 및 성악 창작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혼성4부를 위한 'koffy' BWVBMW, Solo Violin을 위한 'glatt', Oboe & Bassoon을 위한 'Schatten im Klang'(소리에도 그림자가 있다), Flute, Violin and Piano를 위한 'Ein stilles sanftes Sausen(A sound of sheer silence)', Solo Trombone을 위한 'Ein Lied von Zion'

부산예술가곡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6: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프라노 조신미, 테너 조성빈을 주축으로 결성, 창작가곡 활성화에 주력하며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어온 부산예술가곡회 정기연주회.

부산예술가곡회는 지난 5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글로벌아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로 부산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 사회/조성빈 • 피아노/조신미, 안준희

글로벌 행복음악회

일 시 |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글로벌장학재단 기금)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인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 글로벌 행복음악회.

창립 28주년 제20회 어울림국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어울림국악연구회 조수용
010-4544-4991

1986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실시한 부산시민을 위한 단소무료강습회 수료생으로 출발한 어울림국악연구회의 창립 28주년 기념음악회.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어울림국악연구회는 우리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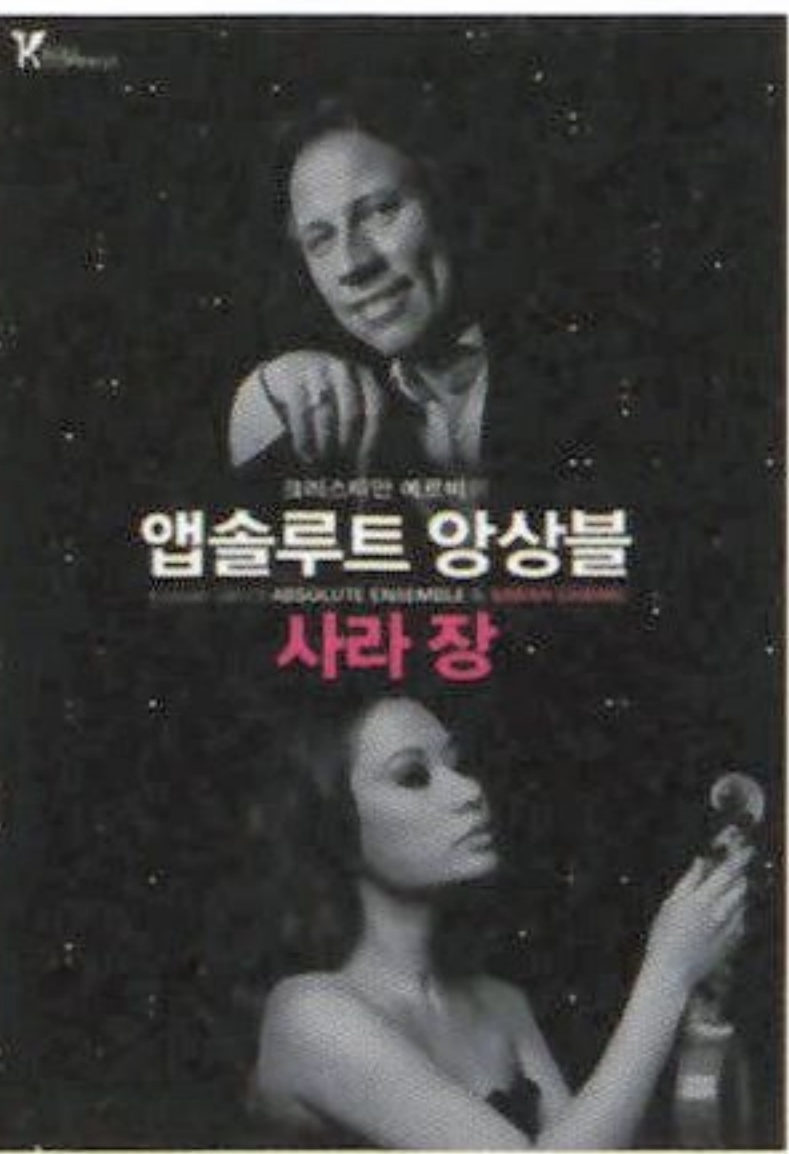
[프로그램]

관현악합주 '유초신지곡' 중 '상령산', 대금독주 '청성곡', 현악합주 '천년만세', 관악합주 '짧은 함녕지곡', 단소민요제주 '한오백년, 한강수타령, 청춘가, 노들강변, 아리랑'



크리스티안 예르비의 앱솔루트 앙상블 & 사라 장

일 시 |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VIP석 20만원, R석 17만원
S석 15만원, A석 1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이 오랜 음악친구인 크리스티안 예르비가 이끄는 앱솔루트 앙상블과 갖는 특별한 무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사라 장은 이번 공연에서 올해 말 발매될 새로운 음반에 수록될 곡들을

미리 들려준다.

사라 장과 함께 무대에 서는 지휘자 크리스티안 예르비는 지휘의 명가 '예르비 가문'의 막내아들로 탄탄한 실력뿐 아니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지휘자이다. 그가 이끄는 앱솔루트 앙상블은 클래식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재즈, 록, 힙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를 결합, 음악적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박종관 잉글리쉬 혼 독주회 부산시향과 함께한 40년, 추억의 명곡을 찾아서

일 시 | 10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고등학교 졸업 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오디션에 최연소로 합격하면 지난 40년을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자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 박종관 독주회.

경성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대학원, 폴란드 국립쇼팽 아카데미를 졸업한 박종관은 '고도의 테크닉을 바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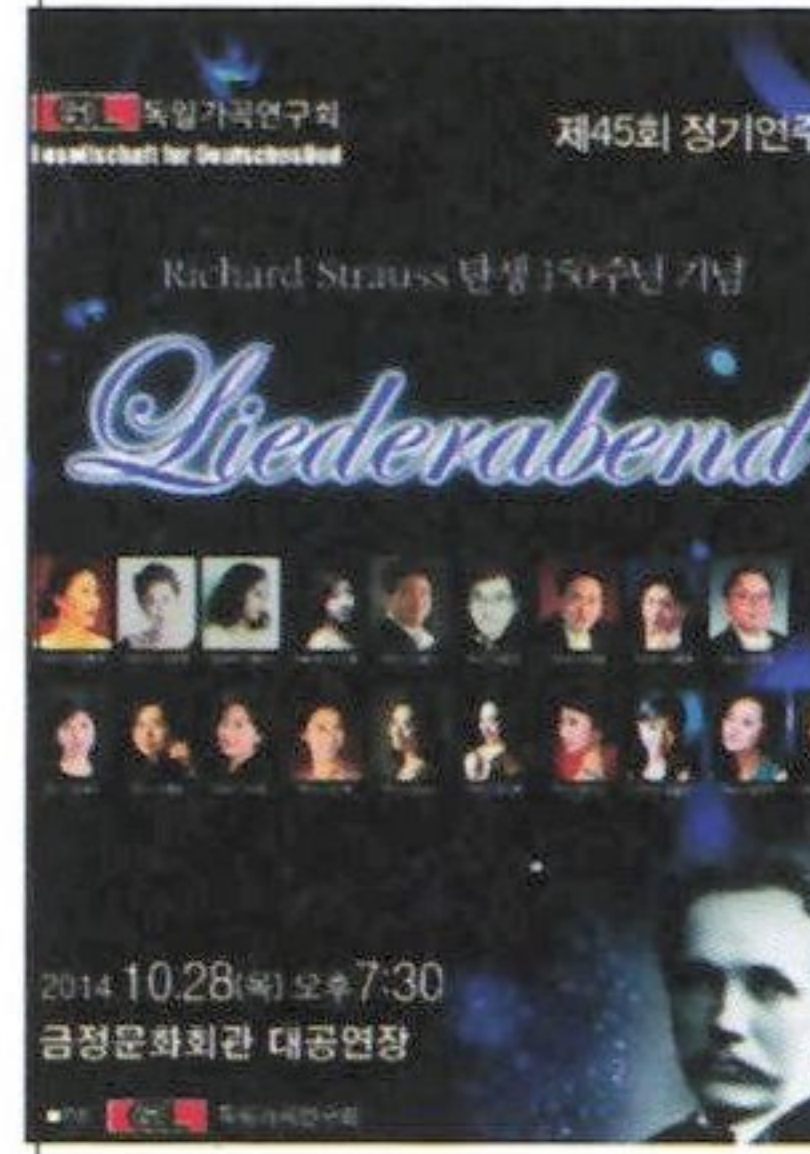
으로 선율을 감미롭게 표현하는 한편, 톤의 유지와 표현이 안정적'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부산의 대표적 관악주자로 활동해왔다.

이번 무대는 그동안 부산의 관악발전을 위해 살아온 그의 음악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 피아노/이은정

제45회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Richard Strauss 탄생 150주년 기념 'Liederabend'

일 시 |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독일가곡연구회 010-2692-6856



지난 1987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나라에서 유학한 음악인들로 창단한 독일가곡연구회의 45번째 정기연주회.

독일가곡연구회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독일가곡을 보급하고 마스터클래스를 개최, 후학양성에도 힘써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후기 낭만파 음악의 거장 Richard Strauss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의 대표곡들로 꾸며진다.

- 출연/소프라노 양근화, 정은미, 김현애, 김혜정, 테너 조운환, 임성규, 이은민, 바리톤 김종화, 베이스 문동환
- 피아노/박미은, 이화영선, 성민주, 임효진, 정수연, 곽윤희, 박필은, 김성희
- 클라비어 듀오/공소현, 김경미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일 시 |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고전음악감상실인 무지크바움이 10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신 후 마련하는 살롱음악회 10월 무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는 그동안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실연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피아노전공) 실기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피아노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음악춘추콩쿠르 입상, 부산피아노듀오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이자 작곡가인 최영민의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베토벤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과 코다,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스케치 '전주곡', 피아노를 위한 7개의 스케치 '여행' 등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일 시 |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커피 제공)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금정문화회관이 매월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10월 무대.

안네 소피 무터를 잇는 바이올린의 여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동아콩쿠르 1위, 국제콩쿠르 청중상 및 모차르트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실력과 미모로 화제가 된 라이징 스타 김지윤의 화려한 만남이 펼쳐진다.

제14회 대학교향악축제

일 시 | 10월 29일(수)-11월 5일(수) 오후 8:00
울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울숙도문화회관 220-5805

부산, 김해지역 대학 교향악단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2014 대학교향악축제.

이명진 첼로 리사이틀 Prologue

일 시 | 11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대 교수인 피아니스트 올리버 케른과 수년동안 '2B+S'라는 타이틀로 음악활동을 펼쳐온 동아대학교 교수 첼리스트 이명진 리사이틀.

세계적인 첼리스트 Natalia Gutman이 극찬한 첼리스트 이명진은 독일

Essen Folkwang 국립학교, Stuttgart 국립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무대를 통해 '힘찬 음색, 완벽한 기교와 대단한 열정을 가진 환상적인 첼리스트'라는 호평을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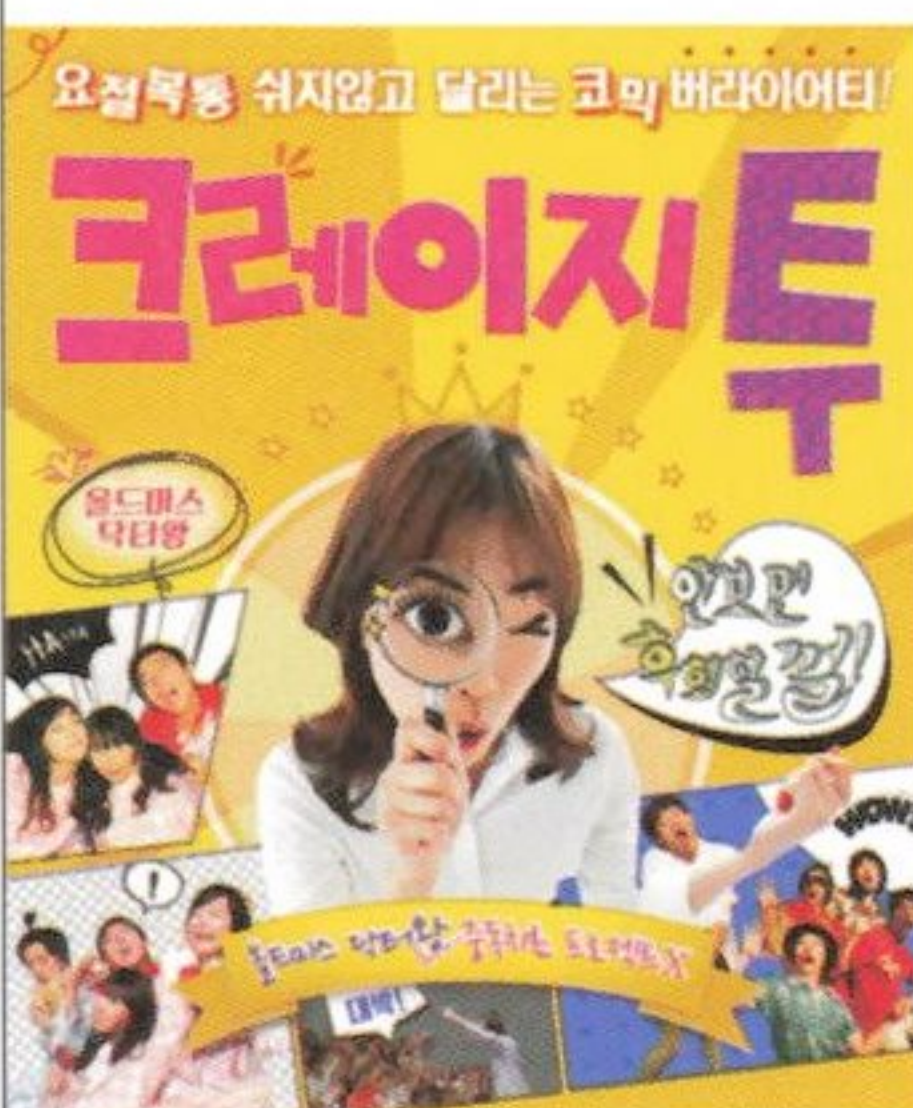
늦가을의 정취 속으로 떠나는 이번 무대에서는 유럽 각지의 다양한 음악을 피아노와 첼로의 환상적인 하모니로 들려준다.

연극

코믹버라이어티 **크레이지 투**

일 시 | 7월 4일(금)~11월 9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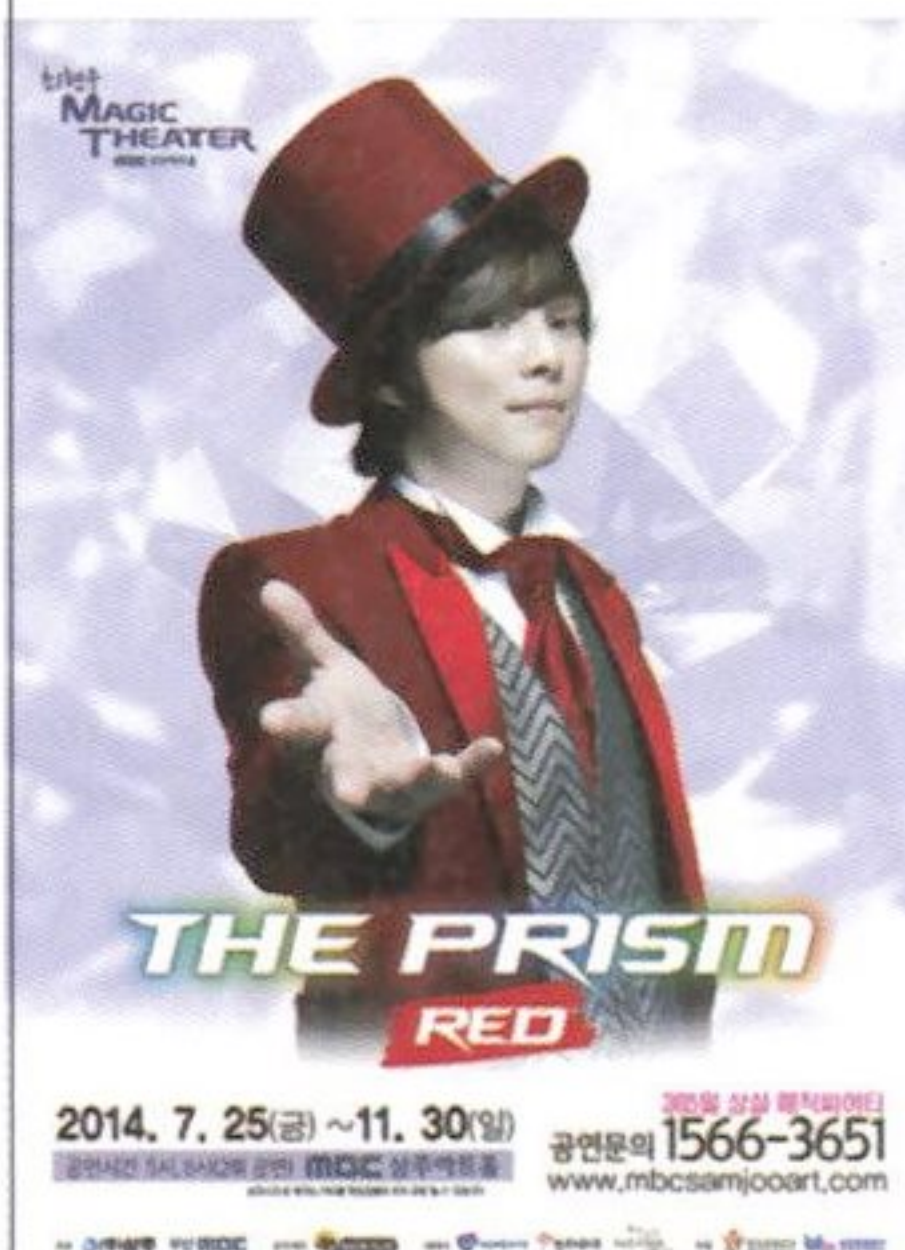


2014.7.4 FRI ~ 11.9 SUN AN아트홀 서면
1600-1716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요절복통 해프닝을 그린 코믹극 '아유크레이지'를 더욱 업그레이드시킨 시즌2 무대인 '크레이지 투'. 각종 중독증세로 힘들어 하는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강력한 캐릭터와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올드미스 닥터 왕진애와의 요절복통 좌충우돌 해프닝이 빠른 극 전개와 탄탄한 스토리, 다양한 볼거리와 신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최현우매직씨어터 MBC삼주아트홀 상설공연
더 프리즘:레드

일 시 | 7월 25일(금)~11월 30일(일) 오후 5:00, 8:00
최현우매직씨어터 MBC삼주아트홀
입장료 | 일반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학생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최현우매직씨어터 MBC삼주아트홀 1566-3651



'더 프리즘:레드'는 하나의 빛이 다양한 색깔로 표현되는 프리즘처럼 하나의 사물을 다양한 각도로 보아 시각적 상상력을 창조해내는 공연예술로, 대형 일루전 미술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멘탈매직이 함께 선보이는, 관객참여형 공연이다.

국내 유일의 상설 매직 씨어터로 문을 연 최현우매직씨어터 MBC삼주아트홀 상설공연 '더 프리즘:레드'. 국내 최고의 미술사 최현우가 직접 만들고 출연하는 매직쇼 '더 프리즘:레드'는 화려한 무대 연출과 놀라운 미술로 관객들과 만난다.

연극 **작업의 정석**

일 시 | 8월 28일(목)~10월 2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밀고 당기는 연애 명승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작업의 비법을 전수하는 '작업의 정석'은 고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성의 심리를 코믹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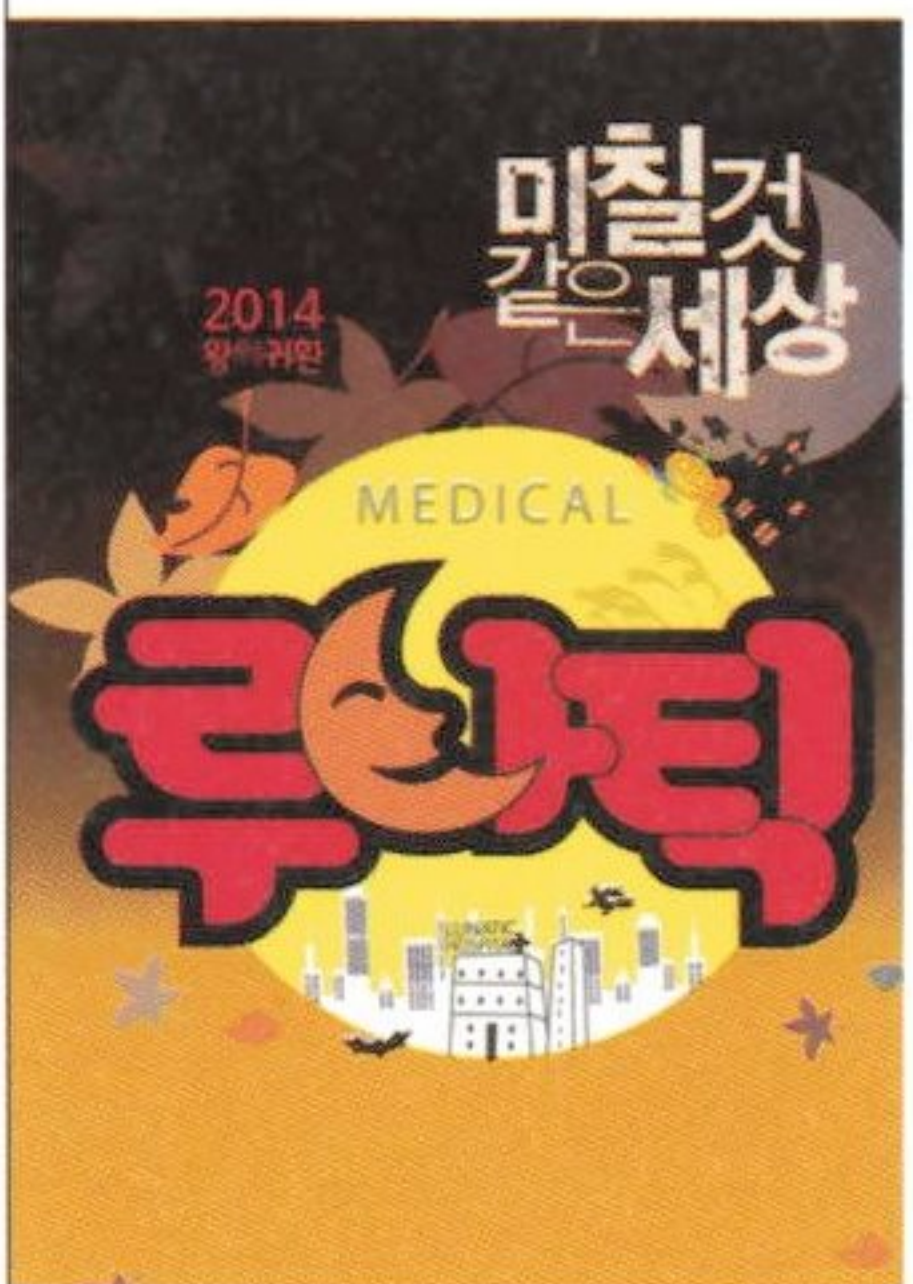
•연출/황두수
•출연/최두엽, 한세희, 이서준, 김수지, 김준아 외

손예진, 송일국 주연의 동명영화를 각색한 작품으로, 2012년 6월 첫 공연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대학로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으로 자리잡은 연극 '작업의 정석'.

소위 연애의 '고수'를 자처하는 두 남녀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벌이는

메디컬 **루나틱**

일 시 | 9월 4일(목)~1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휴관)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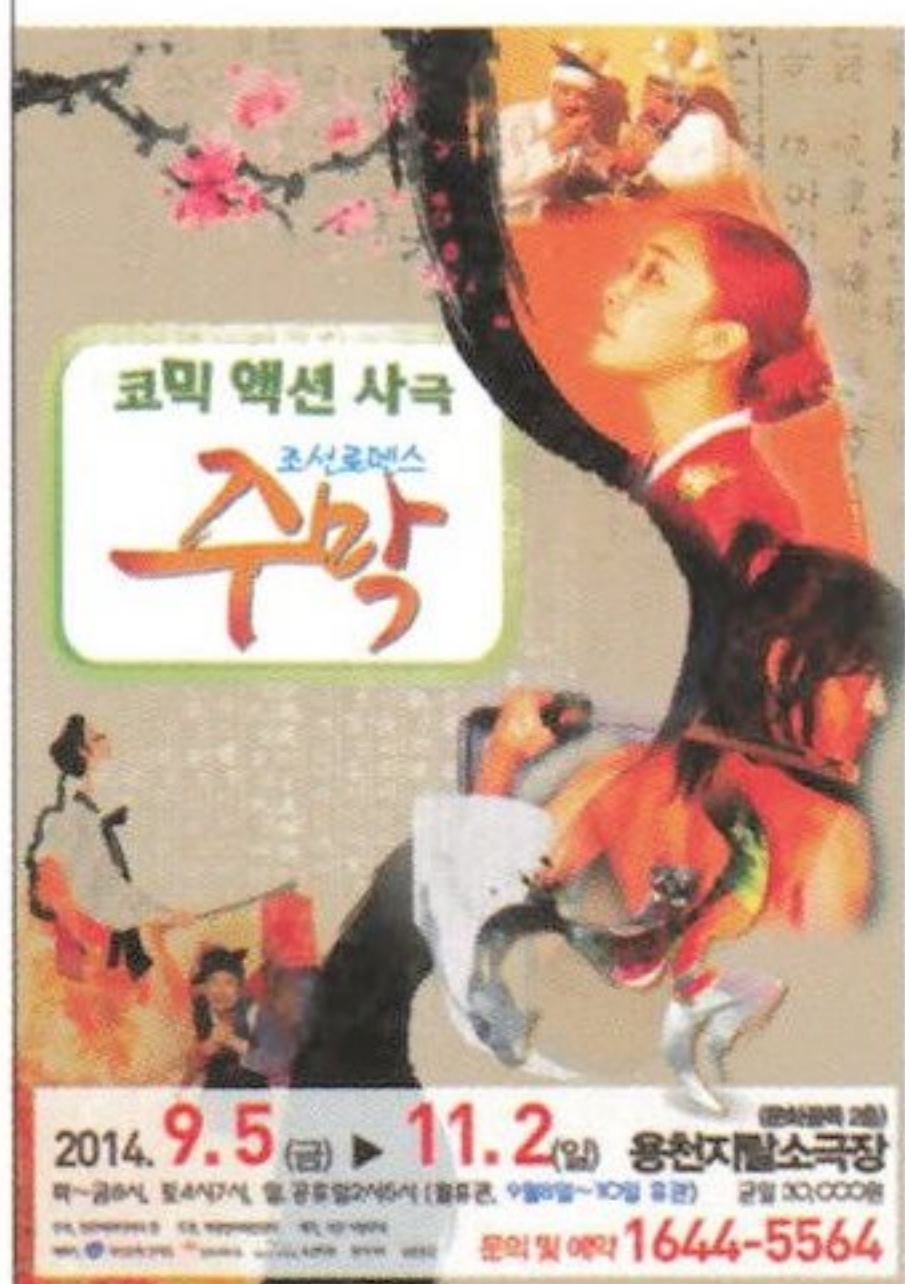
특히 '루나틱'은 정신과 권장 심리치료 중 하나인 '역할극'을 바탕으로 극중 등장인물들의 정신적인 문제를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면서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관객과 함께 나눈다.

•작/황선영 •연출/백재현
•출연/백재현, 김훈아, 이기형, 박지선, 곽영신, 장혜리

2005년 초연 이후 80만 관객이 관람한 창작 뮤지컬의 신화 '루나틱'. 노래와 춤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특별한 감성의 소유자인 굿닥터의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각자의 아픈 사연을 가진 환자들의 치유과정이 아름다운 선율 속에 유쾌하게 펼쳐진다.

코믹 액션 사극 **주막**

일 시 | 9월 5일(금)~1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주막'은 관기 출신의 아름다운 여주인 수란과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키는 호위무사 무영의 가슴 절절한 러브스토리가 펼쳐진다.

•작, 연출/장도현
•출연/백동현, 이지나, 최은유, 이재욱, 이태윤, 이정은, 최예림, 박시완, 전민협, 정창희

조선왕조 500년, 민초가 즉위한 지 56년, 두만강변의 정취있는 주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코믹 액션 사극 '주막'. 박문수, 김홍도, 김정희, 김삿갓도 다녀간 이범상치 않은 주막에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통극의 재미와 감동을 무대에서 전달하는

2014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일 시 | 9월 16일(화)~10월 8일(수)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9월 30일~10월 1일 구미극단 (사)문화창작집단 공터 다 '돌아서서 떠나라'

영화 '악숙'의 원작으로, 예쁘고 똑똑한 여의사 채희주와 순진한 조폭 건달 공상두의 사랑과 아픔을 절절하게 그려낸다.

•작/이만희 •연출/황윤동

10월 3일~4일 광주극단 푸른연극마을 '등대'

하늘도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 두 주인공을 통해 근원적 명제인 외로움 또는 고독과 소외, 그리고 소통의 문제를 되짚어본다.

•작/양수근 •연출/오성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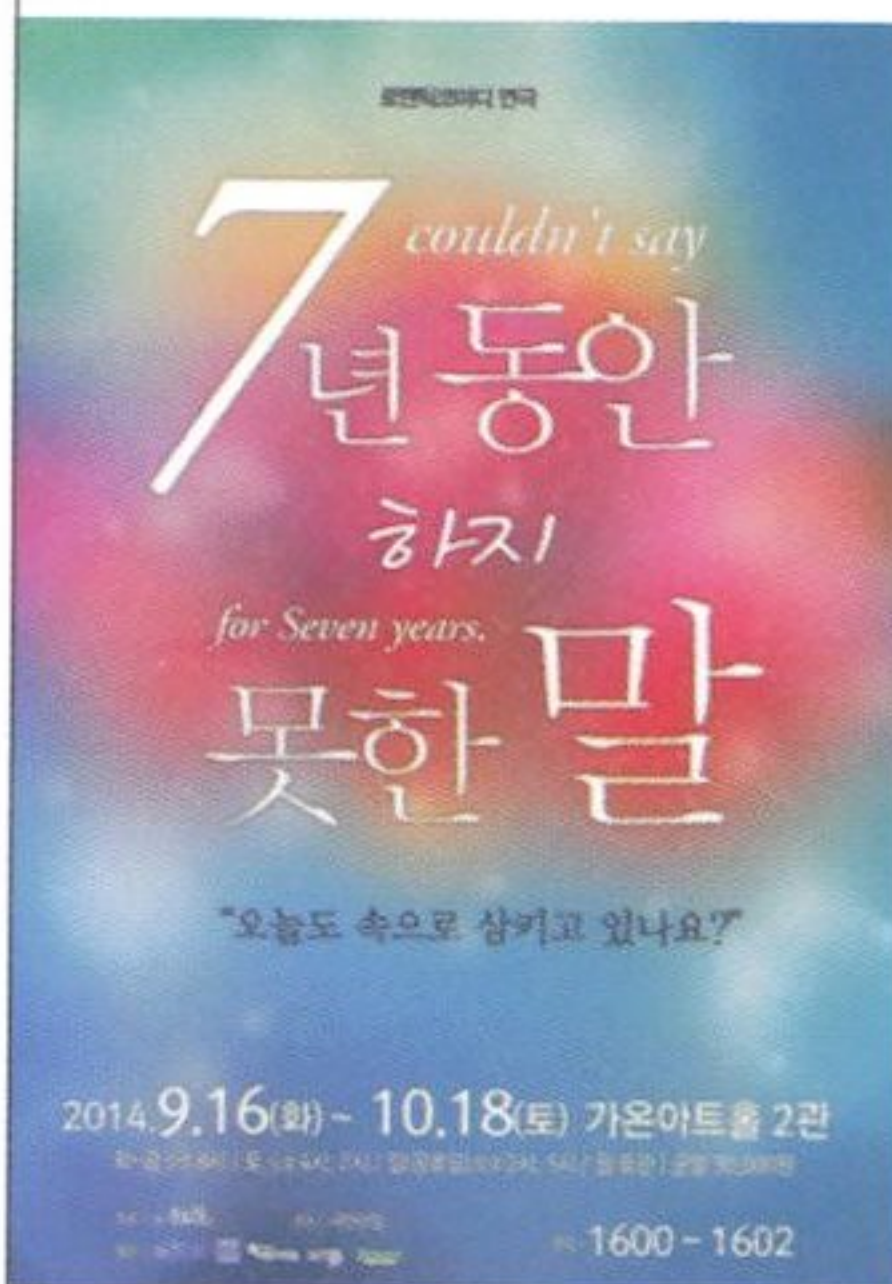
10월 7일~8일 대구극단 한울림 '황소바람 부는 날'

좁은 틈으로 세차게 불어드는 바람인 '황소바람', 바늘구멍으로도 들어오는 막강한 황소바람처럼 '연정(戀情)'이라는 광포한 바람에 휩싸여 신분의 격차도, 부귀영화도 결코 바람막이가 될 수 없었던 이들의 삶을 통해 참사랑과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작/정경진 •연출/정철원

연극 7년동안 하지 못한 말

일 시 | 9월 16일(화)~10월 18일(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휴관)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 의 | SM기획 1600-1602



‘기억상실’을 소재로, 기억의 조각을 맞추는 주인공을 따라 애절한 사랑의 기억을 찾아가는 로맨틱 코미디극 ‘7년동안 하지 못한 말’. 오래전부터 사랑고백을 준비해오던 간호사 하 시은은 고백할 타이밍을 노리며 남자 주위를 서성이고 있던 찰나에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환자 인호와 모종의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인호는 도움을 주면 줄수록 시은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과연 무사히 사랑을 고백 할 수 있을까? 유쾌하면서도 탄탄한 스토리와 의미있는 반전이 극의 감동을 전해준다.

연극 매직타임

일 시 | 9월 17일(수)~10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휴관)
가온아트홀 3관
10월 14일~16일 화~목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평일 60%, 주말 50% 할인)
문 의 | SM기획 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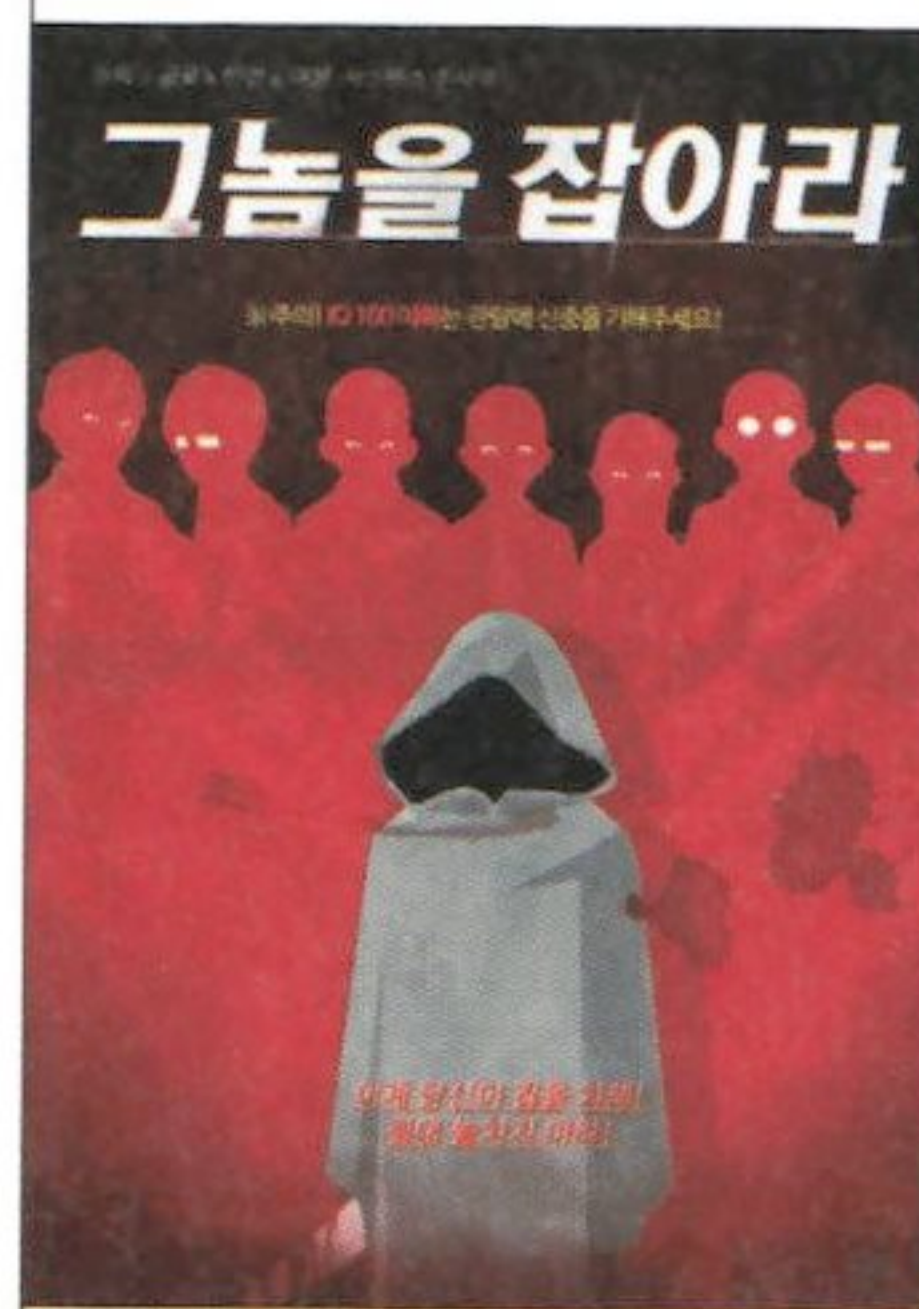


무대 뒤 분장실을 배경으로, 배우들이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배우들의 삶을 그린 연극 ‘매직타임’은 배우가 무대 위에서처럼 화려하고 멋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변화를 향해 달려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직업임을 잘 짜여진 구성과 이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드러낸다.

- 작/제임스 셔먼 •연출/이기호
- 출연/김용수, 김수건, 이신호, 엄영미, 이경주, 박소담, 강영석

서스펜스 수사극 그놈을 잡아라

일 시 | 9월 18일(목)~2015년 1월 4일(일) 평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3:00, 5:30, 8:00(월요일 휴관)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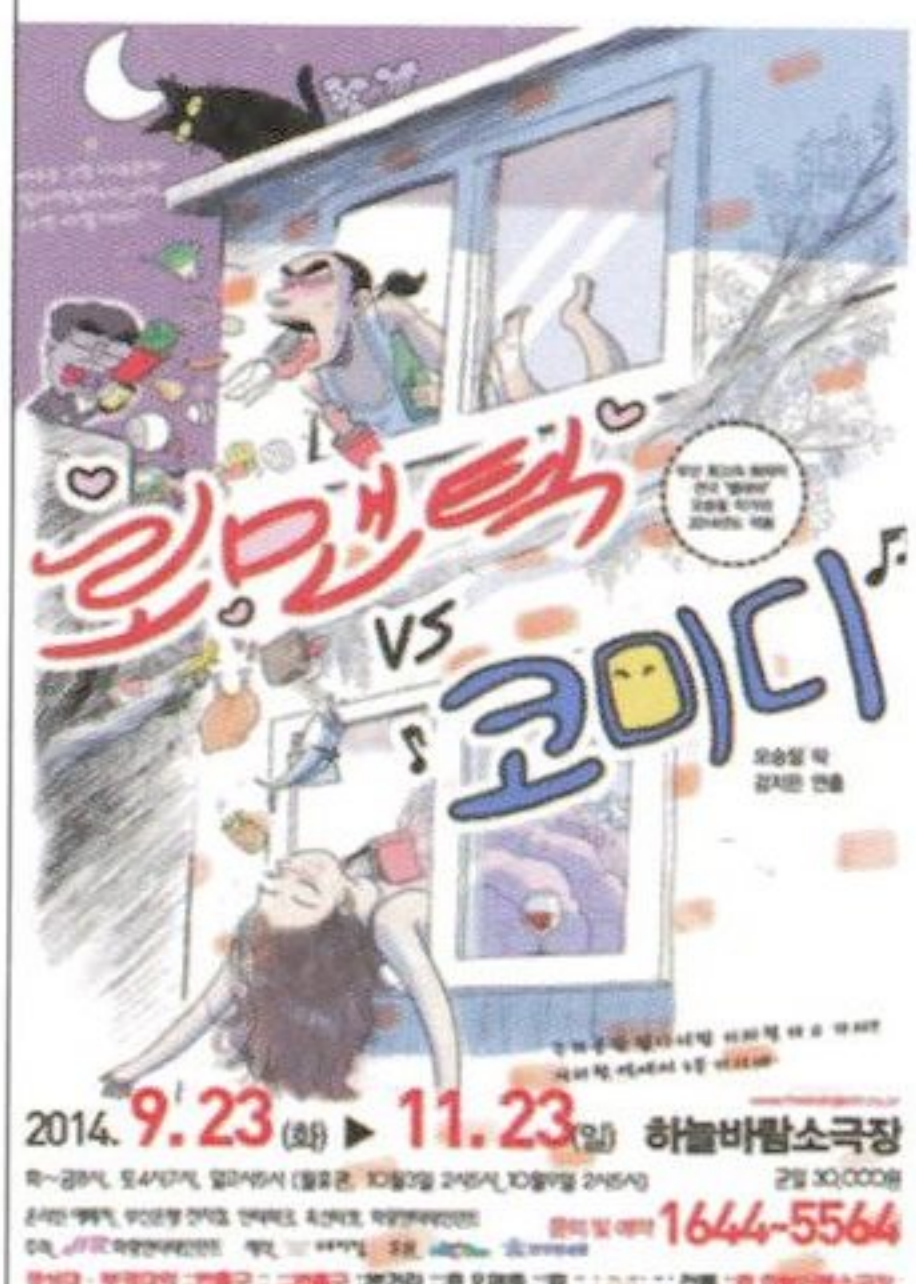


대학로에 스릴러 연극 붐을 일으킨 코믹 서스펜스 수사극 ‘그놈을 잡아라’. 충주의 댄스교습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뉴스를 보고 내려온 시나리오 작가 남지운은 모방 범죄로 결론지은 경찰과 달리 단순 모방이 아닌 연쇄살인사건으로 확산하고 몰래 수사에 나서는데... 웃음과 반전, 여운과 서스펜스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고통 당하는 피해자와 잡히지 않는 범인, 범인을 놓치는 경찰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모습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진실 찾기를 관객들에게 이야기한다.

- 작, 연출/정형석

로맨틱VS코미디

일 시 | 9월 23일(화)~11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휴관)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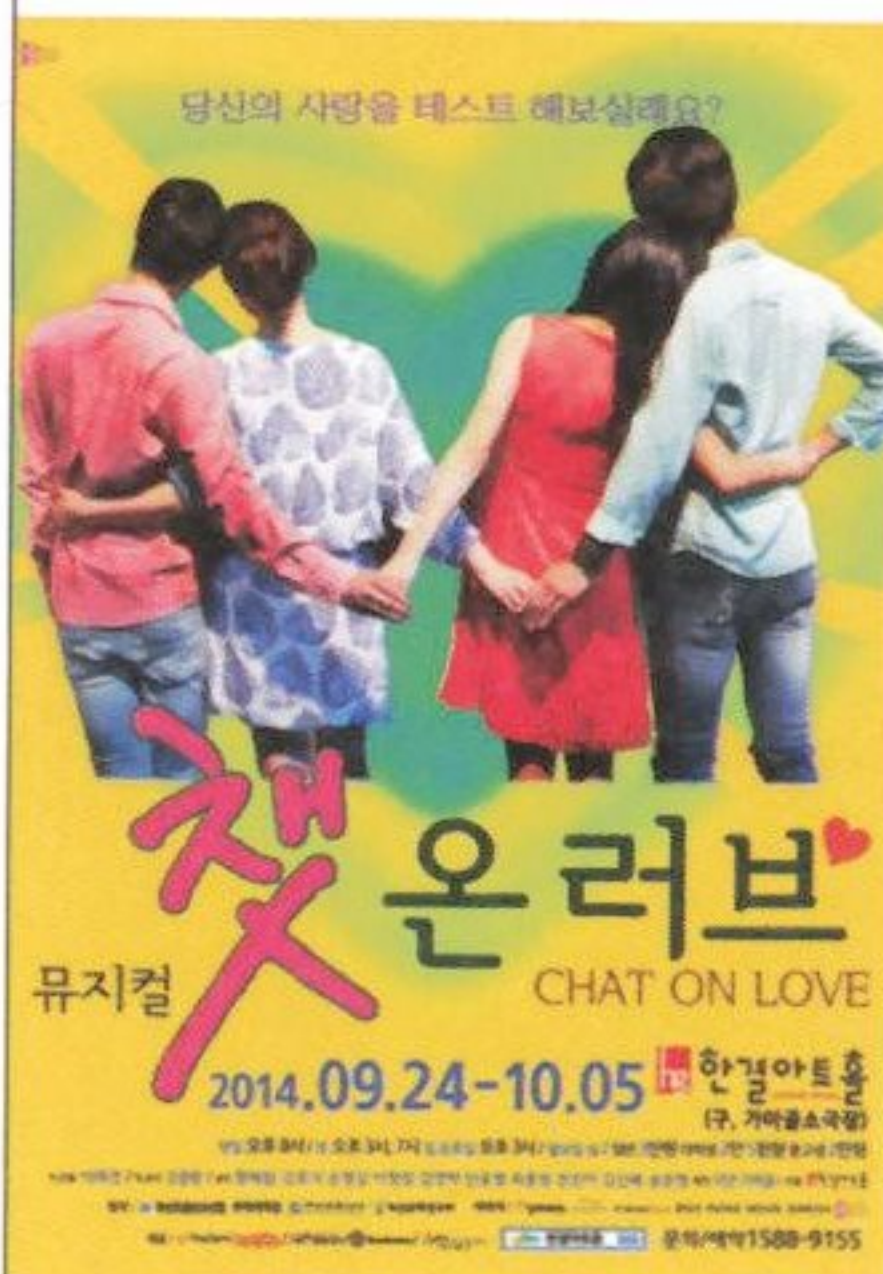
로맨틱만 쓰는 여자 작가와 코미디만 연출하는 남자 감독, 한달만에 로맨틱 코미디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두사람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는데, 과연 이 둘은 로맨틱 코미디를 뽑아내고 어색한 동거를 끝낼 수 있을까? 달라도 너무 다른 남녀의 달콤살벌한 동거를 그려낸 연극 ‘로맨틱VS코미디’.

2012년 부산 연극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연극 ‘열대야’, ‘증인들의 작가 오승일의 2014년 최신작으로, 영화 ‘도마뱀’의 감독 강지은 연출로 무대에 오른다.

- 작/오승일 •연출/강지은
- 출연/강근탁, 허민경, 이은정, 최창준

극단 가마골 뮤지컬 챗 온 러브

일 시 | 9월 24일(수)~10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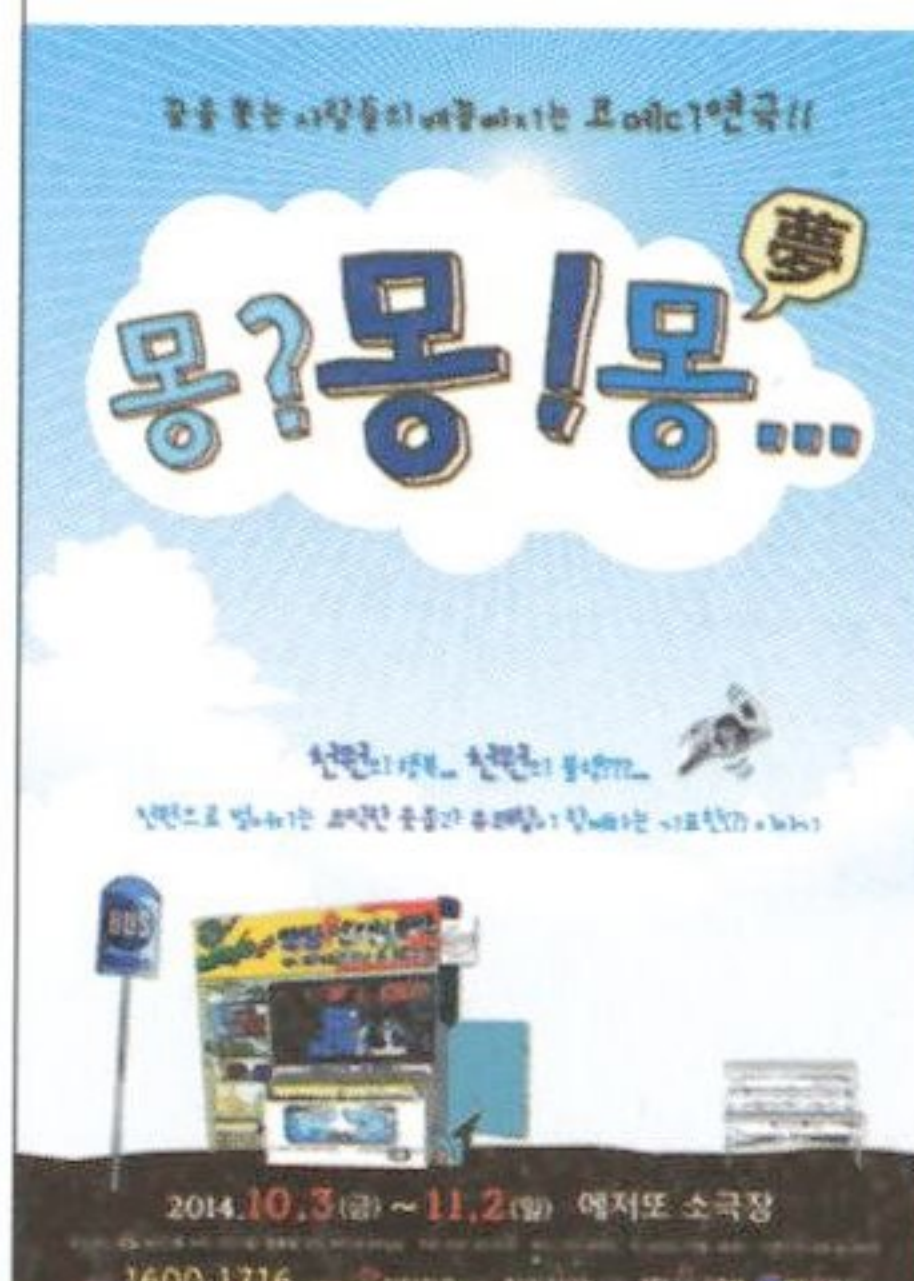
모차르트 오페라 ‘코지 판 투테’를 원곡으로 신예작가 이채경이 새롭게 그려낸 로맨틱 뮤지컬. ‘사랑은 영원한가’라는 고전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챗 온 러브’는 이 질문에 내기를 거는 무모한 남자와 말없이 떠나가버린 연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여자들을 등장시켜 사랑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청춘들을 이야기한다.

모차르트 원곡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뮤지컬 넘버가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 작, 연출/이채경
- 작, 편곡/강중환
- 출연/황혜림, 강호석, 손청강, 이창섭, 김영학, 안윤철, 최용림, 전진아, 김신혜, 송준형

코미디극 몽? 몽! 몽...

일 시 | 10월 3일(금)~11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에저또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미니티켓 1600-1716



천원짜리 복권으로 인해 벌어지는 서민들의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창작극 ‘몽? 몽! 몽...’. 소심한 고시생 경태는 길에서 주운 천원으로 복권을 산다. 그 천원을 잃어버린 여대생 유희는 천원을 찾기 위해 천원을 잃어버리게 한 가판대 주인아줌마와

한판 싸우고, 그 옆에서 담배를 사려던 다혈질 일용과도 시비가 붙게 된다. 싸움을 말리던 경태는 그 와중에 1억에 당첨된 복권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꿈을 좇는 사람들의 배꼽빠지는 이야기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 작/심상고
- 연출/최재민

프로그램
가이드

박정자의 영영이별 영이별

일 시 | 10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

중저음의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진, 50년 연극인생의 배우 박정자가 당신에게 들려주는 낭독의 아름다움 '영영이별 영이별'.

제1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김별아의 동명의 장편소설을 각색한 '영영이별 영이별'은 조선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가 이승을 떠나면서 이승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며 평생 그리움을 품고 살아야 했던 지난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박정자의 낭독에 해금주자 이자연, 기타리스트 이정엽의 감성적인 라이브 연주와 영상이 함께 어우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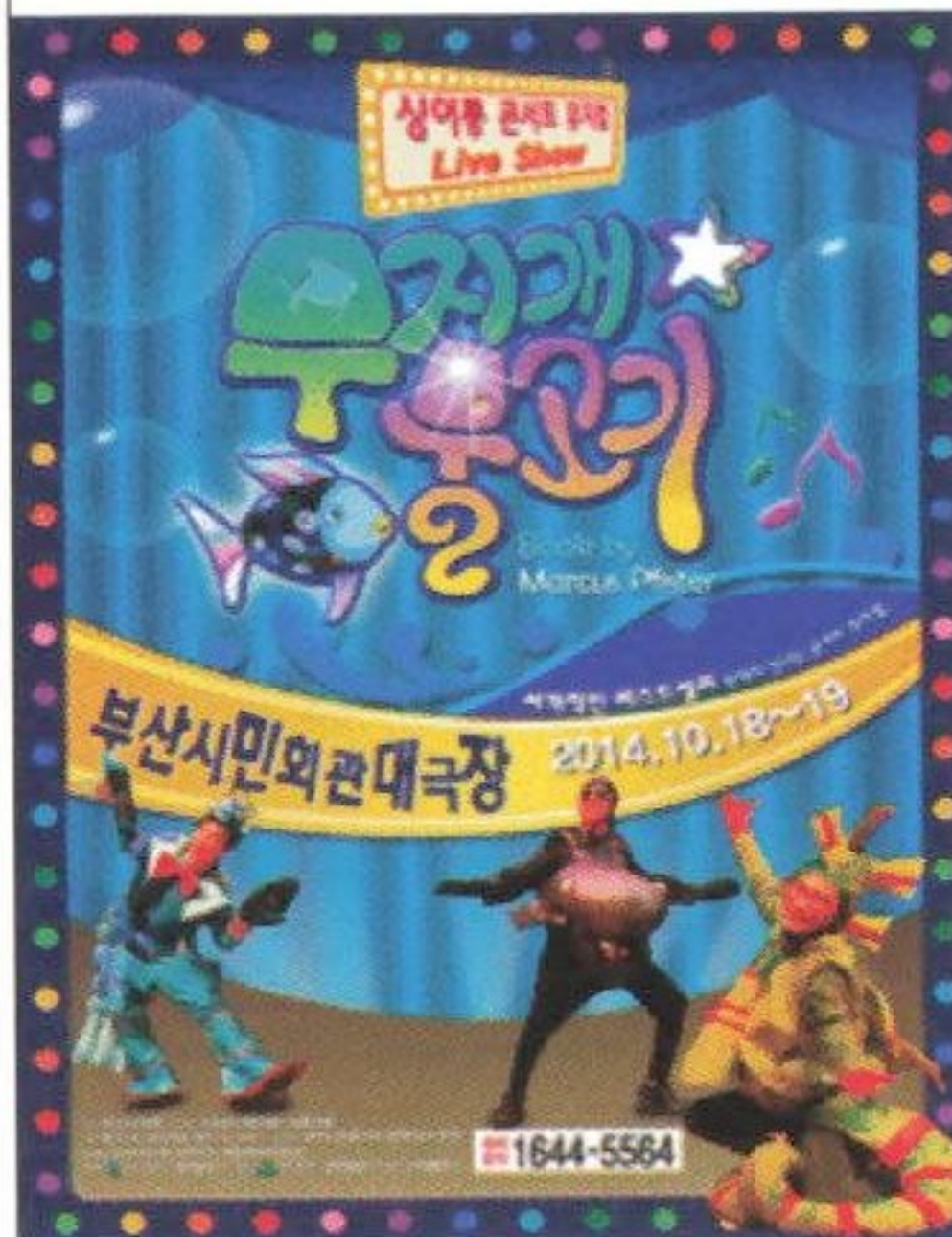
싱어롱 콘서트 뮤지컬 무지개 물고기

일 시 |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9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극단 화랑 1644-5564

...



전 세계 2,500만 어린이를 사로잡은 동화작가 마르쿠스 피스터의 베스트셀러를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뮤지컬 '무지개 물고기'.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전래동요와 세계민요로 구성된 어린이를 위한 콘서트형 뮤지컬로, 동화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신비롭고 시원한 무대와 개성넘치는 캐릭터가 볼거리를 더해준다.

'무지개 물고기'는 지난 2009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관객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무지개 물고기'는 지난 2009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관객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극단 토틀마루 헤다 가블러

일 시 | 10월 22일-24일 수-금요일 오후 7:30, 25일 토요일 오후 3: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극단 토틀마루 703-3658

...

'현대연극의 아버지' 입센의 작품을 무대화한 극단 토틀마루 '헤다 가블러' 부산초연 무대.

'헤다 가블러'는 1891년 초연된 작품으로, 운명을 지배하려 했으나 스스로 무너져 내려간 이기적이며, 강한 욕구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주인공 '헤다 가블러'를 그린 작품이다.

• 원작/헨리크 입센 • 번역, 연출/조금희
• 출연/유상훈, 권철, 변지연, 안성혜, 김은미, 김학준, 이정비



뮤지컬 캣츠 부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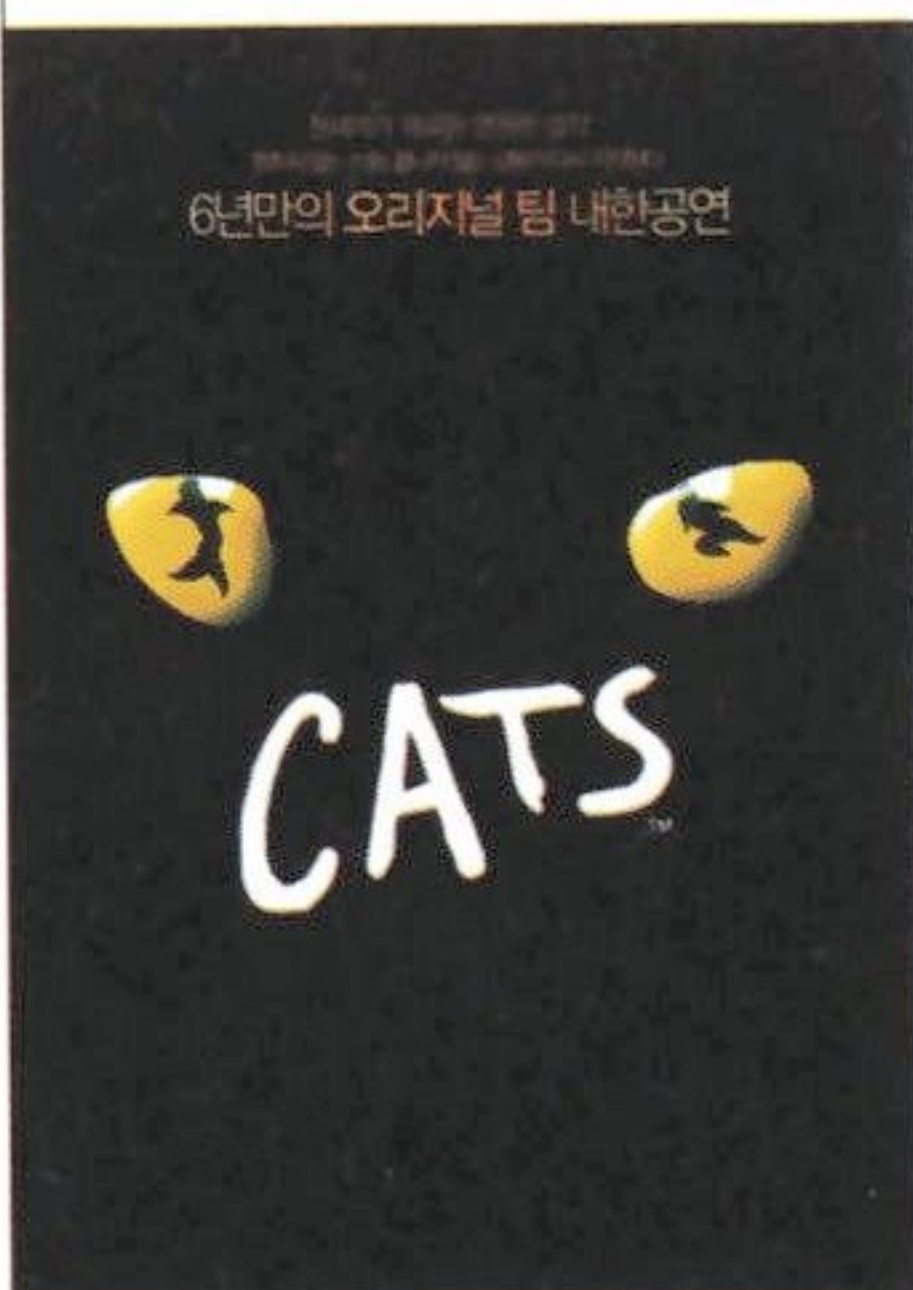
일 시 | 10월 31일(금)-11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2: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젤리콜석,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문 의 | (주)WSM 1566-5490

...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뮤지컬'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뮤지컬의 역사를 바꾼 '캣츠' 오리지널팀이 6년만에 갖는 '캣츠' 부산공연.

1981년 런던 뉴런던 시어터에서 초연된 이후 전 세계 30여개국, 300여개가 넘는 도시에서 14개국 언어로 상

연된 '캣츠'는 환상적인 무대, 고양이와 흡사한 분장의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춤과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로 전 세계 7,300만명 이상을 감동시켜왔다.

'캣츠'는 이번 무대에서 30여년 동안 '캣츠'를 끌고 온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 팀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배우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화려하고 파워풀한 무대를 선사한다.

영화

2014 부산국제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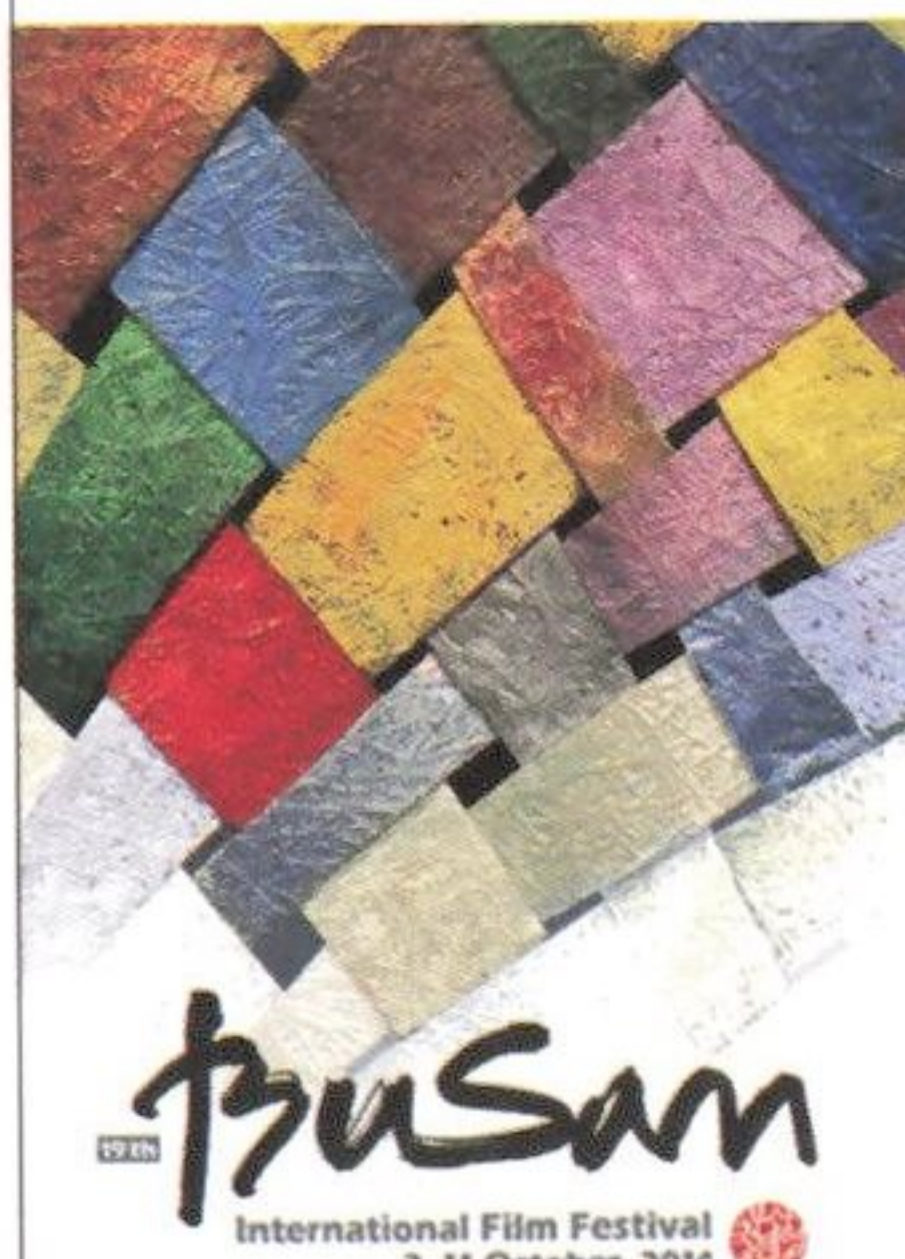
일 시 | 10월 2일(목)-10월 11일(토)

영화의전당, CGV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동서대 소향시어터(1개관), 메가박스 해운대, 메가박스 부산극장

입장료 | 개·폐막식 2만원, 일반상영작 6천원

문 의 | 부산국제영화제 688-3010, www.biff.kr

...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잡은 2014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세계 79개국 31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1960년대 대만의 군부대 내 공창을 배경으로 아버지 세대의 추억을 반추해 만든

도제 니우 대만 감독의 '군중낙원'이, 폐막작은 갱스터를 소재로 했으나 코미디와 멜로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혼성 장르 영화인 리포칭 홍콩 감독의 '갱스터의 월급날'이 선정됐다.

콘서트

비엔그룹·대선주조와 함께하는
10월 한낮의 유U; 콘서트

우리가 사랑했던 그때 그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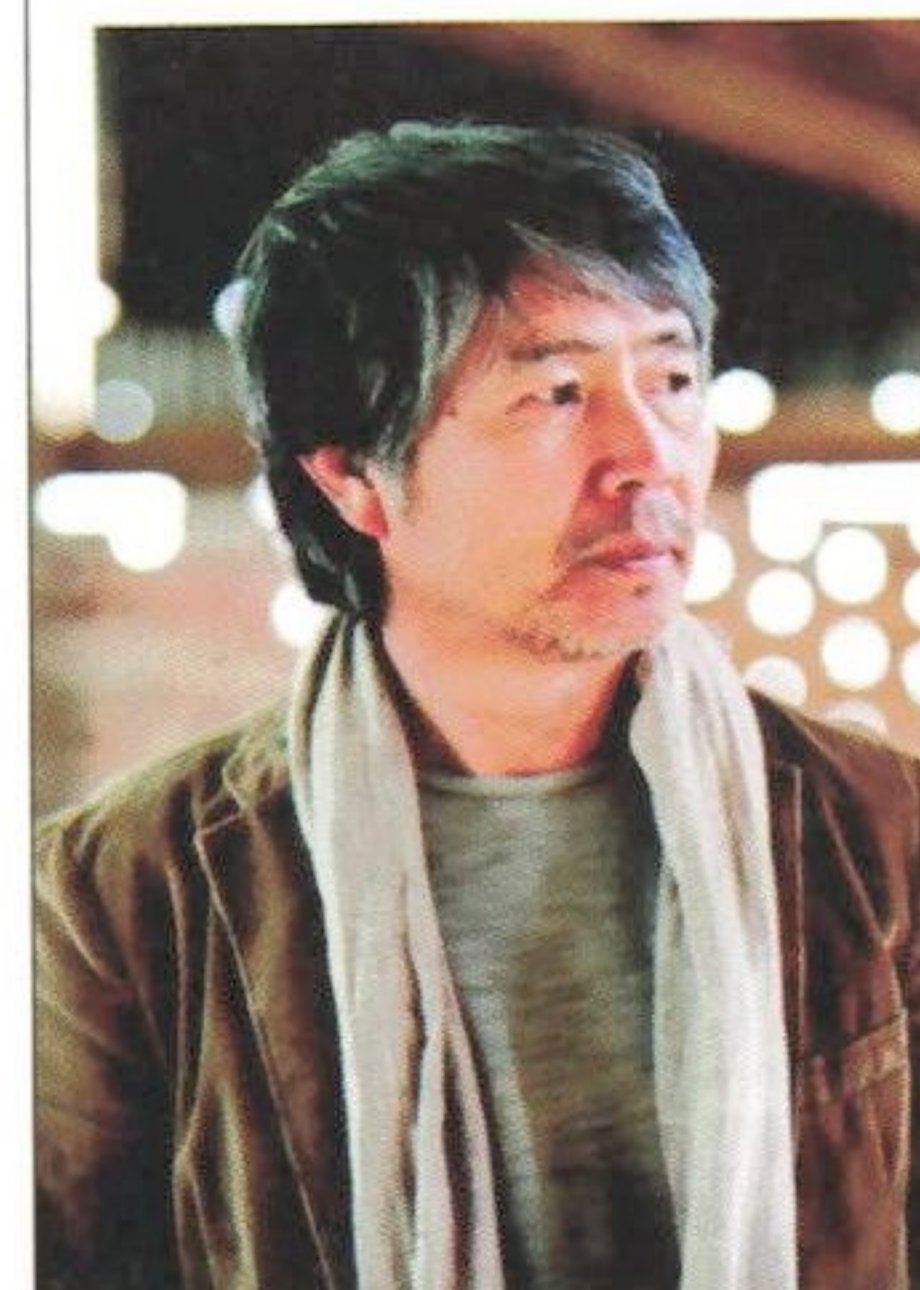
일 시 |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국제신문 문화사업국 500-5222

...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낮의 유U; 콘서트 10월 무대로, 외로움을 노래하는 가수 최백호의 7080 콘서트로 마련된다.

'영일만 친구'로 TBC 방송가요대상 남자가수상, '고독'으로 MBC 10대 가수상, KBS 가

요대상 남자가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최백호는 지난 1995년 삶의 허무와 지나간 사랑에 대한 미련을 담은 '낭만에 대하여'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대한민국 다문화연예대상 다문화 디바상을 수상한 다문화 가수 '헤라'가 함께 무대에 선다.

무용

남성주의 춤 제1회 공연 **인연**

일 시 |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남성주 010-2832-9382



부산여자대학 생활체육 무용과를 졸업하고 현재 남성주전통예술단 단장으로 있는 남성주의 첫 번째 출판. 남성주는 제29회 여수 전국 국악대전 명무부 우수상, 제12회 창원 전국국악경연대회 우수상, 제63회 개천예술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승무, 축원무, 한영숙류 태평무, 민요춤, 삼고무 등

• 춤/남성주, 이점숙, 정순옥, 허수영, 김해숙, 하승현, 강경화, 전성숙, 정청자

• 연주/하정희(타악), 정주아(대금, 피리), 이호연(해금), 하성진(아쟁), 백진희(건반), 김아름(소리), 박현욱(테너), 박현정(가야금)

행사

무빙트리엔날레 메이드인부산

일 시 | 9월 27일(토)~10월 26일(일)

부산연안여객터미널, 중구노인복지회관, 부산지방기상청, 또따또가갤러리 외 부산 원도심 일대

문 의 | 메이드인부산 사무국 070-4207-0442, www.movingtriennale.com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복합문화축제 '무빙트리엔날레 메이드인부산'.

전시, 공연, 학술,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및 국내, 해외지역의 예술가, 문화단체들이 부산을 배경으로 동시대 문화예술의 다양한 상상력을 선보이며 시민, 관객과의 새로운 문화적 소통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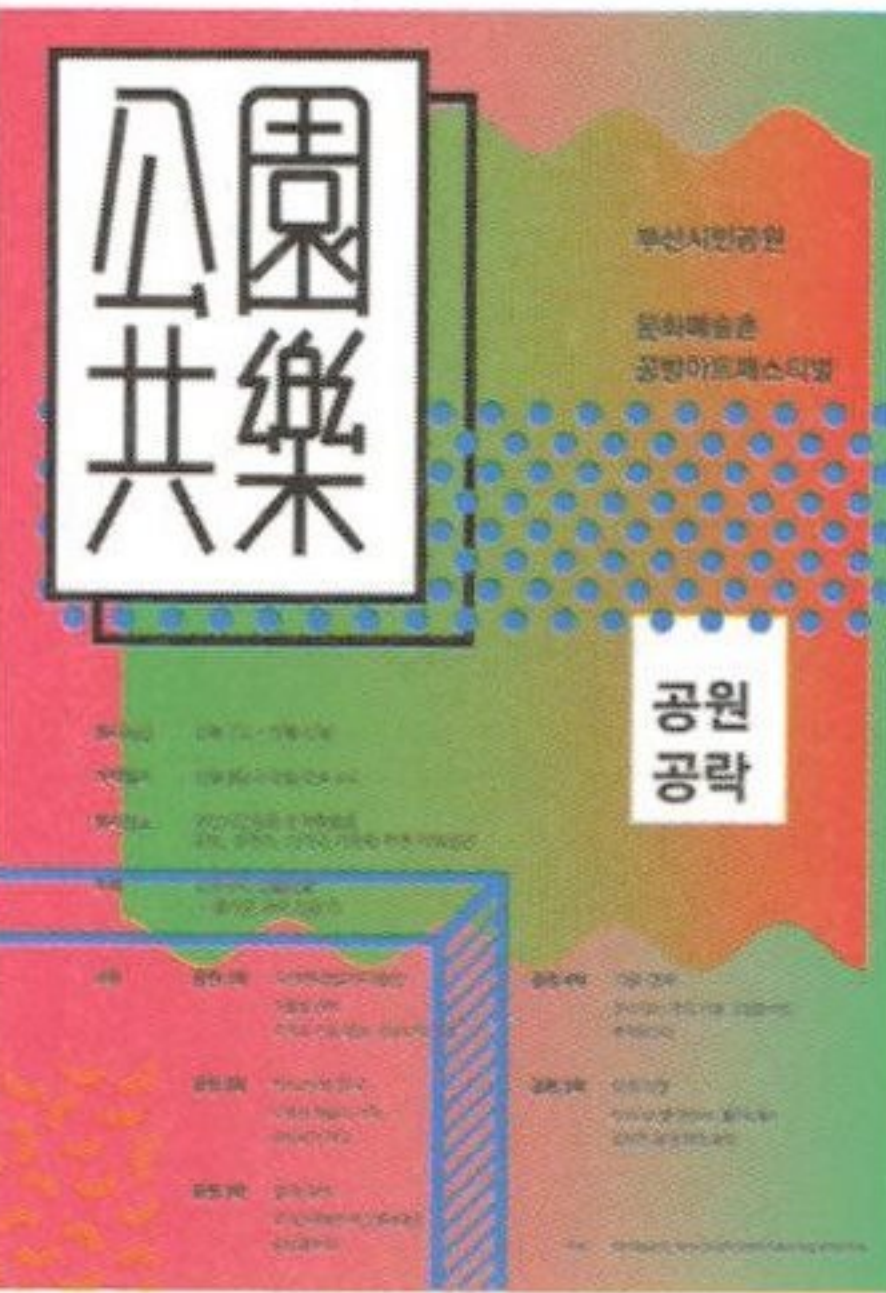
부산시민공원 문화예술촌 공방아트페스티벌

공원공락(公園共樂) -즐거운 공원 만들기-

일 시 | 10월 1일(수)~15일(목)

부산시민공원 공방, 갤러리, 문화예술촌 주변 야외공간

문 의 | 부산시민공원 850-6000



부산시민공원의 5개 공방 작가들이 마련하는 공방아트페스티벌. 진영섭(금속), 이세훈(도예), 박태홍(목공예), 배선주(섬유), 채경혜(판화) 등 5개 공방 운영작가와 상주작가 10명, 협력작가 100명 등 115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전시, 그림엽서 공

모전, 아트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주요 프로그램]

公園1樂(자연환경설치미술전)

公園2樂(미니어처 전시)

公園3樂(갤러리전)

公園4樂(가을엽서)

公園5樂(아트마켓)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1부 프로그램]

-클라우드 아바도, 베를린 필, 길 샤함, 2002 팔레르모 공연

-칙 코리아, 프리덤 밴드, 2010 재즈 마르시악

[2부 프로그램]

-찰리 헤이든, 퀴텟 웨스트 라이브, 재즈발티카 2000

-크리스 보티, 보스턴 라이브 2006

• 기획 및 진행/손명균, 박형석



제18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일 시 | 10월 3일~4일 금-토요일 오전 9:00

글로벌아트홀

문 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글로벌아트홀 유능한 글로벌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봄과 가을, 매년 두차례 마련해오고 있는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콩쿠르 전체대상 수상자에게는 부산시장상이 수여되며, 지금까지 콩쿠르에 참가한 젊은 인재들은 해외 무대에서 주목받으며 차세대 연주자로서의 가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

제4차 독도사랑시화전 및 시마당 제145회 시낭송회

일 시 |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관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안태봉 017-552-0626

전시

이지현 'Hello~! My Youz'展

일 시 | 8월 8일(금)~10월 8일(수)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 의 | 롯데백화점 광복점 678-2610

랄프 김슨 Ralph Gibson

일 시 | 8월 12일(화)~11월 19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과감한 구도와 클로즈업, 독특한 앵글과 파격적인 프레임 구성 그리고 공간과 빛의 절묘한 활용 등 초현실주의 사진의 거장 랄프 김슨의 사진적 특징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작 80여점이 빈티지 프린트로 선보인다.



프로그램
가이드

사진미래色 2014

일 시 | 8월 12일(화)~10월 29일(수)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744-3924
www.goeunmuseum.kr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작가를 발굴, 지원을 위해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이 매년 마련하는 기획전으로, 제6회 KT&G 상암마당 한국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에서 올해의 최종작가로 선정된 정지현과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지영철의 작품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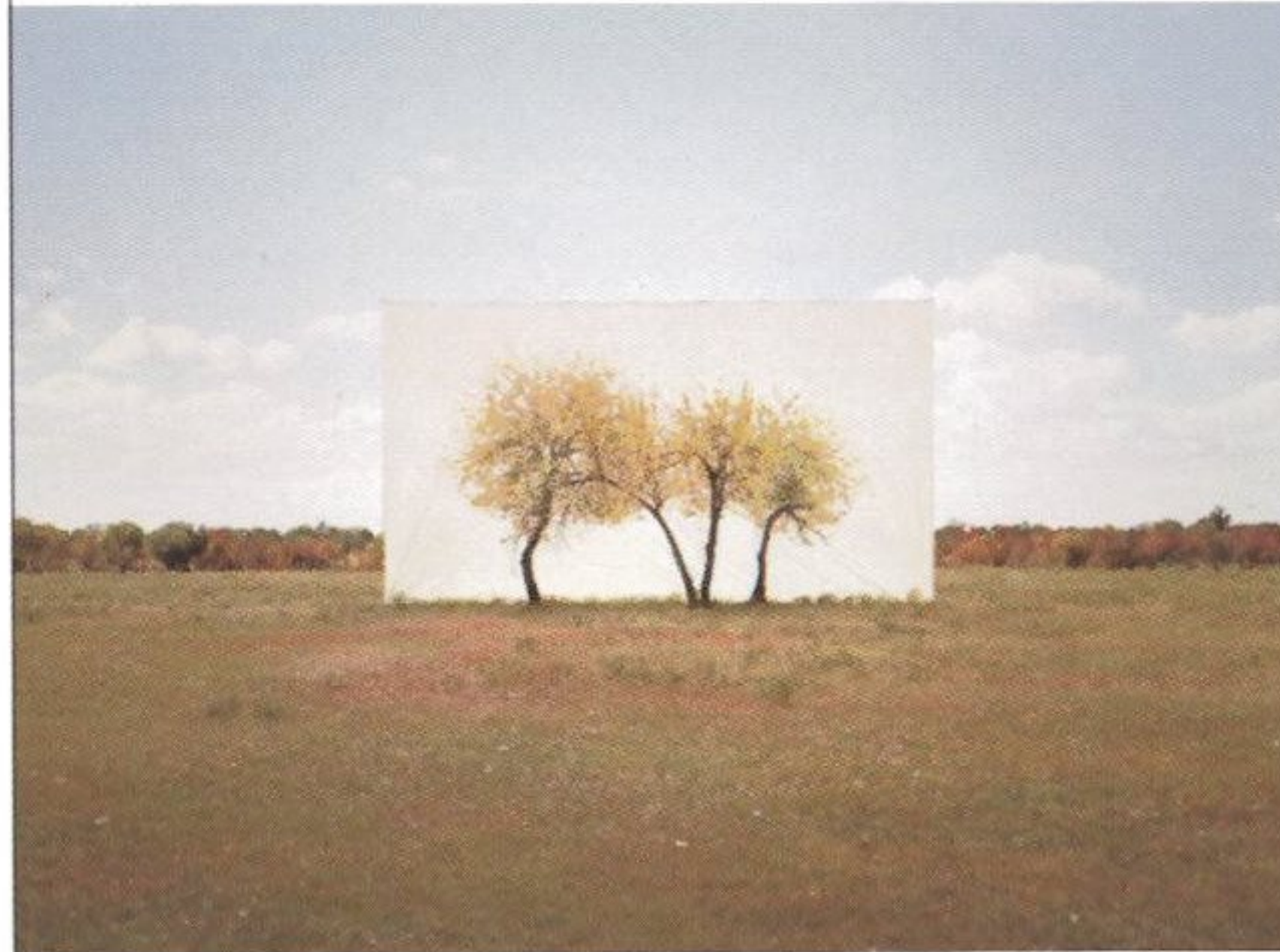
김옥열 초대전 소식을 듣다

일 시 | 9월 6일(토)~10월 5일(일)
갤러리 KAKIBAUM
문 의 | 갤러리 KAKIBAUM 502-9477

Photographic Edges

- 사진적 경계_고명근, 유현미, 이명호

일 시 | 9월 13일(토)~10월 23일(목)
소울아트스페이스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731-5878



'베르나르 프리츠' 展

일 시 | 9월 19일(금)~10월 19일(일)
조현화랑 부산
문 의 | 조현화랑 부산 747-8853

한일 교류전 paper는 종이紙

일 시 | 9월 22일(월)~10월 8일(수)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조응(照應)展

일 시 | 9월 26일(금)~10월 12일(일) 수가화랑
문 의 | 수가화랑 552-4402

제5회 김성규 개인전 한 여름밤의 꿈

일 시 | 10월 1일(수)~10월 10일(금)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아트사파리, 동물원展

일 시 | 10월 03일(금)~10월 28일(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장필교 작품전 8.5 inch

일 시 | 10월 7일(화)~11월 7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현재 김종문 한글서에 초대전

일 시 | 10월 7일(화)~10월 17일(금)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 464-3939

Gachi Art Fair 부산을 그린다

일 시 | 10월 9일(목)~10월 11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슈퍼마켓 展

일 시 | 10월 10일(금)~10월 30일(목)
복합문화공간 예술지구_p 제 1전시실
문 의 | 복합문화공간 예술지구_p
070-4322-3113, www.artdp.org



슈퍼마켓이라는 친숙한 공간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열린 공간으로 그 의미를 새겨보고 예술 작가와 관람자를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예술의 시장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 경험을 통한 대화의 장을 열고자 마련된 특별전.

- 참여작가/강민석, 구유경, 권도유, 김민선, 김지연, 김진영, 김혜진, 문지원, 박주호, 방지영, 신대준, 양지훈, 유명희, 이영현, 이해진, 장숙희, 정문식, 정세윤, 정안용, 조용현, 최은진, 한충석
- 기획/김영범, 이봉미

도호선 개인전 공존

일 시 | 10월 13일(월)~10월 18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물고기의 꿈' 작품전

일 시 | 10월 14일(화)~11월 9일(일)
갤러리 예가
문 의 | 갤러리 예가 624 0933



금속, 돌, 수지,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로 표현된 상상의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갤러리 예가 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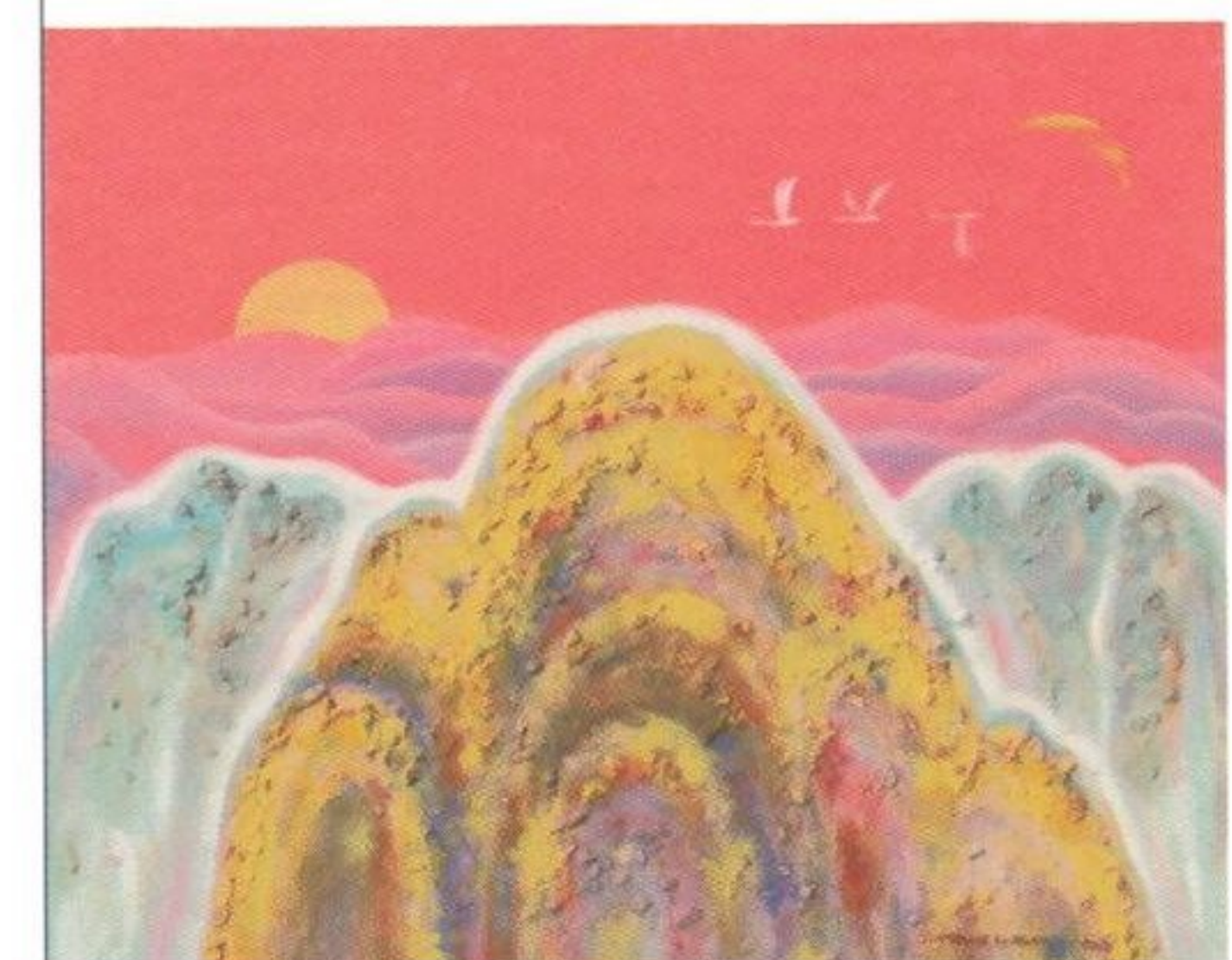
- 참여작가/강이수, 김재호, 김종선, 신원준, 진영섭

도예가 박자영 개인전 Memory

일 시 | 10월 20일(월)~11월 1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박인관 초대전

일 시 | 10월 21일(화)~10월 31일(금)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 464-3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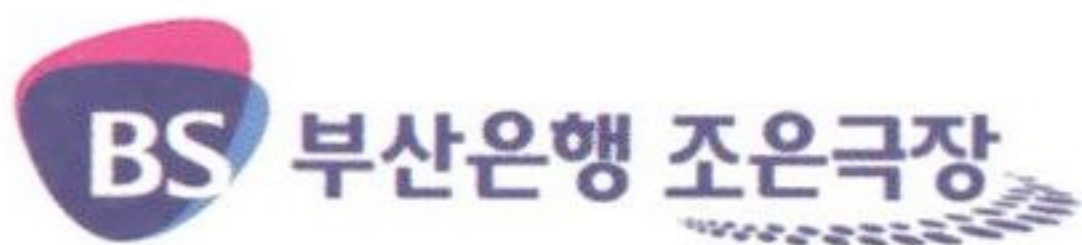
삼경서회전

일 시 | 10월 22일(수)~10월 28일(화)
BS부산은행 갤러리
문 의 | BS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지난호 정답

부 산 비 엔 날 레 이
산 니 오 만 과 편 건
국 보 오 나 수 흰
제 모 차 르 트 스
영 도 다 리 도 노 트 북
화 꼬 다 낭 라
제 모 네 빈 싸 이
스 페 치 카 커 피
실 크 로 드 유 에
부 록 라 트 라 비 아 타

9월호
퍼즐 당첨자

가로열쇠

- 알마비바 백작의 하인인 피가로와 백작의 시녀인 수산나가 바람기 많은 알마비바 백작을 혼내고 결혼한다는 내용의 모차르트 희극 오페라. 10월 17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오페라 인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에 등장하는 돈키호테의 애마(愛馬).
- 마이클 니콜스 감독의 두 번째 영화로, 기성세대에 억눌린 젊은 세대의 답답한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개봉과 함께 젊은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작품에서 마이클 니콜스는 시각적으로 풍부한 표현력과 더불어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음악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며 1967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
- 토스카, 나비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 오페라. 19세기 파리의 뒷골목 다락방에 살고 있는 시인 로돌포, 화가 마르첼로, 철학자 코르리네, 음악가 쇼나르 등 보헤미안 기질을 가진 네 사람의 방랑생활과 우정, 그리고 폐결핵을 앓는 소녀 미미와 로돌포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 마음씨 착한 흑부리영감이 도깨비 덕택에 흑을 떼고, 마음씨 나쁜 흑부리영감은 도깨비 때문에 흑을 더 붙이게 되었다는 설화.
-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조선 전기의 읍성. 사적 제302호. 고려시대 후기 왜구가 자주 침입하자 1397년 절제사 김빈길이 이곳에 읍으로 읍성을 쌓은 것이 시초로,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읍성들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읍성 내 민속마을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에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해 예전과 같은 생활 모습이나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다.
- 전남 담양에 위치한, 1530년경 양산보가 조영한 인공 원림.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각 건물을 지어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 정원으로, 우리나라 민간정원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事象)에 대하여 구전, 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책.
- 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8달만에 낳은 아이를 일컫는 팔삭동(八朔童)이어서 비롯된 말로, 몸씨 어리석은 사람을 이른다.
-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암시하는 문학용어.
- 1945년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 투하로 시 전체가 초토화되었고 20만여 명의 희생자를 냈으나, 전후 국제평화 문화도시로 발전하여 일본 주고쿠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된 도시.
- 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스러운 북한 고유의 사냥개.

세로열쇠

- 아르헨티나의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탱고 작곡가. 자신만의 새로운 탱고 스타일을 만들어 독창적인 아르헨티나 탱고의 시대를 열었다.
- 프랑스 조각가. 근대 조각의 시조로 불리며 대표작으로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청동시대 등이 있다.
-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어 혼이 되더라도 입은 은혜를 절대 잊지않겠다는 사자성어.
- 릭 베송 감독의 최신작으로, 우리나라 영화배우 최민식이 출연해 화제가 된 영화.
-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 2014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1960년대 대만의 군부대 내 공장을 배경으로 대만의 도제 니우 감독이 군 생활을 한 아버지 세대의 추억을 반추해 만든 작품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영화의 중심지. 1920년 영화촬영소가 설립되면서 발전해 현재 미국 영화계의 총본산 구실을 한다.
- 지구를 떠나 우주를 탐사하던 승무원들이 유인원이 지배하는 행성에 불시착해 놀라운 진실과 마주한다는 내용의 SF 영화로, 1편의 인기를 토대로 총 5편의 오리지널 시리즈와 TV 시리즈, 그리고 2001년과 2011년, 그리고 올해 영화로 다시 제작되었다.
-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는, 감천동 산복도로에 위치한 마을로 2012년 아시아 도시경관 대상을 수상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 지공(손가락으로 막고 여는 구멍)이 뒤에 1개, 앞에 5개가 있는 세로로 부는 관악기로, 지금은 북청사자놀음의 반주 악기로 사용되고 있다.
- 얼어붙은 강이나 바다의 얼음을 깨뜨려 부수고 항해를 할 수 있는 배
- 대구를 비롯해 군위, 칠곡, 영천, 경산 등 4개의 시·군에 걸쳐 있는 큰 산. 정상은 비로봉(1,193m)이며,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서로 봉우리들이 솟아 능선을 이루고 있다. 정상 들어 기도하면 한 사람에 하나씩 소원을 들어준다는 일명 깃바위, 관봉석조여래좌상이 있어 매년 입시철이면 수험을 앞둔 부모들이 와서 차성을 드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 두 사람이 양손에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 허리 벨트 위의 상체를 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 권투.
- 이슬람의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가리개의 일종. 차도르(Chador), 아바야(Abayah), 부르카(Burqah) 등이 신체의 대부분을 가리는 데 반해 머리와 가슴 일부분만 가리고 얼굴은 드러낸다.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성호(금정구 동현로)
나희애(남구 용호로)
송동준(남구 오륙도로)
정은경(부산진구 가야대로)
이기희(금정구 남산로)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김미자(서구 충무대로)
백영선(해운대구 재반로)
이유진(동구 중앙대로)
이일숙(남구 석포로)
황지선(수영구 연수로)

큰집
식사권
고미숙(사하구 괴정로)
남호기(서구 꽃마루로)
이은정(부산진구 백양대로)
이효숙(수영구 수영로)
홍기훈(수영구 광남로)

조은극장
김민선(서구 대신공원로)
송필근(동구 중앙대로)
이신애(연제구 온천천남로)
정지숙(해운대구 중동2로)
최상태(사하구 낙동대로)



New Album... GM뮤직 제공



2013년 베르비에르 페스티벌 20주년 기념 콘서트

유자 왕/ 다니일 트리포노프/ 에브게니 키신/ 미샤 마이스키/ 메너헴 프레슬러/ 드미트리 시트코베츠키/ 유리 바슈메트/ 엠마누엘 액스/ 르노 카뮈송/ 고티에르 카뮈송/ 마르틴 프리스트/ 일랴 그린골츠/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데이비드 아론 카펜터/ 미하일 플레트노프 외

스위스 남서부에 위치한 휴양도시 베르비에르에서는 1994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화려한 음악축제가 펼쳐져왔다. 스무 번째의 페스티벌이 펼쳐졌던 2013년에는 이를 축하하는 특별한 기념콘서트가 기획되었다. 에브게니 키신, 미하일 플레트노프, 미샤 마이스키, 유자 왕, 유리 바슈메트, 카뮈송 형제 등을 비롯한 무려 30명 가까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이름들만으로도 풍성하기 이를 데 없는 갈라 콘서트를 펼친 것이다. 키신과 카뮈송 형제가 협연한 슈베르트의 피아노트리오 D.898의 2악장, 에베네 퀴텟과 메너헴 프레슬러가 협연한 드보르작의 피아노오중주 2번 2악장, 엠마누엘 액스,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가보르 타카시-너지 등이 호흡을 맞춘 슈만의 피아노오중주 1악장, 몬티 알렉산더가 즉흥적으로 풀어낸 'Happy Birthday' 변주곡 등에 이어서 드미트리 시트코베츠키가 편곡한 쇼팽의 전주곡 전곡이 콘서트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30명의 연주자들이 따로 혹은 같이 모여서 24곡의 전주곡 전곡을 다양한 악기조합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였다.



베를린 필 2014년 유로파콘체르트

다니엘 바렌보임/ 베를린 필하모니커

▶세익스피어 탄생 450주년과 바렌보임의 베를린 필 데뷔 50주년을 기리는 콘서트

베를린 필의 뿌리는 1878년 벤야민 빌제가 조직한 사설악단인 '빌제-카펠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빌제의 무리한 악단 운용에 반발했던 일부 단원들이 1882년 5월 1일 새로운 악단을 창단하였는데, 그 악단이 바로 지금의 베를린 필로 성장한 것이다. 1991년부터 이들의 창립 기념일을 기리는 특별한 이벤트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럽의 다양한 명소들을 순회하면서 펼쳐지는 '유로파콘체르트'다. 2014년의 콘서트는 순례를 잠시 멈추고 자신들의 본거지인 베를린의 필하모니에서 펼쳐졌다. 이번 콘서트는 세익스피어의 탄생 450주년과 다니엘 바렌보임의 베를린 필 데뷔 50주년을 함께 기리고 있다. 콘서트의 전반부는 세익스피어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두 작품이 장식하였다. 니콜라이의 '원저의 유쾌한 아낙네들' 서곡과 역시 같은 희곡을 소재로 한 엘가의 관현악 연습곡 '팔스타프'가 그것이다. 콘서트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에서는 다니엘 바렌보임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더불어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와 베를린 필 사이에 형성된 끈끈한 유대감이 빛을 발한다.



르네 플레밍 리트 리사이틀

볼프/ 말러/ 첼린스키/ 쇤베르크/ 코른골트/ R. 슈트라우스 등의 리트

▶20세기 전환기 리트들을 통해 드러나는 르네 플레밍의 우아한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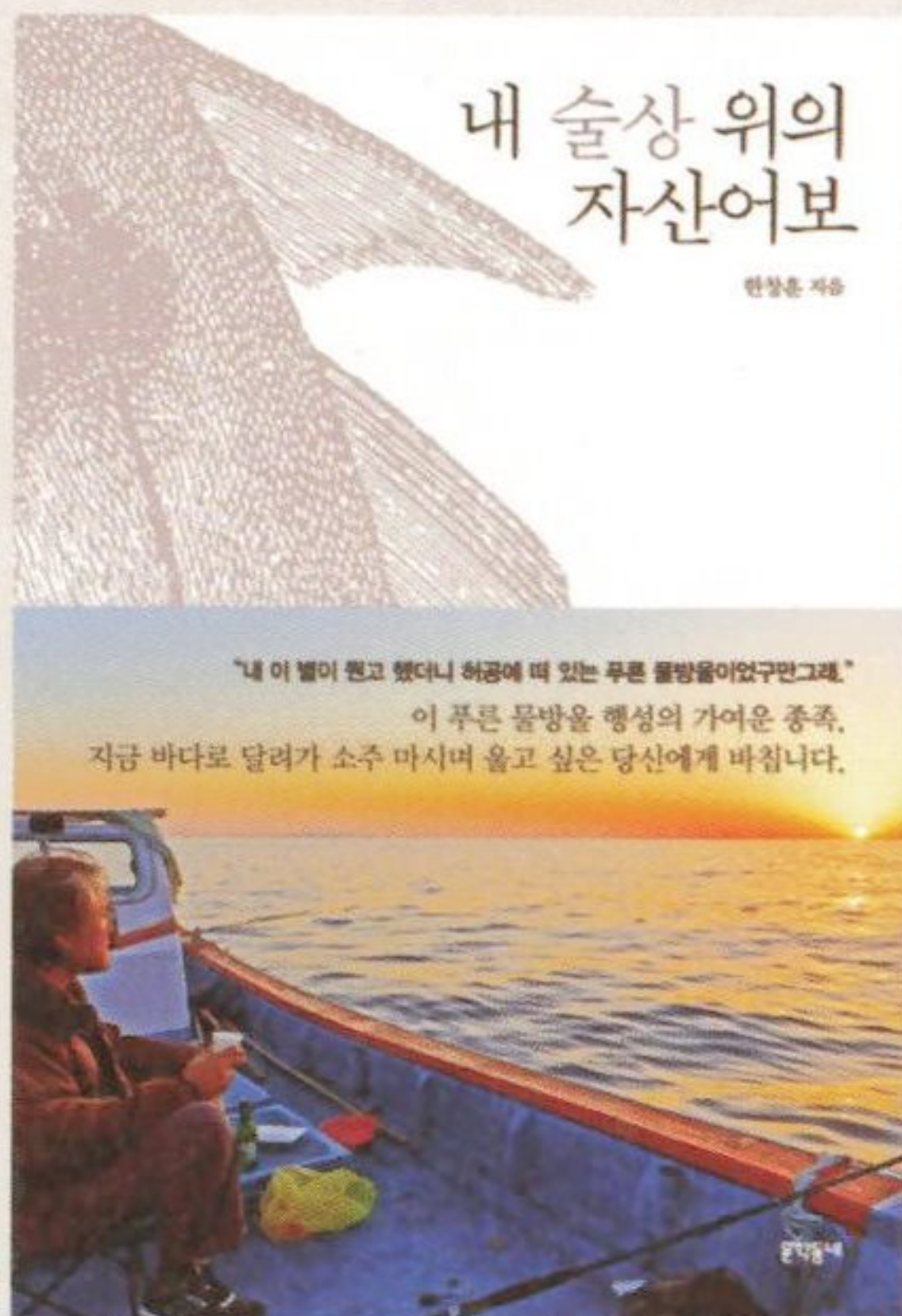
크림과도 같은 부드러운 보이스 컬러와 우아한 자태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소프라노의 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있는 르네 플레밍의 팔색조와도 같은 매력을 찬찬히 엿볼 수 있는 값진 영상물이 출시되었다. 2012년 11월 빈 무지크페라인의 황금 홀에서 있었던 그녀의 리트 리사이틀 실황이 바로 그것이다. '20세기 전환기의 비엔나'라는 리사이틀의 타이틀 그대로 당대 빈을 무대로 활약했던 여러 작곡가들의 대표 가곡들을 그녀의 매력적인 음성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 볼프의 '5개의 괴테 리트'나 유명한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를 포함하는 말러의 '뤼케르트 리트', 첼린스키의 '5개의 데호멜 리트'를 비롯하여 쇤베르크, 코른골트, R. 슈트라우스의 리트들이 마시에이 미쿨스키의 섬세한 피아노반주와 함께 펼쳐진다. 거쉰의 '서머타임'을 비롯한 매력적인 앙코르들까지 빼놓지 않고 수록한 이번 영상물은 그동안 여러 오페라 영상물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던 것과 또 다른 그녀의 매력을 유감없이 생생하게 전달해줄 것이다.



❖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

한창훈 지음 / 문학동네 / 352p / 1만 5천 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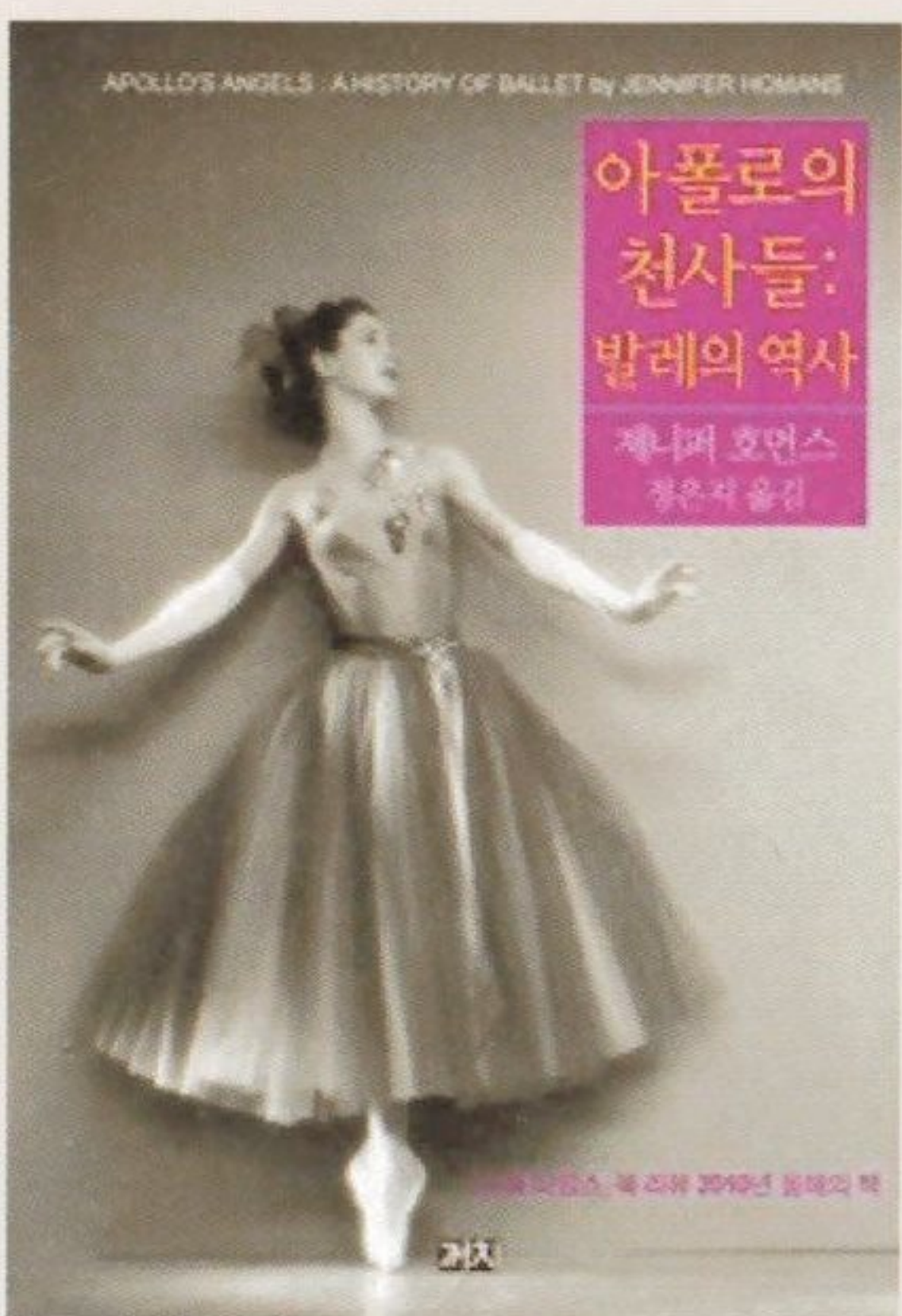
전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에서 바다가 내려주는 먹을거리 묘사로 독자들의 침샘을 터뜨렸던 작가 한창훈이, <자산어보>의 원저자 정약전이 1814년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써낸 지 꼭 200주년이 되는 2014년, 한창훈의 자산어보 2탄 <내 술상 위의 자산어보>를 완성해 돌아왔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라면서 그가 책 속에 푸지게 차려낸 것은 '오직 바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술상'이다. 그의 바다에선 여전히 보리멸, 송어, 참치, 쥐치, 상괭이, 고래들이 뛰놀고, 어딘가 '거시기하게 생긴' 전복도 요염하게 움찔거린다. 하지만 이번 자산어보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생명체는 무엇보다 바다를 바라보며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말없이 살고, 사람은 말 못할 일이 있을 때 바다로 가서 술을 마신다. 작가 한창훈이 바닷가에서 술잔을 들며 만난 무수한 물고기와 사람들의 생. 책장을 넘기다보면, 지친 몸에 술이 퍼지듯 인생의 지난함과 쓸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심히 쏟아놓고 가는 인간 앞에 영원히 깊고 푸르게 펼쳐져 있을 바다의 경이에 홀연히 취해버릴지도 모른다. 술 한 잔 마시지 않아도, 푸른 바다가 입안에서 요동치는 해산물 안주가 없어도 취할 것 같다.



❖ 아폴로의 천사들

제니퍼 호먼스 지음, 정은지 옮김 / 까치 / 736p / 3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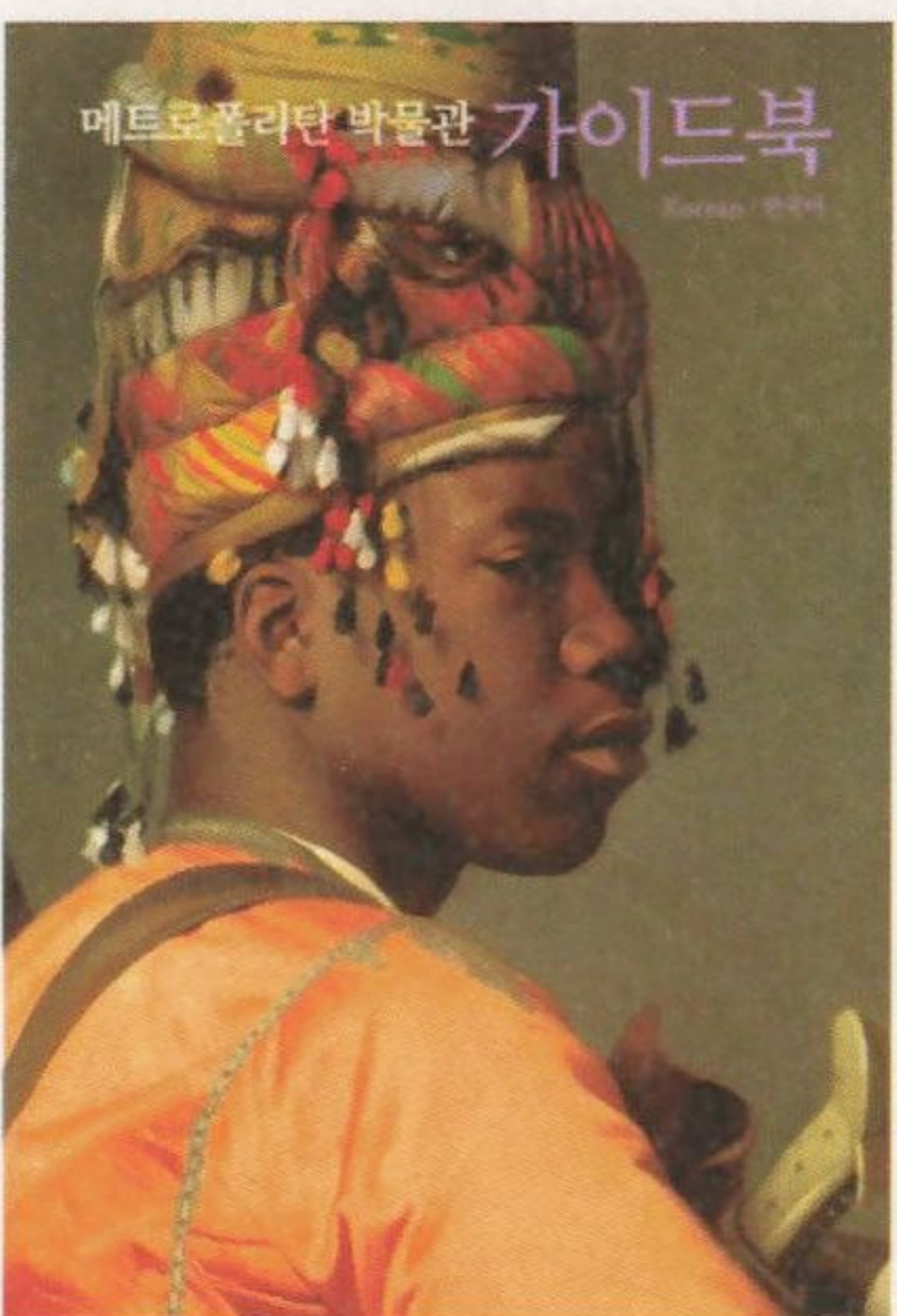
발레의 기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00년의 역사를 추적하여 발레예술의 발전 과정과 그 과정을 이끈 천재적인 무용수와 안무가들,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작품들을 소개한 책. 저자 제니퍼 호먼스는 역사가이자 비평가이며, 한때 무용수로 활동했다. 발레는 400년 넘게 우아함, 스토리텔링, 예술성의 그 독특한 조합으로 관객을 사로잡아왔다. 발레는 프랑스 궁정에서 예법으로 시작되었다. 왕에 대한 충성과 귀족들의 서열을 나타내는 예법으로서, 귀족들은 귀족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발레를 배웠다. 이 궁정 예법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시작된 발레의 역사는 유럽의 궁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발레의 스텝과 자세들은 거대한 역사적 변동의 사이사이에 형성되었다. 르네상스, 고전주의, 계몽주의, 낭만주의, 불세비즘, 모더니즘, 냉전은 각각 발레에 자취를 남겼다. 저자는 발레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테크닉, 안무, 공연의 발전과정을 추적한다. 뿐만 아니라 이 환상적인 예술 형식을 형성한 예술가와 혁신가들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발레가 걸어온 길을 심도 깊게 조망하여, 발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발레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가이드북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지음 / 사회평론아카데미 / 456p / 2만 7천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186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변호사 존 제이가 미국만의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선포한 후 4년이 지난 1870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연간 500만 명이 방문하는 미국 최대 박물관이다. 파리 루브르박물관, 런던 대영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그 중에서 역사는 가장 짧지만 예술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겠다는 사명감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왔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세계에 박물관을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공식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30년 만에 출간하며, 10개 언어로 펴냈다. 그 개정판에는 한국어도 포함됐다. 이번 한국어판 출간은 한층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이드북은 박물관이 소장한 5000년에 걸친 세계 전 지역의 작품 330만 점에서 엄선한 대표작 600점을 시대와 콘셉트에 따라 각각 '고대', '다양한 문화', '유럽', '미국', '근대'의 다섯 파트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삼국시대의 '보살반가상', 고려의 '뚜껑 있는 함'과 '수월관음보살상', 조선의 백자 '달항아리' 네 점은 '다양한 문화' 파트에 실려 있다. 박물관이 소장한 걸작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박물관을 소개받는 것을 넘어 미술 감상에 최적의 가이드북이다.



NEWS

❖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1회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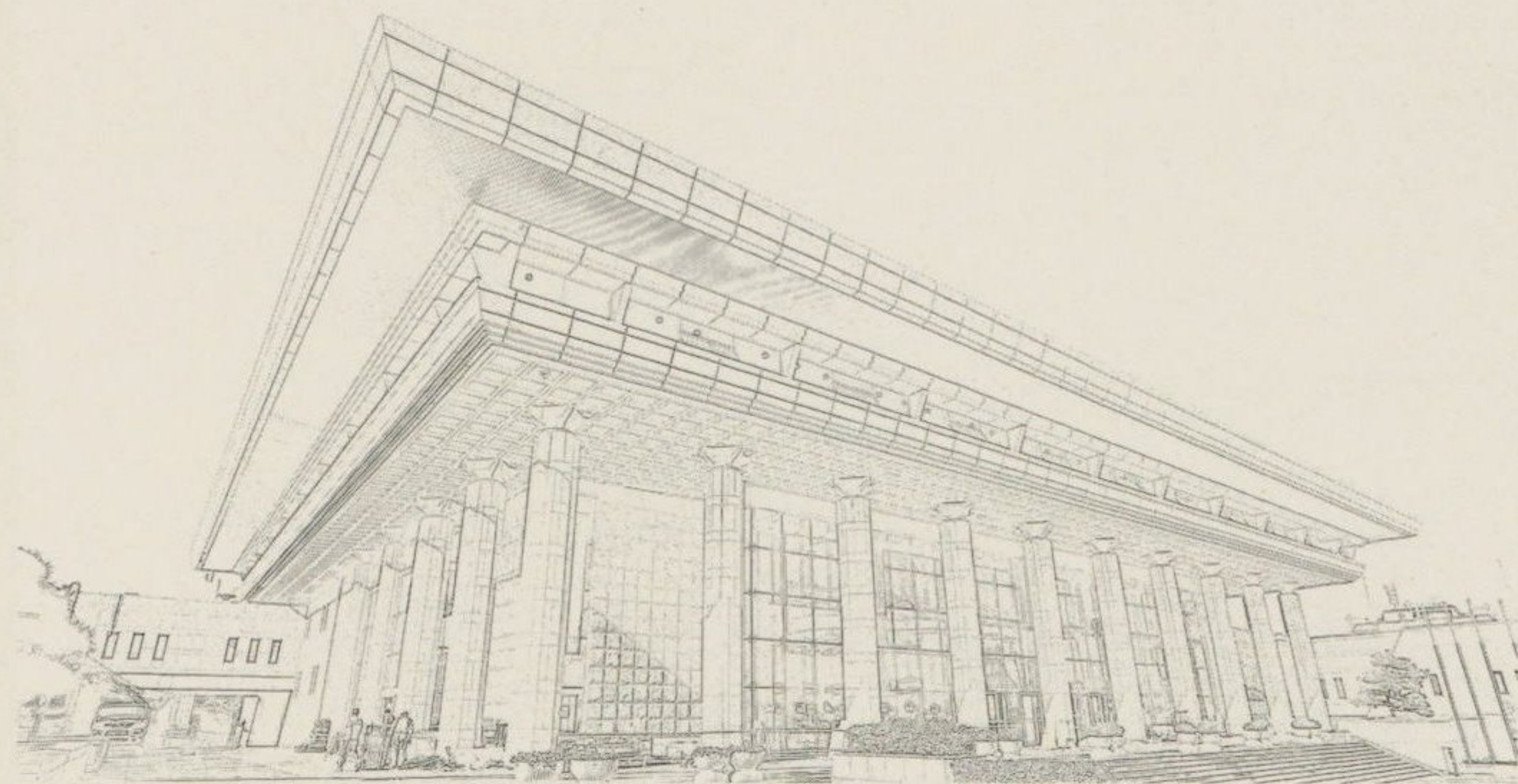
금난새 '클래식은 내친구'에 이은 부산문화회관의 새로운 문화상품 탄생 재미있고 유쾌한 실내악으로 즐거움 선사

지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이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 음악감독 금난새와 국내외 실력파 뮤지션을 초청, 감미로운 실내악 선율로 지난 여름 더위로 지친 감성을 깨워주는 최고의 앙상블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4일간 열린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은 부산문화회관에서 부산시민들에게 클래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기 위한 부산문화회관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만큼 음악감독 선정, 협연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휘자 금난새가 흔쾌히 음악감독을 수락하면서 부산의 실내악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제1회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이 탄생하게 되었고 지휘자 금난새는 4일간의 페스티벌 기간 동안 부산에 머물면서 재미있고 유쾌한 음악회를 만들기 위해 애정을 보였다. 그 결과 공연 첫날, 부산시민들에게 널리 사랑받지 못했던 실내악 무대가 금난새의 재치 넘치는 해설과 무대와 객석을 허문 재미있는 진행과 이벤트로 '즐거운 음악회'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중극장을 감동과 웃음으로 꽃피웠다.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은 내년에도 더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새롭게 만날 계획이다.



▶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 관람후기



이은주(동래구 사직북로)

그냥 으레 열리는 평범한 공연으로 생각하고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금난새 선생님의 해설에 귀 기울이고, 협연자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며 공연을 보았고, 공연 내내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협연자들과 좀 더 많은 대화와 음악적 공감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영(남구 못골로)

8월 30일, 8세 딸아이와 공연을 관람했는데 너무나 아이가 생각보다 재미있게 관람해서 공연 시간 내내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래식에 대한 호기심, 관심을 갖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현수(사하구 낙동대로)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은 재미있고 유익한 클래식의 맛보기 식탁이랄까~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권유진(북구 금곡대로)

모처럼 클래식 연주를 관람하기로 하고 친구랑 일정을 조절하다 보니 어느새 좋은 좌석은 다 예매되고...사이드 쪽이만 그래도 좀 더 생생한 연주를 기대하고 앞쪽으로 예약했는데,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연주자들의 섬세

한 연주와 해설하는 금난새 지휘자의 정열적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연주에 푹 빠지고 말았네요. 실내악 연주라 다소 지루하지 않을까 했는데, 앙상블의 또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영환(부산진구 신천대로)

오랜만에 문화생활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당연 지휘자 금난새 선생님 때문이죠. 항상 금난새 선생님이 지휘하는 공연을 꼭 한번 보고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일찌감치 예매를 하고 기다렸네요. 역시나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던 공연, 연주자들의 연주솜씨도 훌륭했고 무엇보다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던 공연이었습니다.

주수경(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글)

부산챔버뮤직페스티벌에 다녀와서 금난새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쫓아는 실내악이라는 클래식을 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금난새 음악 총지휘자님께서 음악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설명을 한 부분은 그래도 귀담아서 듣기도 좋았고 모처럼 생생한 클래식을 CD나 mp3가 아닌 해설과 함께 직접 듣고 봐서 너무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이들이 방금 들던 음악을 컴퓨터게임 하듯이 기억을 못해도 언젠가는 추억으로 남겠죠. 저는 금난새 선생님께서 서울예고 학생들을 실내악 연주에 참여시킨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그분의 탁월한 선택이 좋은 아이디어로 남아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저는 연주되는 음악을 감상하면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음악을 감상했고 금난새 선생님의 설명에 그만 푹 빠졌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의한(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글)

모든 일정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이번 페스티벌이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이런 기획을 해준 부산문화회관과 음악과 특유의 유머로 부산 청중을 즐겁게 해준 금난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클래식음악 중에서도 절대음악적인 성격이 강한 실내악을 주제로 대중들에게 이만큼 관심을 갖게 하고 집중 있게 듣게 하고 감동을 주기 쉽지 않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축제는 그런 면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EWS

❖ 부산시립무용단 캄보디아, 터키 공연



부산시와 프놈펜의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해 9월 25일 미얀마, 프놈펜 초청공연길에 오르는 부산시립무용단이 10월 27일에는 터키 'Sefika Kutluer 국제 문화 축제'에 참가, 우리 춤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린다. 올해 5회를 맞는 'Sefika Kutluer 국제 문화 축제'는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펼쳐지는 최대 규모의 축제이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축제 기간 중인 10월 29일 '한국-부산시립무용단'의 날 앙카라 Cer'modern 극장에서 한국의 춤과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한 무대를 펼친다. 이날 선보일 레퍼토리는 1부에서는 '연-Timeless love', 2부에서는 우수 춤 사위를 한자리에서 선보일 수 있는 '찬란한 유산'으로 터키 현지에서도 기대가 크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앙카라 공연에 이어 10월 31일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카라반 한국문화의 날' 행사와 '한국의 밤 행사'에 참여해 부산시립무용단의 대표 민속춤 레퍼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10월 일정 풍성



축제와 문화의 계절 10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부산전역에서 풍성하게 펼쳐진다.

10월에는 2일 '제1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을 시작으로 제35회 시민의 날 기념 내 사랑 부산공연,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근로자를 위한 활력 공연 등 총 15회의 공연이 펼쳐진다.

| 일 정 |

10월 2일(목) 10:00 부산시민공원 대극장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제18회 노인의 날'(출연/무용단)

10월 2일(목) 15:00 시청 1층 대강당 내 사랑 부산공연
'제35회 시민의 날'(출연/합창단)

10월 6일(월) 13:00 대천초등학교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음악회'(출연/합창단)

10월 7일(화) 12:30 우영제화 근로자를 위한 활력 공연
'찾아가는 시립교향악단 음악회'(출연/교향악단)

10월 9일(목) 10:00 시청 1층 대강당 내 사랑 부산 공연
'한글날 기념식'(출연/합창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10월 14일(화) 14:30 감만중학교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찾아가는 시립무용단 공연'(출연/무용단)

10월 15일(수) 17:00 수영도서관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음악회'(출연/합창단)

10월 16일(목) 19:00 해운대도서관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음악회'(출연/합창단)

10월 20일(월) 15:20 동아고등학교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찾아가는 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출연/국악관현악단)

10월 21일(화) 13:00 벅스코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ITU전권회의 기념 벅스코 로비콘서트'(출연/무용단)

10월 21일(화) 14:00 경남여자중학교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찾아가는 시립무용단 공연'(출연/무용단)

10월 22일(수) 12:30 시청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로비 콘서트'(출연/교향악단)

10월 29일(수) 13:00 벅스코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ITU전권회의 기념 벅스코 로비콘서트'(출연/국악관현악단)

10월 31일(금) 13:00 금양초등학교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음악회'(출연/합창단)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5)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 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051)622-1456

하나노가사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빌리 210호
051)747-8244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051)626-2592

연극 작업의 정석

2014.8.28(목)~10.26(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공연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스타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매디컬 '루니틱'

2014.9.4(목)~11.2(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공연 3만5천원
장 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연극 7년동안 하지 못한 말

2014.9.16(화)~10.18(토)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공연 3만원
장 소 : 가온아트홀 2관
문의 및 예매 : SM7 | 회 1600-1602

2014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2014.9.16(화)~10.8(수)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입장권 : 공연 3만원
장 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소극장 611-8518

CULTURAL SCHEDULE

2014 October 10

1	19:30	2014 The 52th Art Festival in Busan The Night of Songs and Arias Grand Theater Busan Federation of artistic organization(631-1377) Dong-A University Piano professors 3-Solo & Ensemble Concert Medium Theater Invitation/Dong-A University(010-2333-2544)	18	19:00	Stuttgart Chamber Orchestra Busan Concert Grand Theater braum(02-2055-1556) The 51st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Railway Small Theater 10,000/5,000/B,M,T,C(607-3151)
2	19:30	The 18th Regular Concert of Korea Songs Association Medium Theater Synodus Wind Orchestra(010-7467-3230) Park Jaehyeon Traditional Percussion Performance Small Theater Invitation/Park Jaehyeon(010-8581-3291)	19	19:00	The 36th Regular Concert of Busan Catholic Choir Grand Theater 10,000/Busan Catholic Choir(010-5060-4744) The 51st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Railway Small Theater 10,000/5,000/B,M,T,C(607-3151)
3	19:30	Aloysius Symphony Orchestra 50th Anniversary Festival Grand Theater Invitation Aloysius Symphony Orchestra(250-5408, 5200) Park Jieun Piano Recital Medium Theater 20,000/Art Bank Korea(442-1941)	21	19:30	Busan Metropolitan Pops Orchestra 'Pagliacci' Grand Theater Busan Metropolitan Pops Orches- tra(070-7727-0188)
4	18:00	The 20th Melomania Concert Grand Theater Melomania(620-3834) 19:30 Soprano Yang Seonghui Recital Medium Theater 10,000/ang Seonghui(010-2584-4870) 16:00 Saturday Regular Stage Lee Eunhye Korea Folk Festival Small Theater Free/B,C,C(607-6056)	21-23	19:30	The 51st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 itan Theatre Company Railway Small Theater 10,000/5,000/B,M,T,C(607-3151)
5	19:00	Jeju Dance Company Performance Grand Theater Free/Jeju Dance Company(064-710-7642) 17:00 The Founded Concert of Busan Youth Flute Ensemble Medium Theater Busan Youth Flute Ensemble(010-3664-8866) 18:00 Kong Minseong Guitar Recital Small Theater Free/Open Guitar minia(010-7447-4528)	22	19:30	Kim Hyeonjeong Flute Recital Medium Theater Invitation/Kim Hyeonjeong(010-9752-8008)
7	19:30	Busan Symphony Band 'To Leave the World a Music Journey with Traveler Do Yongbok' Grand Theater Busan Symphony Band(853-3723) 19:30 Associazione L'approfondimento Degli Musicali Italiani The 39th Regular Concert Medium Theater Assoc- iazione L'approfondimento Degli Musicali Italiani(010-8254-6178)	23	19:30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French Opera' Medium Theater 2,000/B,P,C(607-3111~3)
8	19:30	The 3th Korean Traditional Flute Recital of Kim Gyeongsu Small Theater Invitation/Kim Gyeongsu(010-5481-8612)	24	19:30	The Founded Concert of Primo Cantante Medium Theater Primo Cantante(010-2567-3994)
9	19:30	The 34th Regular Concert of UKO Grand Theater 20,000/UKO(010-3863-3087) 19:30 Kim Juri Piano Recital Medium Theater 10,000/Art Bank Korea(442-1941)	25	17:00	he 142nd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Dokdo Love Concert' Grand Theater 1,000/B,M,J,C(607-3161~2) 19:30 Kim Mungyeong Piano Recital Medium Theater Invitation/Busan Art Management(740-5833) 16:00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Small Theater Free/B,C,C(607-6056)
10	19:30	Kim Jiho & Friends Grand Theater Korea Culture Artist Cooperative(010-2752-9923, 070-8265-0776) 19:30 The Reguar Concert of Busan Bravo Father Choir Medium Theater Busan Bravo Father Choir(010-3954-0362)	26	17:00	Salzburg Orchester Solisten Busan Concert Grand Theater Busan Art Management(740-5833) 18:00 Dance of Yang Taesun Medium Theater Yang Taesun(010-9060-8623)
11	10:00	The 7th Korea Youth Choral Festival Grand Theater Paramita Youth Buddhist Association of Busan(513-4306) 19:00 The 9th Regular Concert of Our Poetry Our Song Medium Theater Korea Creative Songs Associa- tion(010-5541-8576) 16:00 Saturday Regular Stage Busan Metropolitan Dance Com- pany Performance Small Theater Free/B,C,C(607-6056)	27	19:30	United Family Concert Grand Theater United Foundation(02-553-0377) 19:30 The 38th Piano Festival of Busan Pianist Club Medium Theater Busan Pianist Club(890-1327) 19:30 2014 Busan Arrangements Music Festival Small Theater The Music Association of Busan(634-1295)
12	16:00	The 8th Regular Concert of Gwangnam United Orchestra Grand Theater Gwangnam United Orchestra(010-3046-8466)	28	19:30	2014 Busan Arrangements Music Festival Grand Theater The Music Association of Busan(010-7550-9090) 19:30 The 38th Piano Festival of Busan Pianist Club Medium Theater Busan Pianist Club(890-1327) 19:30 The 25th College Dance Festival Small Theater Busan College Dance Association(517-0906)
13-15	19:30	Agimus Opera Company's Opera 'Barbiere di Siviglia' Medium Theater 100,000/50,000/30,000/20,000 Agimus Opera(070-7522-4649)	29	19:30	The 7th Regular Concert of La Mer Orchestra Grand Theater La Mer Orchestra(627-5665) 19:30 The 25th College Dance Festival Small Theater Free/Busan College Dance Association(517-0906)
14	20:00	The 10th Busan Choral Festival & Competition Eve Concert Grand Theater Korea Choral Institute(611-0534)	30	19:30	The 32nd Regular Concert of Korean Music Depart- ment College of Arts, Busan National University Grand Theater Busan National University(510-1739) 19:30 Lee Solra Dance Small Theater 10,000/Lee Solra Dance Company(010-8521-0556)
16-17	19:30	The 48th Regular Concert of Busan Piano Duo Association Medium Theater Busan Piano Duo Association(010-8524-7913) 19:30 The 51st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 itan Theatre Company Railway Small Theater 10,000/5,000/B,M,T,C(607-3151)	31	19:30	The 504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Grand Theater 20,000/15,000/10,000/5,000 B,P,C(607-3111~3) 20:00 Theater Saebuyuk 30th Aanniversary of Founding Preformance Medium Theater 20,000/Theater Saebuyuk(245-5919) 19:30 Kim Sujin Composition Conference Small Theater Invitation/Kim Sujin(010-4550-1299)
17	19:30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Opera in Concert 'Le Nozze di Figaro Grand Theater B,P,C(607-3111~3)			

요금수취인
후남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1.1~
남부산우체국승인
제265호

11월 테마여행 신청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독자
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12
15	16		17	
		18		
19				20
	21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까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연극 '작업의 정석'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매디컬 '루니틱'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60% Discou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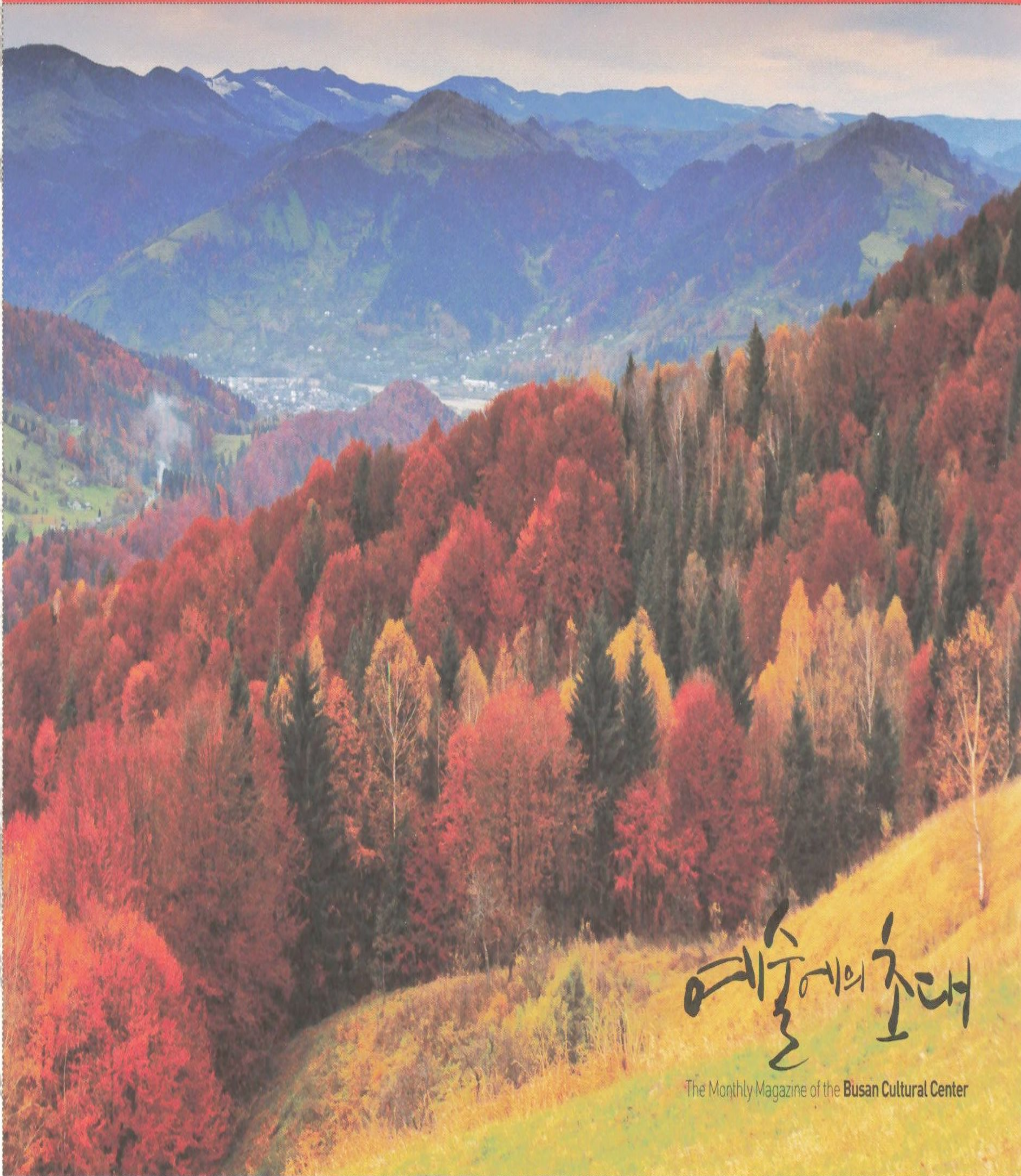
주말 50% 할인
연극 '7년동안 하지 못한 말'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2014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우 편 엽 서

요청수취인
후남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11~

남부산우체국송인
제285호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번길1(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AL SCHEDULE

2014
October 10

1	19:30 2014 부산예술제 '가곡과 아리아의 밤' 대극장 부산음악협회(634-1295) 19:30 동아대학교 피아노 교수음악회 중극장 초대/동아대학교(010-2333-2544)	18	19:00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대극장 10만원/5만원/3만원/2만원/브라운(02-2055-1556) 15:00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철로' 소극장 19:30 1만원/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	19:30 제18회 한국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군일 1만원/우리아트(010-5555-3825) 19:00 박지현 첫번째 타악독주회 소극장 초대/박지현(010-8581-3291)	19	19:30 제36회 부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대극장 군일 1만원/부산가톨릭합창단(010-5060-4744) 15:00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철로' 소극장 1만원/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3	19:30 미리아수녀회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 대극장 초대/미리아수녀회(250-5408, 5200) 19:30 박지은 피아노 독주회 중극장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1	19:30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VI '발리아치' 대극장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070-7727-0188)
4	18:00 제20회 멜로매니아 정기연주회 대극장 군일 1만원/멜로매니아(620-3834) 19:30 스포라노 양성회 귀국 독창회 중극장 군일 1만원/양성회(010-2584-4870) 16:00 토요일성무대-이은혜 민요발표회 소극장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21~23	19:30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철로' 소극장 1만원/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5	19:00 제주특별자치도립무용단 특별공연 대극장 무료/제주도립무용단(064-710-7642) 17:00 부산플루트 유스앙상블 창단연주회 중극장 군일 5천원/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010-5664-8866) 18:00 공생가타독주회 소극장 열기타마아(010-7447-4528)	22~24	19:30 제27회 부산합창제 대극장 무료취학아동이상 입장/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6	19:30 오지여행가 도용복과 함께하는 세계로 떠나는 음악여행 대극장 초대/부산신포니멘트(010-9966-9063) 19:30 제39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군일 3만원/이태리음악연구회(010-6439-1875)	22	19:30 김현정 플루트 독주회 중극장 초대/내담프로덕션(010-3556-7308)
7	19:30 제3회 김경수 피리독주회 '본' 소극장 초대/김경수(010-5481-8612)	23	19:3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2014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 시리즈 III -'프랑스 오페라' 중극장 군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8	19:30 피아니스트 구스타보 로메로 초청 UKO 정기연주회 대극장 군일 2만원/UKO(010-3863-3087) 19:30 김주리 귀국 피아노 독주회 중극장 군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24	19:30 프리모 칸탄데 창단연주회 중극장 군일 1만원/프리모 칸탄데(010-2567-3994)
9	19:30 테너 김지호 데뷔 10주년 기념 스페셜 콘서트 대극장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010-2752-9923) 19:30 부산Bravo아버지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초대/부산Bravo아버지합창단(010-3954-0362)	25	17: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2회 정기연주회 '독도이야기' 대극장 군일 1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19:30 김문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중극장 초대/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16:00 토요일성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극장 무료(공 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10	19:30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대극장 무료/(사)부산피리타청소년협회(513-4306) 19:00 제9회 우리 시 우리 노래 중극장 초대/한국창작가곡협회(010-5541-8576) 16:00 토요일성무대-부산시립무용단 소극장 무료(공연 30 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	26	17: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질투부르크 솔리스텐 오케스트라' 대극장 1만원/7만원/5만원/3만원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18:00 양태순의 춤 중극장 2만원/1만원/양태순(010-9060-8623)
11	16:00 광남 유나이트드 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무료/광남유나이트드 오케스트라(010-3046-8466)	27	19:30 유나이트드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대극장 유나이트드문화재단(02-553-0377) 19:30 제38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노페스티벌 중극장 군일 1만원/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010-4391-1106) 19:30 2014 부산작편곡음악제 소극장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12	19:30 (사)이지무스오페라단 오페라 '세발리아의 이발사' 중극장 10만원/5만원/3만원/2만원 (사)이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28	19:30 2014 부산작편곡음악제 대극장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19:30 제38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피아노페스티벌 중극장 군일 1만원/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890-1327)
13~15	20:00 제10회 부산국제합창제 전야 부산 대합창 대극장 군일 2만원/한국합창조직위원회(611-0534)	29	19:30 라 메르 오케스트라 제7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군일 3만원/라 메르 오케스트라(627-5665) 19:30 제25회 대학무용제 소극장 무료/부산대학무용진흥회(517-0906)
14	19:30 제48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군일 1만원/부산피아노듀오협회(010-8524-7913) 19:30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철로' 소극장 1만원/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30	19:30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제32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무료/부산대학교(510-1739) 19:30 이슬라의 춤 소극장 군일 1만원/이슬라(010-8521-0556)
16~17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Opera in Concert '피가로의 결혼' 대극장 3만원/2만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31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4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00 극단 새벽 창단 30주년 기념 춤극 '새야 매야' 중극장 군일 2만원/극단 새벽(245-5919) 19:30 김수진 작곡발표회 소극장 초대/김수진(010-4550-1299)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OPERA IN CONCERT
피가로의 결혼

Wolfgang Amadeus Mozart

LE NOZZE DI
FIGARO



지휘·연출 리 신차오
Li Xincao

오페라 코치 손 소 향

조연출 정 병 휘

양 지 영

이 태 영

왕 동 준
WANG Dongjun

송 위엔밍
SONG Yuanming

김 수 현

양 재 원

성 미 진

이 은 민

한 우 인

손 상 혁

강 태 경

2014. 10. 17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II

새로운 형태의 갈라 콘서트

LA BOHÈME 라 보엠

conductor Gum Nanse

지휘 · 해설 금 난 새

연주 유라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테너 이기업

소프라노 이에니

바리톤 성승욱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2014. 11. 10 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문의 051-607-6058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